

8시간 어서어서 지나가길
기다리며
앞만 보고
고개만 숙이고
다람쥐 쳃바퀴 돌고돌아
굳은살 박인 발바닥으로
굳은살 박인 손바닥으로
굼은 땀방울 흐르고 흘러
겨드랑이마저 짓물리고 나서야
소금꽃으로 피어났네

정미숙, 「소금꽃」 중 일부

뼈를 녹여
소금꽃을 피웠다
001

뼈를 녹여 소금꽃을 피웠다

광주여성생애구술사1 : 방직공장 노동자편

001

광주여성가족재단

뼈를 녹여 소금꽃을 피웠다

광주여성가족재단 펴냄

당신이 말하고
광주가 기록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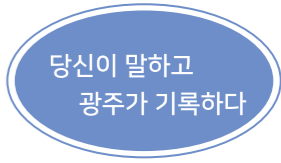
광주여성 생애구술사1 : 방직공장 노동자편 001

- 생애구술**
- 고인선** 삼교대 끝나면 녹초가 되어도 일하기 싫다는 생각보다 내 할 일이다 했지
 - 노미래** 많이 배우들 못했어도 공장에서는 어깨에 힘 좀 주고 일했지
 - 김옥희** 월급 육만원으로 적금을 넣어 이백사십만 원 모아 결혼을 하고
 - 김복희** 공순이라고 놀림 받아도 가족을 위해 자존감도 버리고 여자라는 것도 버리고
 - 김은경** 일신방직에서도 일했는데, 내가 하면된다, 그런 힘을 얻었죠
 - 정미숙** 세상에 보지 않음 통증, 모두 다 등에 핀 꽃이다

이 책의 표지는 임미숙 작가가 촬영한 사진을 토대로 작업한 것임을 밝힙니다.

배를 녹여 소금꽃을 피웠다

광주여성가족재단 펴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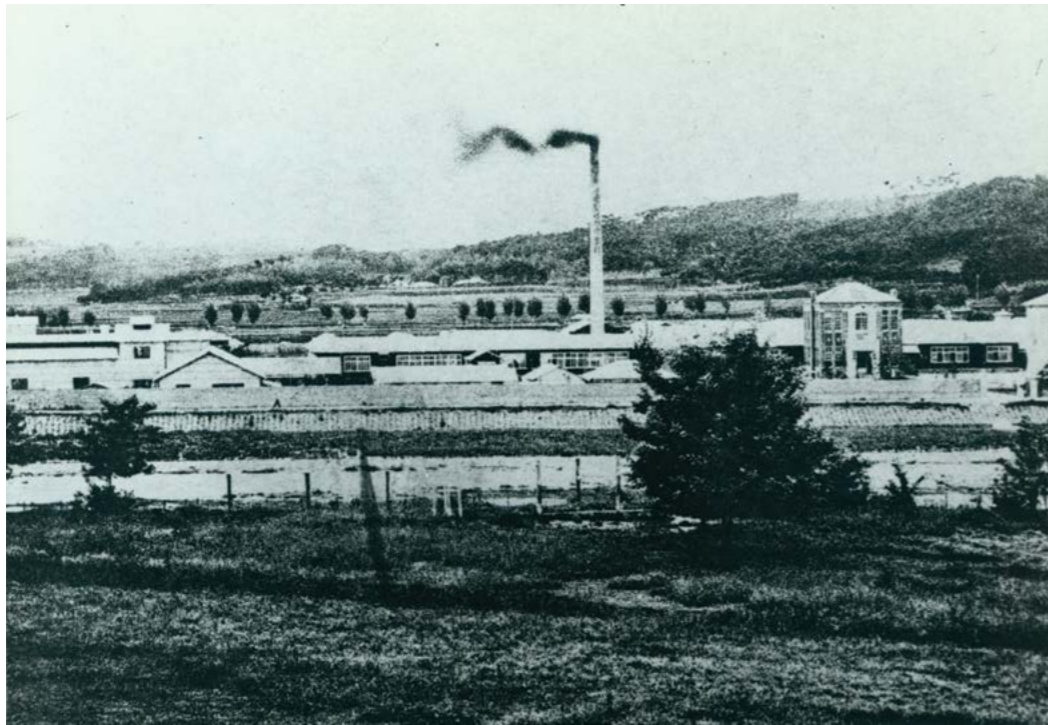


광주여성 생애구술서I : 방직공장 노동자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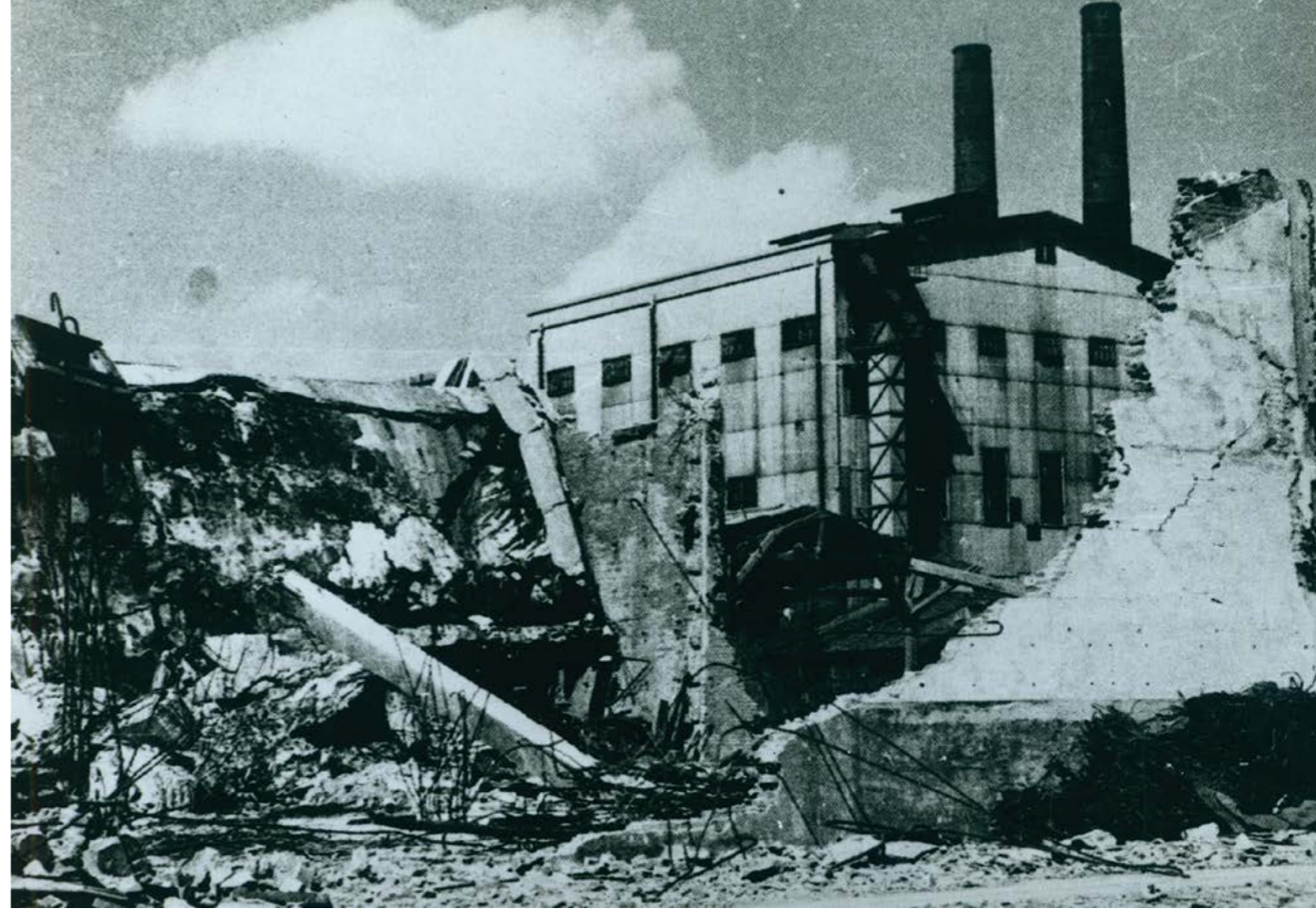
001

일리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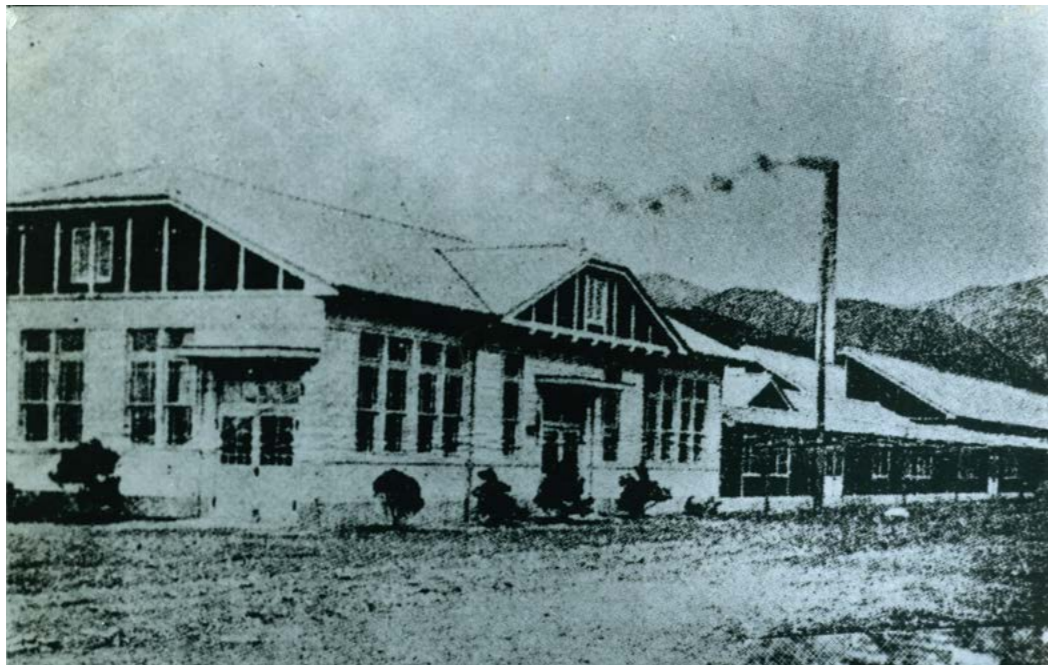
1. 이 책은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시리즈 첫 책으로 광주지역의 방직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구술을 채록하여 엮었습니다.
2. 광주여성구술채록단은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2021년 운영한 구술채록학교를 수료, 위촉된 이들로써 열두 명이 이 책을 발간하는데 참가하였습니다.
3. 이 책은 구술자의 표현을 최대한 살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경우 ()로 표준어를 표기하였습니다. 또한 부가적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를 달았습니다.
4. 구술자료 앞에 구술자의 간략한 생애를, 뒷부분에는 연표를 정리하였습니다.
5. 구술자의 순서는 방직공장에서 일했던 시대순을 따랐습니다.
6. 첫 번째 구술자 고인선은 이름과 신원을 밝히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구술채록과 책 발간에 동의하였기에 가명을 썼으며 일러스트로 사진을 대신하였음을 밝힙니다.
7. 구술채록시 구술자의 사진은 김소영 작가가 촬영한 것이며 나머지는 출처를 밝혔습니다.



1926년 5월 전남 최초의 대규모 생산공장인 전남도시제사주식회사가 양동(지금의 금호맨션)에 부지 20만평, 건평 3,153평, 종업원 696명으로 설립되었다.
광주광역시청 제공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공습으로 파괴된 전남방직공장
광주광역시청 제공



1930년 가네보 방직주식회사(지금의 삼익세라믹)의 전경
광주광역시청 제공



1950년 공습으로 화염에 싸인 전남방직공장
광주광역시청 제공



1950년 일신방직 주변(무등경기장 앞 광주 천변)
광주광역시청 제공



1950년대 양동시장
광주광역시청 제공



1954년 충장로거리
광주광역시청 제공



1953년 한국전쟁 후 재건된 전남방직주식회사 전경
광주광역시청 제공



1953년 학동에서 임동으로 확장 이전된 전남방직주식회사 정문
광주광역시청 제공



1961년 4월 전남방직 주식회사는 일신방직주식회사와 전방주식회사로 분할되었다.
광주광역시청 제공



1960년 광주 총장로 시가 풍경
전라남도청 제공



1965년 양동시장
광주광역시청 제공



196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사진이다.
사진 상단의 밭고랑 같은 지붕을 엮은 건물이 생산구역이며 사진 아래쪽에 등성등성 높은 건물이 주거구역이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제공



현재의 용봉동 중흥동 일대
전라남도청 제공



1963년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수영장 뒤편으로 왼쪽부터 고가수조, 보일러실
굴뚝, 발전소와 그 위로 솟은 2개의 굴뚝이 보인다.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제공



뽕뽕다리 전경(학림교가 가설되기 전 모습)
현재의 학림교가 가설되기 이전에는 방림동 주민이 이 다리를 많이 이용했다.
광주광역시청 제공



양동 판자촌 상가의 모습
광주광역시청 제공



일신방직공장 담장
광주광역시청 제공



1987년 지산동 일대
광주광역시청 제공



1999년 전남방직
광주광역시청 제공



1999년 전남방직
광주광역시청 제공



으뜸요양병원으로 사용 중인 옛 기숙사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제공



일신방직 정문 옆에 있는 여자 기숙사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제공



2004년 일신방직주식회사 항공촬영
광주광역시청 제공





2021년 12월의 전남방직 일신방직 부지
건물 내부는 대부분 철거가 완료된 상태였고 건물 외벽만 남았다.
사진 임미숙

연혁

1929

일본 미쓰이계열 카네가후지 방직이 학동에 제사공장(중연방직) 설립

1930

중방 화순탄광 인수

1932

중방 광주제사부 여공 300여명, 처우개선과 임금인상 요구하며 파업

1935

중방 광주공장(임동) 가동, 신안동 부지 수용



1945. 11.

전남방직공사를 김형남이 불하받아 관리

1946. 2.

회사 내 전방교회 설립
종업원은 남자 800명, 여자 1,600명에 이릅니다

1947

회사 출입 시 검신제도 폐지

1950. 7. 23. ~ 25.

북한군 폭격으로 건물 80%와 시설 90% 파괴됨

1951

김형남 등이 전남방직공사로 적산 불하받음
광주공과고등학교 운영



1955-57

공장 시설 복구와 증설

1956. 10.

전남방직 본사 서울 이전



1961

전남방직·일신방직으로 회사 분리
전남방직(김용주)은 사명 인수, 일신방직(김형남)은 대로변 정문 인수

1966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종료, 전남부대접시정대척위원회 발족

1968

전남제사공장 노동자 대량 해고로 인한 철야 농성



1970년대

방직 회사 최대 호황기(전방 3,200명, 일방 2,800명 근무)

1976-78

광주YWCA 근로여성 교육 실시(한일섬유, 전남방직, 버스안내양)

1970년대 후반

전남·일신방직 노조 결성

1978

김형남 별세(1980년 광주공원에 동상 건립)

1980. 5.

전남·일신방직, 로케트전기 등 여성노동자들 5-18항쟁 주역

1982

운암동 사원아파트 준공(30세대)

1984

임동 사원아파트 준공(60세대)

1987

광주 방직 2공장 자동차 설비

1989

전남방직 집단해고 반대 투쟁



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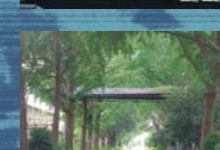
광주여성노동자회 창립(회장 최경희, 전남방직 해고노동자 주축)
운암동 2차 사원아파트 준공(31세대)

1991. 4.

청원공장 준공(코마사 전문)

1991. 8.

여의도 일신빌딩 준공



2007

일신방직 광주2공장(평동공장) 건설

2017

전남방직 가동중단

2020

광주1공장(임동공장) 가동 중단

2021

광주2공장(평동공장)을 [일신방직(주)광주공장]으로 사업자 명칭 변경



차례

서문

- 28 근대의 자화상과 마주하다 | 광주여성 생애구술사를 시작하며
김미경(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 30 그 많던 여공들은 어디로 갔을까? | 방직공장과 광주여성의 삶
이경아(목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광주여성구술채록단 자문위원)

방직공장 노동자 생애구술

- 50 고인선

삼교대 끝나면 녹초가 되어도
일하기 싫다는 생각보다 내 할 일이다 했지
김강현·이정선
- 74 노미례

많이 배우들 못했어도 공장에서는
어깨에 힘 줌 주고 일했지
김태희·한영숙
- 100 김옥희

월급 육만원으로 적금을 넣어
이백사십만 원 모아 결혼을 하고
임미숙·장상은

- 128 김복자

공순이라고 놀림 받아도 가족을 위해
자존감도 버리고 여자라는 것도 버리고
조경미·채현숙
- 152 김은경

일신방직에서도 일했는데, 내가 하면 된다,
그런 힘을 얻었죠
김수진·정현아
- 176 정미숙

세상에 보이지 않은 통증,
모두 다 등에 핀 꽃이다
김유정·윤혜경
- 204 광주여성구술채록단 활동일지 | 당신이 말하고 광주가 기록하다
이정선(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광주여성구술채록단)
- 212 후기 | 당신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를 만났습니다
광주여성구술채록단



8시간 어서어서 지나가길 기다리며
앞만 보고
고개만 숙이고
다람쥐 쳃바퀴 돌고돌아
굳은살 박인 발바닥으로
굳은살 박인 손바닥으로
끓은 땀방울 흐르고 흘러
겨드랑이마저 짓물리고 나서야
소금꽃으로 피어났네

정미숙, 「소금꽃」 중 일부

사진 임미숙



서문

근대의 자화상과 마주하다

광주여성 생애구술사를 시작하며 28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그 많던 여공들은 어디로 갔을까?

방직공장과 광주여성의 삶 30

이경아 목포대학교 학술연구교수,
광주여성구술채록단 자문위원

근대의 자화상과 마주하다



김미경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광주여성 생애구술사를 시작하며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지배자의 기록'인 역사를 피지배자인 여성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는 작업으로 2019년부터 2021년에 걸쳐 『광주여성사』 전근대, 근대, 현대편을 발간하였다. 이어 2021년 『광주여성 생애구술사』를 기획하여 그 첫 작업으로 '방직공장 여성노동자'의 구술을 채록하였고 2022년 결과물을 발표하게 되었다. 여성 당사자의 시각에서 '말하고 기록하는' 작업이 광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일제강점기와 미군정을 거쳐 한국전쟁을 치르는 과정에서 지구상 가장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1960~70년대 방직, 신발, 가발 등 경공업을 주력으로 산업화를 시작하였고 그 중심에는 이제 막 국민학교를 졸업했거나 졸업조차 못한 어린 '여공'들이 있었다. 그리고 광주에는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이 있었다. 1960년대 중반에 태어난 나의 가족사 역시 방직공장을 비켜갈 수 없었던 것 같다. 전남방직에서 공장장(혹은 작업반장. 어린시절 엄마한테 들은 이야기라 관리직이 정확히 무엇이었는지 분명치 않다)을 하던 큰아버지는 회사에서 제공하는 사택에서 살며 공장주변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던 이모부의 단골손님이었고, 그 인연으로 이모가 다리를 놓아 내 어머니와 아버지의 부부연이 맺어졌기 때문이다. 보성군 예당 출신인 어머니는 얼굴도 제대로 보지 못한 전북 정읍 출신인 아버지를 만났고, 아버지가 구직활동을 했던 신희 초 이모네 이발소 일을 가끔 거들었다고 했다. 어머니, 아버지의 신희 보금자리는 그래서 임동오거리와 유동사거리 사이 아시아극장 뒤편 작은 단칸방이었던 것 같다. 수창국민학교를 다니며 뽕뽕다리에서 놀았던 나의 어린시절 추억이 바로 그 공간들 사이에서 부유하고

있었던 것은 나의 가족사와 얽힌 광주 방직공장의 역사와 무관하지 않음을 이 구술사를 통해 인식하게 된다.

이번 구술에 참여하신 고인선(1935년생), 노미례(1938년생), 김복자(1955년생), 김옥희(1959년생), 정미숙(1963년생), 김은경(1982년생) 님은 1930년대생에서 1980년대생으로 연령층이 다양하다. 나의 어머니 세대부터 한참 어린 동생뻘까지 걸쳐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모두가 가난했던 시절, 대부분 큰딸로 태어나 많은 식구들을 건사해야 했던 공통점이 있다. 초등학교조차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식모'로 '여공'으로 가서 입을 하나라도 덜고 가세에 조금이라도 보태야 했던 가난한 시대의 딸들이었다. 자신을 위해 돈을 쓰는 일이 없이 월급이 나오면 바로 가족들에게 보냈고 본인은 기숙사 생활을 하며 식당에서 나오는 밥을 먹고 2교대, 3교대 근무로 인해 졸린 눈을 비비며 잠이 나는 대로 양재학원이나 야간학교를 다니며 공부를 하기도 했다. 누구보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우리의 어머니이자 딸들이었다. 그렇게 힘든 시절을 살아 온 그들이 나이가 들어서도 여전히 일을 하거나 무엇인가를 배우려 하고 봉사 활동까지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 앞에 경이로움을 느낄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삶은 주체적이다. 구술에 따르면 누구도 그들을 방직공장에 떠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들 스스로 가세에 도움을 주고자 방직공장을 선택해 찾아갔고 시험에 응시해 합격한 자긍심을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그들은 스스로 한국 근대화 과정에서 경제의 비공식 부문을 담당하던 계모임을 조직하기도 하였고 동료들과 자매애를 나누었으며 지금까지도 그 인연을 맺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방직공장에서 일하던 우리의 어머니, 딸들은 대한민국 근대화의 자화상이다. 그들을 거치지 않고 우리는 근대에 들어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들의 노동과 삶이 잊혀지지 않도록 기억하고 기록하는 일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본인의 소중한 기억을 공유해주신 여섯 분의 구술자와,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구술채록단으로 활동해주신 열두 명의 채록자에게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 재단은 앞으로도 보이지 않은 곳에서 일하고 살아가신 광주여성들을 발굴하여 기록하고 기억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많던 여공들은 어디로 갔을까?

: 방직공장과 광주여성의 삶

이경아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광주, 우리에게서 임동 방직공장이 있다

광주는 국토 서남권 산업경제 및 중추관리의 중심지로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해 온 호남지방 최대 도시이다. 빛고을 광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서 광주의 정신을 잇는 '무등산', 1980년대 민주화운동의 상징인 '5·18 민주광장', 그리고 민주·인권·평화의 광주 정신을 문화로 승화시켜 아시아의 허브역할을 담당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 이르기까지, 예향이자 민주화 역사의 본고장으로서 면모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광주의 역사가 또 있다. 전방과 일신방직. 지금은 공장가동이 중지되었지만, 80여 년간 광주 여성의 생계형 일자리를 책임져온 고귀한 노동 현장으로서 임동 '방직공장'이 있다.

이쯤에서 과거 광주를 상징하는 수백 년 역사와 이야기가 한순간에 사라졌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수원지 조성을 이유로 다이너마이트로 폭파해 소규모 폭포로 만들어버린 1930년대 무등산의 명물 '용추폭포', 1968년 개발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벌목해버린 숲의 고장 임동의 '유림숲', 그리고 택지조성을 위해 호남 최대의 저수지였던 '경양방죽'을 매립하면서 그에 필요한 토사를 얻기 위해 헐었던 '태봉산'에 이르기까지, 지금은 모두 지도상에서 사라져버렸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한번 파괴된 소중한 유산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불 보듯 뻔하지만, 우리는 또 다시 선택의 갈림길에서 주춤거리고 있다.

이제 임동의 방직공장이 우리 곁을 떠날 차례이다. 광주의 근대 산업유산이자 일제 수탈의 아픔이 배어 있는 공간인 '방직공장'이 아쉽게도 역사의 뒤편길로 사라질 위기에 놓여있다. 전방(옛 전남방직)과 일신방직 광주 공장 부지가 매각돼 개발 계획 구상에 들어갔기 때문



학동에서 임동으로 확장 이전된 전방주식회사 정문
광주 100년 사진, <http://gjarchive.kr/cp05/3442>

이다. 어쩌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광주의 역사 또 하나가 고스란히 사라질지 모르겠다.¹

광주의 방직공장은 우리 모두에게 산업과 노동현장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방직공장 '여공들'이 치열하게 기계와 싸우던 땀과 눈물로 얼룩진 노동현장이었다. 교복 대신 공장작업복을 입고서 노란 월급봉투를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서로를 위안하며 의지했던 여공들의 이야기가 그곳에 있다.

광주, 그리고 임동 방직공장. 미처 역사화되지 못하고, 채 기록되지 못한 노동현장이, 방직공장이, 그리고 여공의 이야기가 그곳에 남아있다. 이름만 들어도 아련한, 부르면 왈칵 눈물을 쏟을 것 같은, 열네 살 여공의 이야기. 까치발을 디디며 그 어려운 방직공장 입사라는 관문을 뚫고 당찬 여공이 되기까지. 불러오는 배를 부여잡고 기계 앞에 서기까지. 젓먹이 아이를 떼놓고 3교대 새벽근무를 나오기까지.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어떻게 살아왔고 버텨왔는지

1 이러한 걱정에서인지 최근 방직공장이 재조명 되고 있으며,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임동, 방직공장』(2021)을 출간했다. 이 책에서는 일제강점기, 즉 종연방직(鐘淵紡績)이 운영하던 시기에 임동 방직공장에서 일한 여성 노동자들을 다루고 있다.



1985년 임동 일신방직공장 담장
광주광역시청 제공

모를 모진 세월을 걸어온 것이다. 비록 여기서는 6인의 이야기만 기록하지만, 이 6인은 누군가의 어머니였고 아내였으며 누이였던 우리의 이야기이자 나의 이야기이다.

공간과 장소 : 여공이 몸담았던 방직공장, 임동과 발산마을

여공을 만나기가 이렇게 힘들다니. 방직공장이 사라질 위기에 다다라서야 겨우 여공을 찾게 될 줄이야. 우리 곁에 있던 그 많던 여공은 다 어디로 갔을까. 방직기는 농촌 여성들을 도시로 불러들이고, 가난한 어린 아이들을 노동자의 길로 들어서게 했다. 특히 방직기의 등장은 전통적인 가내수공업이었던 길쌈에서 여성들을 해방시켜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오히려

물레와 베틀 대신 방직기 앞에 서게 했고, 노동의 수고를 덜어주는 대신 노동의 굴레에 빠지게 만들었다. 산업화로 치달리던 당시만 해도 노동인권과 젠더의식이 있을 리 만무했고 그 자리에 감시와 통제가 있었지만,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임동의 두 방직공장이 그 고단함을 마다않는 '여공'들의 유일한 '일자리'가 되어 주었다는 것이다. 국가의 공식 호칭으로는 '산업역군'으로 불리웠지만, 일상에서는 '공순이'로 통했던 바로 그 '여공'의 일터가 방직공장이었다.

예컨대 일제강점기에 행해진 강제노동과 달리, 1950년대 이후 여공의 노동은 더 이상 강제가 아니었으며 오히려 "가족을 살리기 위한 필사적인 노동"이었고(이임하, 2004), 당시 10대 여성들이 가족의 생계를 상당 부분 책임질 수 있었던 경제적 의미뿐만 아니라 가난한 농촌 가족의 가부장적 울타리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해방'의 의미를 내포하기도 했다(이희영, 2008). 이처럼 단순 노동을 넘어 여성들의 공장노동은 무수한 함의를 내포하고 있는 것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여공이 갖는 천하고 하찮은 직업으로서 이미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론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은 많은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무엇보다 여타 여성의 경제활동 가운데 비교적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급여가 지급되는 몇 안 되는 직장이었으며, 기숙사와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등 소위 파격적인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이유로 '최고의 직장'으로 알려지면서 입사 문턱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일은 녹록치 않았다. 입사 후부터 숨털이 풀풀 휘날리고 30도가 훌쩍 넘는 고온다습한 작업장² 안에서 매일 다람쥐 쳇바퀴마냥 공장 안을 이쪽저쪽 뛰어다니며 실을 잇다보면, 등짝은 땀으로 적적해지고 시끄러운 기계 소리 때문에 호루라기를 불어야만 소통이 가능했다. 12시간 2교대에서 8시간 3교대로 대체되긴 했지만, 작업대 앞에서 있어도 물려드는 졸음은 이길 장사가 없어 자칫 기계에 다치는 일이 부지기수였다. 이렇게 여공들은 밤잠을 설치며 한 달 꼬박 일해서 번 돈을 고스란히 가족들에게 보냈다.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띠고 농촌에서 상경했기에 몸은 고단했지만 전화기 넘어

² 좋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습도와 온도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실을 뽑아내는 공장 내부는 항상 고온다습한 상태를 유지한다. 실은 민감하기 때문에 끊어지지 않도록 적절한 습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또한 공장 안은 기계 돌아가는 소리뿐 아니라 먼지가 날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기까지 24시간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소음이 심각해서 바로 옆 사람 말소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소음뿐만 아니라 찜통 더위도 직원들을 괴롭혔다(매일노동뉴스, <http://www.labortoday.co.kr/2022.4.14>. 검색).

들려오는 “내 딸, 고생한다”는 부모의 말 한마디에 다시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한 달을, 또 일년을 버텨낸 것이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아물지 않은 상처가 하나쯤 있다. 교복을 입어보지 못한 여공들이 그랬다. 교복 대신 공장작업복과 두건을, 책가방 대신 실뭉치를 들어야 했던 이들에게 어찌면 그래서 임동 방직공장이 인기였을 것이다. 산업체 부설 학교³가 있어 공장을 다니면서 졸업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잘만하면 졸업장을 딸 수 있었겠지만 그리 녹록치 않았다. 공장 직무가 힘들고 고단했기에 교대 근무를 하며 수업 따라가기가 쉽지는 않았을 터이다.

그리고 기숙사뿐만 아니라 임동 방직공장을 둘러싼 골목골목마다 삶의 애환이 담겨있기도 하다. 싼 월세로 자취가 가능했던 발산마을 ‘뽕뽕다리’를 건너 많은 여공이 공장으로 출퇴근하였고, 공장 앞 미용실, 양장점, 분식집, 세탁소, 수입보세가게, 다방 등은 젊은 여공들의 단골가게였고 아지트였다. 특히 두 방직공장은 임금이 밀리지 않고 나온다는 점 때문에 여기 여공들은 외상이 가능했고, 단골 ‘할부’ 손님으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 특히 방직공장의 여러 ‘계모임’의 ‘계주’들을 선점하기 위해 주변 상가들은 갖가지 서비스 공세를 펼쳤다.⁴ 두 방직공장 덕택으로 도시 전체가 먹고 살았다고 할 정도로 임동과 신안동 일대는 변화했지만, 아쉽게도 1990년대 이후 도심공동화 현상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여공들이 떠난 자리는 빈집만 남았다.

공간은 해당 사회나 시대에 사람들의 생활양식뿐만 아니라 의사소통 방식을 반영한다. 단순히 외형적이고 물리적인 공간이 아닌 사물들 간의 관계이자 사람들 간의 관계를 맺는 ‘장소’(Place)여야 한다(박영욱, 2007). 즉 공간은 특정한 장소이자 사회적인 장소이다. 다시 말하면, 장소는 과거의 기억들과 미래에 대한 소망, 현재가 공존하는 시간적인 계기를 지닌 공간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이곳 광주의 방직공장이 그런 장소로 우리의 가슴에 남길 바란다.

3 (주)전방은 광주에 전남중학교(1958)와 전남고등학교(1966)를 설립해 국가에 무상으로 헌납(1981년)하고, 전남방직 부설학교인 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해 배움에 대한 갈증을 안고 있던 직원들을 배려하였다.

4 식당의 계모임 장소제공, 화장품 판매(방판)를 위한 미용실의 마사지 서비스, 금방 반지계모임 유치 등 여공들을 현혹하는 많은 유희과 소비 대상들이 임동거리에 준비하였다.

임동의 두 방직공장, 전방과 일신방직

방직산업은 대한민국의 중심산업이었으며, 산업화의 역사 그 자체였다. 일본자본으로 설립되긴 했지만 광주의 방직산업은 일제 강점기를 거쳐 해방이후 본격적으로 발전하기 시작했다. 1951년 적산 관리되다 불하된 전남방직공사는 그뒤 민영화되었다가 1961년 지금의 전방과 일신방직으로 분리·경영하며 독자노선을 걷게 되었다. 또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되면서 정부가 수출 유망업종으로 집중 육성하고, 섬유산업이 활성화되면서 면방직산업도 본 궤도에 올랐다. 1970년대 수출 주도 산업화 고도성장기를 거쳐 광주의 두 방직공장은 동일, 대한방직, 경방을 포함해 방직 관련 5대 기업이면서, 생산이나 매출에서 전국 10대 기업 안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고, 1990년대 이후 전자, 전기에 밀려 사양산업으로 전락하게 된다.

전방·일신방직의 태동은 일본 미쓰이(三井) 계열의 카네가후치(鐘淵)방직이 지금의 학동에 1929년에 세운 제사공장⁵에서 시작되었고, 1935년 지금의 임동 100번지 일대에 종방(鐘淵紡績) 전남공장⁶이 문을 열면서 본격 출발하였다. 1930년대 일본은 방직산업을 기간산업으로 육성했다. 내수는 물론 군수용으로 옷감 생산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안정적인 원료, 즉 목화⁷ 공급이 필요했기에 종연방직은 값싼 노동력과 면화의 조달이 손쉬운 조선에 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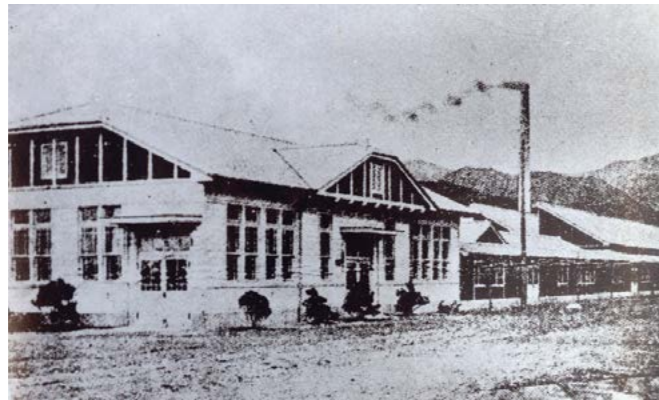
5 학동에 제사공장을 세운 이면에는 인근 광주천의 풍부한 공업용수와 화순탄광의 연료도 한몫했다. 공장을 가동하기 위해선 원활한 공업용수와 동력원으로 사용될 석탄 공급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종방은 안정적인 연료 공급원을 확보하기 위해 화순탄광을 인수하기에 이른다. 광주 학동은 안정적인 목화 확보가 가능하고 인근에 화순 탄광이 있어 석탄이 풍부하며, 무엇보다 값싼 노동력을 제공받기에 용이한 위치였다.

6 광주공장은 일본과 달리 주야 12시간 2교대 조업을 전개할 수 있었다. 즉 당시 “공장법 적용이 없는 조선의 특수사정을 살려 일본 내에서는 불가능한 심야 2교대 조업으로 일거에 증산을 노린 대량생산방식”을 전개했다. 또한 광주공장은 양질의 누에 고치 보급이 가능하고 “인해전술적인 저임금 노동력 투입”으로 양질의 제사생산과 상대적인 공비절감에 의해 기대 이상의 성적을 올릴 수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다(종연방직주식회사, 「鐘淵紡績株式會社伍拾年史(하)」 1937,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item/level.do?levelId=fs_015_0050_0030_0010/ 2021.4.18 검색).

7 고온다습하고 일조량이 적어 목화재배가 어려웠던 일본 본토보다는 날씨, 기후조건이 양호한 양질의 목화 공급지로서 조선은 최적지였다. 특히 목화의 주 재배지였던 목포를 비롯해 기후가 온난하고 평야지가 많은 전라도가 일본 자본 진출의 표적이 되었다. 목화로 실을 만드는 과정에서 건조한 환경에 놓이면 실이 쉽게 끊어졌기 때문에 이처럼 고온다습한 환경을 유지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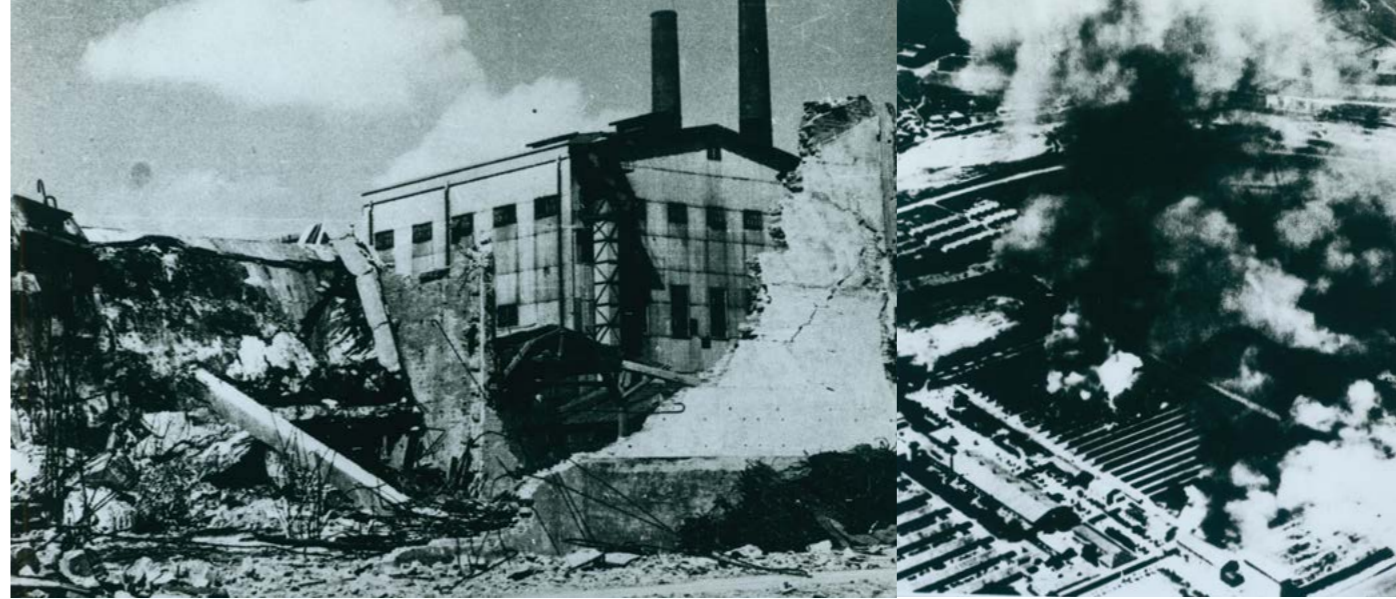
하기 위해 광주공장⁸을 건설하였다.

종연방적 공장이 들어선 임동은 1930년 초까지만 해도 겨우 인구 수백 명에 불과한 작은 시골마을이었다. 당시 임동 일대는 광주천변으로 신우대(조릿대)가 많은 늪지대였으며 농업 학교와 입업시험장, 실습장, 종묘장, 형무소 농장이 있던 한적한 지역이었다. 여기에 방직공장이 들어서면서 인구가 3천여 명에 이르렀다. 당시 이 지역은 종방에 근무한 여공들로 인해 여초(女超)현상이 뚜렷했으며, 방직공장의 기숙사제도는 여공들의 생활편의보다는 노동력 착취 목적이 더 컸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가혹한 노동으로 인한 결근과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수단으로 기숙사가 활용됐으며, 어린 여공들을 바깥세상과 단절시키는 등 열악한 노동 환경과 인권유린이 만연해 이를 견디지 못한 여공들이 기숙사를 탈출하는 사례가 빈번했다.⁹ 그러다 1945년 일제가 전쟁에 패하면서 종연방적 기술자 등 핵심요원들이 일제히 빠져 나가면서 공장가동이 어려워졌다. 이에 노동자들이 먼저 나서 스스로 자주관리위원회를 꾸려 회사명을 전남방직주식회사로 바꾸고 정상가동에 나섰지만, 해방과 더불어 등장한 미군정은 다시 회사를 정부소유 '전남방직공사'로 바꾸고 관리책임자로 김형남(당시 미군정 통역



1930년 가네보 방직주식회사(지금의 학동 삼익세라믹)의 전경

- 8 일제는 침략초기에는 면업의 원료인 면화만을 조선에서 총당하려 했으나 1930년대 이후에는 조선에 직접 독점자본을 침투시켜 면직물의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장악하기에 이른다. 종방 전남공장의 창업초기 시설규모는 방적기 3만 5천추, 직기 1440대, 종업원 3천명으로 국내 최대 규모였다고 한다(일신방직 50년사).
- 9 예컨대 종연방적은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여공들의 지원이 감소하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소녀들을 강제 징집해오기도 했는데, 이는 조선총독부로부터 부여받은 군수공장이라는 권한이 있었기에 가능한 횡포였다. 식민지 조선은 인적·물적으로 수탈하던 종방 전남공장은 1945년 일제가 패망하면서 막을 내린다. 일제 강점기의 방직공장 여성 노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강이수(1992), 정근식(1990), 이희영(2008)의 글 참조.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공습으로 화염에 싸이고 파괴된 전남방직공장
광주광역시청 제공

관)¹⁰을 임명하였다. 공장 책임자가 된 김형남은 공장을 정상 궤도로 올려놓았으나 1950년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시설 90%가 파괴되는 피해를 입었다.¹¹ 김형남은 그동안 적산으로 관리하던 전남방직공사를 컨소시엄을 구성해 1951년 최종불하 받았다.¹² 민영화된 전남방직

10 일신방직 창업자인 김형남(1905~1978, 평안남도 강서군 동진면 태성리 출생)은 한국경제 발전에 큰 공헌을 한 기업가이면서 숭실대학교 총장과 이사를 지낸 교육계의 선구자이다. 문맹이었던 여공들을 위해서 공민학교도 설립해 하루 두 시간씩 교육하는 등 공장뿐만 아니라 사무조직의 체계를 세우는데도 눈을 돌렸다. 공장이 순조롭게 돌아가던 해 광주에 내려온 김구 선생이 전남방직을 방문하여 저녁식사 자리에서 “정치한다고 해서만 애국이 아니다. 애국은 너희들이 한다”고 이야기한 일화도 있다. 또 6·25전쟁이 발발하자 3,000명의 종업원들을 모이게 하고 그 자리에서 회사의 보유휄금을 나눠 월급으로 지급한 것은 물론 생산된 광목 5만 필을 발 빠르게 부산으로 이송해 당시 정부에서 군복 20만 벌을 만들었다고 한다. 1950년 10월 7일 공장 간부들과 폐허가 된 공장으로 돌아와 불에 탄 기계를 재생하여 우여곡절 끝에 6,000추의 정방기를 설치한 후 정부로부터 불하 방침이 내려진다. 찻더미로 폐허가 된 공장을 맨손으로 다시 일으킨 전남방직 재건 과정은 국제연합 한국재건단(UNKRA)의 원조 지원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된다(<https://www.tinnews.co.kr/17607/2022.4.15>.검색).

11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해 북한군이 광주를 점령하자 미군은 공장이 북한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해 폭격을 가해 시설과 건물 대부분을 파괴한다.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공장을 다시 복구하는데 노동자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12 전남방직도 해방 후 노동자들의 이른바 자주관리운동을 통해 공장을 정상가동한 것이다. 자주관리후 미군정이 접수하여 관리인을 지명하고, 이후 이승만정권의 적산불하 등의 과정을 거치며 사유화됐다. 또한 한국전쟁 당시 미군의 폭격으로 폐허가 된 공장도 노동자들이 복구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미군정 통역관이었던 김형남(전 숭실대 총장), 포항의 삼일상회 설립자로 대한해운공사 사장을 역임한 김용주, 대한제분 창업자인 이한원 등 3인이 참여해 컨소시엄 형태로 전남방직공사를 불하받는다. 이들 중 실제로는 김형남과 김용주가 대다수의 지분을 갖고 김형남이 경영을, 김용주가 대외활동을 담당하는 형태의 회사운영이 이뤄졌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김형남은 지역유지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본사를 서울로 이전하려 했지만, 이것을 계기로 분열하게 된다. 이후 1961년 회사가 분리되면서 창업주인 김형남은 일신방직을, 동생인 김용주와 김용성은 전방(옛 전남방직)을 운영하게 된다.

은 1953년 (주)전남방직으로 상호를 변경하고 김형남이 경영을, 김용주가 대외활동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했으나 오래가지 못했고, 1961년 회사를 분할함으로써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으로 나뉘어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되었다.



1961년 4월 전남방직주식회사는 일신방직주식회사와 전방주식회사로 분할되었다. 일신방직 주식회사 모습. 광주광역시청 제공

1961년 회사가 분리되면서 방직공장의 모든 것이 둘로 나뉘었다.¹³ 경계 담장이 세워지면서 공장 건물이 둘로 나뉘었고 종업원도 절반씩 갈렸다. 그러나 공장건물과 종업원의 분리와 달리 회사명칭을 두고 양측 조율이 쉽지 않았을 터, 결국 전남방직¹⁴은 회사명을 갖는 대신,

¹³ 당시 회사의 분리로 사명이 바뀌면서 '전방교회' 역시 명칭을 '서림교회'로 변경하였다. 교회는 해방후 미 군정에 의해 공장 관리인으로 파견된 김형남이 종업원의 신앙생활을 위해 1946년 2월 설립했기에, 설립자인 김형남이 일신방직의 사주가 되면서 결국 교회명을 변경하였다(서림교회 60년사).

¹⁴ 김용주는 '전남방직'이라는 이름을 그대로 승계하는 대신 광주천변으로 난 문을 회사의 정문으로 사용해야 했다. 전남방직은 1970년 사명을 '전방주식회사'로 바꿨으며, 지금은 전방 공장이 있던 자리에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서 있다.

정문은 일신방직¹⁵에 내어주게 된다. 공장분리 이후, 전방과 일신방직 종업원들 사이에는 미묘한 경쟁의식이 작동했다고 한다. 회사 경영 실적과 종업원 급여 및 복지혜택, 심지어 구내 식당 메뉴에 대해서도 신경을 쓸 정도로 양측은 선의의 경쟁을 벌이기도 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업의 대형화와 경영진의 이견으로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으로 분리된 이후, 광주의 두 방직공장은 1970~80년대 한국 방직산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다. 회사가 분리됐음에도 섬유산업 중시 정책에 힘입어 방직산업은 대한민국의 중심산업이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경제정책이 전자와 석유 등 중화학공업으로 옮겨가면서 1980년대 섬유산업은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아시아 국가들이 성장하기 시작하면서 1990년대부터 값싼 노동력을 앞세운 중국과 인도 제품이 물밀듯 들어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게 되었다. 국내의 숙련 기능인력 확보의 어려움과 인건비 상승으로 고전을 면치 못해 방직업체들이 중국이나 베트남 등으로 해외진출이 시작되었다.¹⁶

2000년대 들어 '특수사'로 불리는 기능성 섬유 호황에 힘입어 다시 섬유산업은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난과 최저임금제 도입 등으로 인해 공장 설비 현대화 등을 꾀하며 평동 산단으로 이전하였고, (주)전방은 지난 2017년 11월 1일, 일신방직은 최근 임동의 옛공장 가동을 중단하였다. 한국 산업근대화의 주역이며 산실이었던 광주 임동의 두 방직공장의 굴뚝에서 더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게 되었다.

¹⁵ '일신'은 이 땅에 처음 목화씨를 들여왔던 문익점의 자(字)이며, 『대학(大學)』의 3장 '苟日新, 日日新, 又日新'에서 따온 상호였는데 '날마다 새로워져야 한다'는 뜻이다. 이는 당시 김형남이 가장 존경하였던 선배인 연세대학교 총장 백낙준이 작명한 것이었다고 한다(<https://www.tinnews.co.kr/17607/2022.4.15> 검색).

¹⁶ 일신방직은 서울 영등포구에 본사(1991년, 근무인원 70여명)를 신축하여 이전하고, 1984년 설립한 반월공장(근무인원 170여명)과 2007년 평동공장(350여명), 2015년 일신베트남을 준공(600여명)하였다. 전방은 서울 서대문구에 본사를 두고 영암(1973년 착공), 평동(2008년 착공, 2010년 가동), 익산(2011년 착공, 2012년 가동)에 공장을 두고 있다.

방직공장, 현재와 미래

방직공장 정문을 나와 긴 담벼락을 따라 광주천변을 걷다보면 방직공장 여공들이 건너던 ‘뽕뽕다리’를 만날 수 있었다. 공사장에서 안전 발판으로 쓰이던 구멍이 뽕뽕 뚫려있는 철판을 덧댄 이 다리는 임동 방직공장과 주거지인 발산마을 등을 연결하는 임시가교로서 당시 방직공장 직공들을 비롯한 광주시민의 추억과 애환이 서려 있었다. 철제 뽕뽕다리를 지나 발산마을에 다다르면 방직공장 여공들이 삼삼오오 모여 세들어 살던 단칸방들이 들어선 달동네와 마주한다.



뽕뽕다리 전경(학림교가 가설되기 전 모습)
현재의 학림교가 가설되기 이전에는 방림동 주민이 이 다리를 많이 이용했다.
광주광역시청 제공

두 방직공장은 직공들의 복지를 위해 기숙사와 사택을 운영했지만 전체 직원을 다 수용하지는 못했다. 종업원 수가 많아서 기숙사와 사택에 미처 들어가지 못한 직원들은 공장 근처에서 주로 자취했으며 임동과 신안동 일대가 이들의 주된 거주지였고, 여공들은 비교적 방값이 저렴한 광주천 건너 발산 동네에 방을 얻어 생활했다.

여공들과 달리 방직공장의 남성 관리직원들은 회사에서 제공한 사택에 입주하여 생활하였다. 1983년에 전방 사원아파트가, 1984년에 일신방직 사원아파트가 건립되었다. 특히 일신방직 공장 부지에 종연방직 당시의 적산가옥이 60여 채 가량 남아있었고, 84년 일신방직 사원아파트가 완공되어 입주하기 전까지 이 적산가옥에서 관리직원과 가족들이 생활하였다. 전형적인 일본식 2층 목조주택양식이었고 긴 복도와 다다미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직원가족들이 거주하면서 추운 겨울환경에 맞춰 일부 한국식 온돌방으로 변형하여 생활했던 것으로 보인다. 일신방직 정문 건너편에 건립된 사원아파트로 관리직원들이 입주하면서 적산가옥을 모두 허물고 그 자리에 신규공장이 들어섰다. 그러나 사원아파트 입주 당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고, 남편의 직급이 곧 아내의 직급이 되어 사원아파트 공동에 불편한 점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으뜸요양병원으로 사용 중인 옛 기숙사. 광주역사민속박물관 제공
출처: 『전방·일신방직 공장 건축물 기초조사 용역 최종보고서』(2021년)

국내 방직산업의 호황기는 1970년대였으며, 섬유산업의 호황은 일신·전방의 번성이자 광주지역 경제 활성화를 의미했다. 70년대 두 방직공장의 종업원 규모는 6천 명(전방 3,200명, 일신 2,800명)에 달했으며, 이는 당시 아시아자동차나 삼양타이어를 능가하는 규모였다고 한다. 안정적인 급여지급과 복지혜택으로 광주를 포함한 전남지역에서는 당대 최고의 직장으로 각광받았다. 이는 치열한 입사 경쟁으로 이어졌으며, 주변의 친인척들이 입사를 청탁하여 관리직원을 통해 심심찮게 뒷거래가 오갔을 정도였다.

방직공장은 노동집약적인 동시에 기술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일의 성격과 작업장 특성상 숙련노동은 남성이, 비숙련노동은 여성이 집중 담당하였다. 당시 기계·설비 등을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숙련기술의 보유여부에 따른 생산성의 차이로 바라보았기에 성별임금격차는 당연하게 여겨졌고, 여성들은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매일 단순 반복노동을 받아들이야 했다. 공정별로 기술의 노하우가 있지만, 작업년수가 늘어나도 하는 일이 크게 달라진 않았다. 한때 방직공장 입사가 하늘의 별따기였던 적도 있지만, 어느덧 외국인 노동자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방직공정¹⁷은 일반적으로 ‘혼타(混打)-소면(梳綿)-정소면(精梳綿)-연조(練條)-조방(粗放)-정방(精紡)-권사(捲絲)’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실이 만들어진다. 견(絹)과 같은 장섬유는 그대로 정리해서 꼬면 실이 되는데, 면이나 양모 등 단섬유는 불순물을 제거하고, 빗질하여 가지런히 배열하고 한 자리에 모으는 등 많은 공정을 거쳐야 비로소 실 모양이 된다. 따라서 면사방적이 가장 기계화되었고 고도로 기술이 발달한 것이며 대표적인 노동집약적 산업이라 할 수 있다.

원사 생산의 첫 단계인 ‘혼타’(Blowing&mixing)는 딱딱하고 압축되어 있는 원면¹⁸을 풀어 면섬유 덩어리를 분리하고 다른 원면과 혼합해 경제적 가격과 최적의 품질을 맞추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원면에는 목화의 줄기나 잎·흙 등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기 때문에 원면 속에 섞여 있는 잡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17 방직공정에 대한 설명은 일신방직, 전방, 국일방직의 누리집을 참조함.

18 섬유용치인 원면은 대부분 미국이나 호주, 브라질 등지에서 수입해온다.

다음 ‘소면’(Carding)은 혼타과정을 거친 면에 빗질을 하는 과정이다.¹⁹ 빗질 과정에서 뭉친 면과 나머지 불순물이 제거된다. 그러나 소면 공정만으로는 짧은 섬유가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고급사를 만들 수 없으므로 단섬유(Noil)와 넵(Nap)²⁰을 제거하고 가는 빛으로 섬유를 빗질하여 완전 평행 상태로 만드는 ‘정소면’(Combing) 과정을 거친다. 소면 공정이 일반 빛이라면 정소면은 밀도가 높은 참빛 정도로 빗는 단계를 말하는데, 이 과정에서 찌꺼기를 걸러내는 것은 물론 짧은 섬유는 제거되고 길고 질 좋은 면만 남는데, 피부에 직접 닿는 속옷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다음 ‘연조’(Drawing)는 굵기를 일정하게 만드는 과정인데, 두께의 오차가 ±2.5% 정도로 일정해야 한다. 소면 공정 또는 정소면 공정에서 만들어진 슬라이버(Sliver)는 기계가 편차가 있어 6~9가닥을 합쳐 균일하고 평행도가 좋은 1개의 슬라이버로 잡아 늘리는 공정으로, 이 공정을 되풀이하여 각 슬라이버의 가는 부분과 굵은 부분이 서로 보완되게 하여 굵기를 고르게 한다. 즉 면사의 굵기의 정도를 이곳에서 조정한다.²¹

다음 ‘조방’(Roving)은 연조 공정에서 만들어진 슬라이버에 최소의 꼬임을 주어 예비 실을 만드는 단계이다.²² 슬라이버와 실의 중간 형태인 조사(로빙) 형태로 만드는 공정이다. ‘정방’(Spinning)은 원하는 굵기의 실을 만들고 필요한 꼬임을 주어 실의 강력을 높이는 단계이다. 조사를 필요한 정도의 굵기로 드래프트하고 꼬임을 주어서 굵기를 조절하여 보빈(bobbin)에 감아주는 공정이다.

마지막 단계인 ‘권사’(Winding) 공정은 정방에서 생산된 관사(콥 상태의 실)를 여러 개를 이어 다음 공정에 사용할 수 있게 원하는 길이와 중량으로 감아주는 단계이다. 용도에 따라 치즈(Cheese)형태로 실 결점을 제거하면서 장력을 주고 감아 일정한 규격으로 제품화하는 단계이다. 권사에서 완성된 콘(Cone)의 외관 및 중량을 육안 및 저울에 의해 최종검사하고

19 원면의 꾸린 짐을 풀고, 고밀도로 압축된 것을 푼 다음 잡물을 제거하는 혼타과정을 거쳐 섬유를 한 가닥씩 분리시켜서 소면기에 걸어서 엄지손가락만한 굵기의 슬라이버(sliver)를 만든다.

20 작은 섬유 뭉치로, 엉키고 정돈되지 않은 덩어리에 존재하는 하나 이상의 섬유를 말한다.

21 여기서 실패할 경우 불량품이 될 가능성이 커지므로 불량제품은 혼타과정부터 다시 거친다. 소면·정소면 과정에서 걸러지는 질이 떨어지는 섬유는 장갑이나 화분 분재용으로 재활용한다.

22 조방은 보다 균일한 실이 방출될 수 있도록 연조 슬라이버를 좀 더 가늘게 하고 꼬임을 주어 조사를 생산하여 보빈에 일정한 모양으로 감는 것을 말한다.

박스에 포장하는 ‘검사’ 공정을 거치면 완료된다. 이렇게 방직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은 의류 업체에 납품되거나 일본 등으로 수출되었다.

방직공장 여공들은 공장에 다니던 당시를 회고하면서, 실 뽑는 과정에서 기계를 멈출 수 없었기에 종종걸음으로 달려 다니던 기억과 공장에 불이 났던 기억을 많이 떠올렸다.

목화솜에서 실을 뽑는 과정에서 끊어진 실을 잇는 작업은 무엇보다 동작이 빨라야 했다. 혼자 감당해야 할 물량이 많았지만 지켜서 있다 실이 끊어졌다 싶으면 냅다 달려 재빠르게 이어주어야 한다. 실이 끊어졌다고 해서 400개의 솜뭉치가 동시에 돌아가며 감기는 실타래를 멈출 수 없기 때문에 결코 한눈을 팔수가 없었다. 조장과 반장언니가 매와 같은 눈으로 지켜보다 호루라기를 불어 채근하고 호통치기 때문에 잠시도 실 틈이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일터이면서 꿈과 희망의 공간인 작업장에서 일어난 화재사건 역시 어린 여공들의 뇌리에 오래도록 강력하게 남아있는 듯했다. 실을 뽑는 모든 공정이 어렵고 복잡하지만, 특히 소면 공정에서 위험이 뒤따른다. 작업 가운데 잡물들을 제거하는 단계인 소면 공정이 고속화되면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면(落綿) 혹은 풍면(風綿)이 문제가 된다. 작업과정에서 솜을 틀거나 실을 자를 때 생기는 작은 솜뭉치들이 공장 안에 떠다니다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빈번했다.²³

공장 내부의 기계 누전 등 시설 정비나 점검이 미비한 경우, 또 24시간 가동하는 모터 등이 과열, 인화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²⁴ 일부 작은 화재는 소화기로 진압이 가능하지만, 기계 마찰로 생긴 불꽃이 바닥 등에 흩어져 있던 풍면 등을 타고 번지게 되면 인화성이 강한 공장내부의 면직물과 원료 등으로 옮겨붙는 순간 견잡을 수 없는 대형화재로 이어진다.²⁵ 하루 작업을 마치고 공장에서 나오는 여공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얀 솜털과 먼지로 뒤덮여 있는 일이 다반사였으며, 이러한 환경으로 늘 화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방직공장 여공, 그 생애구술사의 의미

생애구술사는 개인의 삶과 기억을 구술 과정을 통해 역사로 기록하는 작업이다. 과거 경험을 기억을 통해서 현재로 불러와 구술자와 역사가가 대화를 통해서 쓰는 역사(윤택림, 2006)이기도 하다. 최근 기록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자신의 경험과 목소리를 기록으로 남기지 못하고 스러져 가는 사람들의 역사를 발굴한 연구 형태로 담아내려는 작업들이 있어왔다. 구술사 연구가 구술자의 기억에 의존한다는 한계를 지적할 수 있겠지만, 기억의 정확성이 떨어지고 왜곡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바라보고자 하는 것은 ‘사실 그 자체’가 아닌 ‘사실에 대한 재현’인 것이다. 온전히 구술자들이 토해내는 이야기를 담아내기에, 구술사는 구술자와 채록자의 공동작업이기도 하다.²⁶

여기 광주에서 광주여성의 기억을 소환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개인은 장소를 통해 기억을 형성하고, 현재와 과거를 연결하며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환한다. 여공들은 방직공장을 어떻게 기억할까? 그들이 기억해내는 임동 방직공장은 어떤 모습일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다. 일제 수탈의 아픔과 산업화 시대의 상징으로 애증이 교차하는 공간 정도로 방직공장을 기억하는 게 전부였을 것이다. 그동안 광주 역사에서 소외되고 잊혀졌던 극히 개인적인 것으로 치부된 방직공장 여성의 이야기를 말하고 듣고 읽게 될 것이다.

그동안 광주여성의 기록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5·18 민중항쟁과 관련하여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기록했던 『광주, 여성』(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기획, 2012)과 구술생애사를 통해 본 『5·18의 기억과 역사』 시리즈의 간호사편(5·18 기념재단, 2020)이 발간되었다. 또한 『광주여성사 현대편』(광주여성가족재단, 2021)에서도 일부 다루어졌다. 광주가 안고 있는 방직공장 이야기로는 2012년 국사편찬위원회의 구술자료 조사 수집 지원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노동공간을 통해 본 광주지역 여성의 노동경험과 생활사: 1970-1990년대 전남방

23 섬유 부스러기 등이 청소가 부실할 경우 화재로 이어지기 때문에 공조기 등을 24시간 가동하여 분진이나 풍면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방직공장 특성상 기계의 마찰로 인해 불꽃과 풍진이 만나 크고 작은 화재가 자주 발생한다.

24 예컨대, 섬유업종 전반이 문제라 하지만 특히 ‘폴리에스테르’ ‘나일론’ ‘레이온’ 등을 생산하는 화학섬유 계통의 경우 제사·직포 등 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먼지 등 인화물질에 전기 스파크로 인한 착화에너지가 결합하면 불이 붙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25 일신방직 광주공장은 지난 1983년 12월과 1990년 3월 두 차례 대형 화재사고를 겪었다. 직포기에서 처음 발화하여 바닥 등에 흩어져 있던 풍면 등 솜털과 면직물 등에 인화돼 삼시간에 번지면서 결국 공장내부에 설치된 값비싼 직포기 등 500여대 기계와 공장 1만 3천여 평방미터 중 7천여 평방미터 공장건물 내부가 불타 많은 재산피해를 입었다.

26 김귀옥(2014)은 구술자가 처한 맥락 속에서 사투리, 은어, 토착문화 등에 대한 사전 이해가 없으면 연구가 어렵고, 주관성이 개입되기 때문에 역사적 사실을 논하기 위한 목적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면서도, 여전히 연구를 하는 사람은 연구자이므로, 연구자가 녹취록의 해석권을 갖고 자의적으로 해석할 힘이 있다고 했다. 다만 연구자는 자신의 해석을 절대화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놓친 ‘더 큰 전체’는 없는지 통찰력 있게 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윤택림(2020)은 구술사와 공공역사는 개개인들이 모두 역사적 존재이고 개인적 삶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는 인식을 도출해내서 공공 영역에서의 다원적이고 민주적인 과거의 재현을 지향할 수 있다고 보고, 이미 구술채록이 이루어진 다양한 영역과의 협업을 통해서 구술사 연구자들이 공공역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직, 일신방직, 로케트전기를 중심으로」(국사편찬위원회 전자사료관, 2012)가 전부였을 정도로, 그동안 역사에서 탈락된 여성, 특히 여공에 대한 구술 이야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

다행인 것은 최근 광주역사민속박물관에서 『임동 방직공장』(2021)을 출간하였다. 건물로 본 임동 방직공장과 일제강점기 종연방직에 근로정신대로 끌려온 여성노동자들에 대한 증언이 중심이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광주여성, 기록되지 않은 여성의 이야기들이 속속 모아져 증언에서 그치지 않고 문화적 기억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러한 작업은 반갑기만 하다.

구술생애사는 공식적인 영역에서 배제되거나 왜곡된 영역을 보완·수정할 수 있으며, 기념비적인 사건이나 명망가보다는 민초들, 일반인의 일상생활 경험과 기억을 기록할 수 있는 방법론(국사편찬위원회, 2012)이라는 점에서 방직공장 이야기를 다루는데 용이하였다. 기존의 중앙 중심적이며 남성, 지배자 중심의 역사적 기록을 넘어서 지역의 이야기이며, 특히 여성 서사 중심의 노동자에 대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더욱이 광주 시민이 직접 기록한 방직공장 여성 노동자에 대한 이야기라는 점에서 남다르다. 전문 연구자집단이 아닌, 연구대상으로서 여공을 바라본 것이 아닌, 여성의, 여성에 의한, 여성을 위한 작업이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여기 기록된 노동자 구술 속의 향수(nostalgia)적 이야기들은 자본주의 사회질서로부터의 상징적 탈출에 대한 꿈, 삶의 기반을 파괴한 국가와 자본에 대한 울분, 사라져버린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 자신의 젊은 날에 대한 향수 등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김준, 2010)될 수 있으나, 그러한 이야기들이 표면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 온전히 그녀들이 들려주는 날것 그대로의 이야기를 그려내려 했으나, 그들의 언어를 미처 이해하지 못했거나 행간의 의미를 담아내지 못했을 수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용기있는 시민(광주여성 구술채록단)들의 첫 작업임을 높이 사야 한다.²⁷

빛고을 여공, 그들의 역사

잊고 살고 싶은 기억이 있을 수 있다. 잊으려고 해도 생생해지는 기억도 있을 것이다. 오늘 여기, 구술이야기는 잊고 싶은 기억일 수도 있지만, 몸이 기억하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이번 구술생애사 작업을 통해 광주 방직공장 여공들이 견뎌온 삶의 무게만큼 새로운 여성 주체로 거듭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 일일이 그들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아도 과거에서 현재로 불려오는 이 구술작업이 조금이라도 그 시대와 문화를 이해하고 일상을 보듬어 일과 가족으로부터 주목받지 못했던 하찮은 여성 노동이 지금이라도 숭고한 작업으로 인식되었으면 한다.

씨실과 날실이 엮여 천이 짜여지듯, 여기 여섯 명의 방직공장 여공이 보여주는 삶의 단면들이 하나 둘 모여 광주 여성사의 공백을 메워가는 단초가 되어 줄 것을 기대한다. 광주여성 구술채록단은 그동안 구술자가 자신의 고통을 객관화하도록 돕는 것은 물론 연대와 공감을 통해 그들을 지지하고 응원하며 작업에 임했다. 이제 이번 작업을 발판삼아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는 필요하다면 사회적으로 의제화하거나 정책적 개선 방안 등을 고민하고 여론을 환기시키는 것도 필요하다. 단순히 기억을 기록하는 것으로 그칠 게 아니라 기억 저편에 남겨진 또 다른 기억들까지 소환해내야 한다. 그들이 걸어온 노동의 역사를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말이다.

여기 소개된 여섯 명의 방직공장 노동자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를 살아왔고, 모두 인생의 주인공이다. 일과 가정을 양립해온 그들이 살아준 것만으로도 대단하며, 특히 방직공장의 노동경험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켰는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할 수 없는 여공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오롯이 보여준다 할 수 있겠다. 그들의 삶이 찬란하게 빛을 보도록 기록하고 담아내는 작업을 해준 광주여성 구술채록단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광주에서 이러한 활동이 계속되어 켜켜이 쌓이기를 희망한다. 우리의 어머니와 누이들의 숭고한 노동을 기억하며 광주의 뜨거운 역사가 되도록 기록은 멈추지 않아야 한다.

²⁷ 한국구술사연구소 윤택림 소장은 여성구술생애사가 여성들에게 삶의 주체성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지역민들이 구술작업을 하면서 스스로의 역사를 수집하고 역사쓰기 주체로 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훈련을 통해 구술채록작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매거진 한경, 2021.2.26., <https://magazine.hankyung.com/job-joy/article/202102267549d>).

참고 문헌

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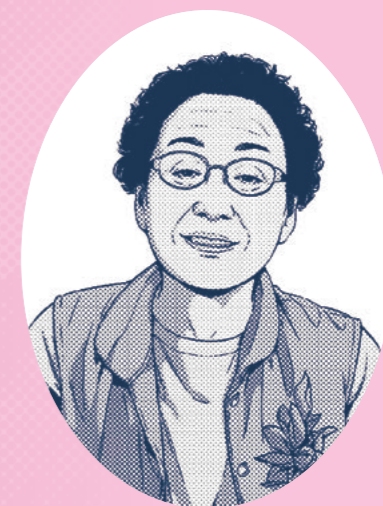
- 강이수(1992), 「1930년대 면방대기업 여성노동자의 상태에 대한 연구 : 노동과정과 노동통제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귀옥(2014), 『구술사연구: 방법과 실천』, 한울아카데미.
- 김 원(2006), 『여공 1970, 그녀들의 반역사』, 이매진.
- 김 준(2010), 「다시 못 올 것에 대하여 : 노동자 구술증언 속의 '향수' 또는 '과거의 낭만화」, 『사회와 역사』 제85집.
- 박상하(2013), 『한국기업성장 100년史』, 경영자료사.
- 박영옥(2007), 「현대건축에 나타난 '공간' 개념의 철학적 고찰」, 기초학문자료센터.
- 서선희(2001), 「광주 여성의 생산활동:195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말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과학회지』 4(2).
- 윤택림·함한희(2006), 『역사와 기록 연구를 위한 구술사 연구방법론』, 아르케.
- 윤택림(2020), 「개인적 서술에서 공공의 기억으로: 구술사와 공공역사」, 『구술사연구』 11(1).
- (2021), 「5.18 기억과 구술사 : 기억공동체에서 기록공동체로」, 『구술사연구』 12(2).
- 이희영(2008), 「1950년대 여성노동자와 '공장노동'의 사회적 의미 - 광주전남방직 구술사례를 중심으로」, 『산업노동연구』 제14집.
- 이임하(2004), 「여성, 전쟁을 넘어 일어서다 : 한국전쟁과 젠더」, 서해문집
- 정근식(1990), 「해방직후 전남지역의 노동운동」, 『사회와 역사』 23집.

단행본

- 『광주여성사』III (현대편), 광주여성가족재단, 2021.
- 『대농방직 여성 노동자의 삶』, 충북여성재단, 2020.
- 『사진으로 본 광주 백년사』, 광주시 시청각자료실(www.gjarchive.kr)
- 『일신방직 50년사』, 일신방직주식회사, 2001.
- 『임동, 방직공장』, 광주역사민속박물관, 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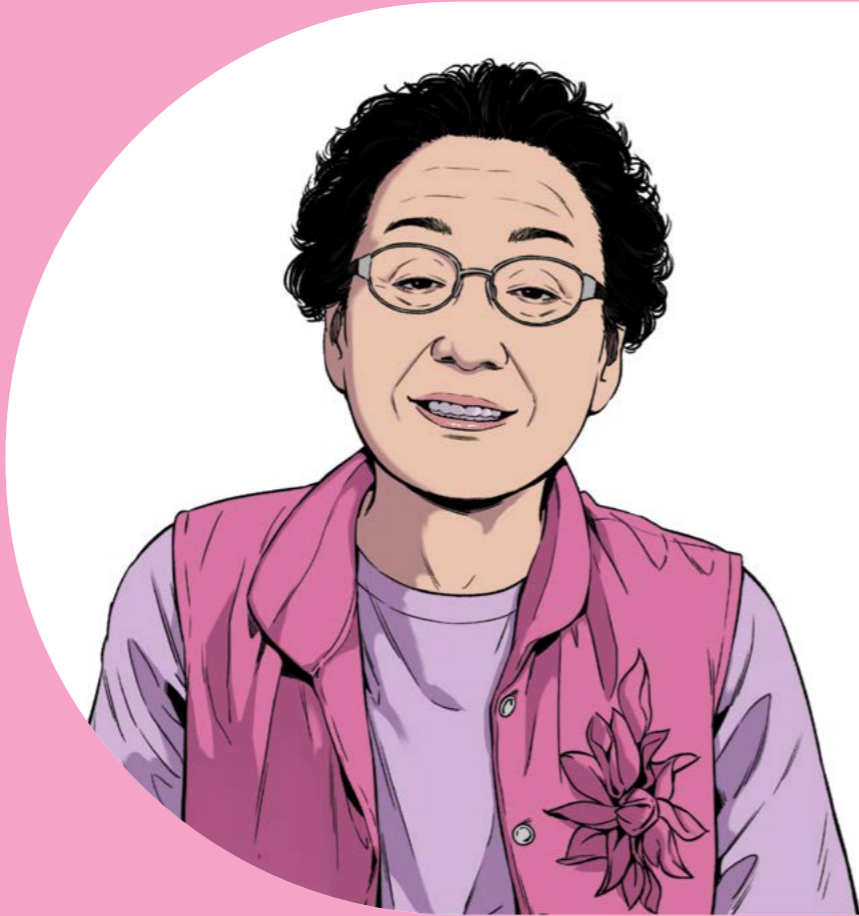
기타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노동공간을 통해 본 광주지역 여성의 노동 경험과 생활사: 1970-1990년대 전남방직 일신방직 로케트전기를 중심으로」, 2012.
(http://archive.history.go.kr/catalog/view.do?arrangement_cd=ARRANGEMENT-0-C&arrangement_subcode=ARRANGEMENT_CONTENTS-0-0)
- 일신방직(<http://www.ilshin.co.kr/front/kor/main.do>)
- 전방주식회사(<http://www.chonbang.co.kr/>)
- 국일방직(<http://www.kukilspin.com>)
- “[이슈추적] 근대산업유산 전남방직(上)”, 『전남매일』, 2019.4.18. (<http://m.jndn.com/article.php?aid=1555579981279338028>)
- “[이슈추적] 근대산업유산 전남방직(下)”, 『전남매일』, 2019.5.21. (<http://m.jndn.com/article.php?aid=1555579981279338028>)
- “[특집]한국 방직산업 몰락의 뒤안길”, 『주간경향』, 2017.8.14., (http://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708141755291&code=#c2b)



고인선 (가명)

삼교대 끝나면 녹초가 되어도
일하기 싫다는 생각보다
내 할일이다 했지



삼교대 끝나면 녹초가 되어도 일하기 싫다는 생각보다 내 할일이다 했지

생애 개요

1935년생인 고인선은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에서 3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다. 유복한 집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행복하게 어린 시절을 보냈다. 열네 살에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났다. 아들을 그토록 바라셨던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다. 그런 행복도 잠시, 열다섯 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친을 넘기신 어머니와 갓 육개월 된 남동생을 돌보아야 하는 가장이 되었다. 농사지을 땅이 있기는 했으나 여자 둘이 농사를 짓기는 버거웠다. 가족을 먹여 살리고 인부를 부리려면 돈이 필요했다.

열아홉 살 때, 전남방직에 들어가고 싶었으나 몇 번이나 헛걸음을 했다. 입사를 포기할 즈음, 6·25 때 집에 피란을 왔던 전남방직 병원장네 식모 아가씨를 통해 구인 소식을 접하고 달려가서 시험을 쳤다. 대학 합격자 명단처럼 회사 정문에 붙은 입사자 명단에 '고인선'이라는 이름이 딱 하니 쓰여 있었다. 어렵게 입사한 기쁨도 잠시, 방직회사 업무는 코피를 쏟을 만큼 무척 고된 일이었다. 그렇지만 오로지 가족을 위해 숨먼지와 씨름하며 열심히 일했다.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도 주말이면 어김없이 양동시장에 들러 인부들을 먹일 반찬거리를 사 들고 집으로 갔다.

힘든 회사 일을 끝내고 쉬 때면 친하게 지낸 동생이 찾아와 나란히 누워 놀던 시간은 지금도 미소를 자아낼 만큼 행복했다. 육개월 정도 양재학원에 등록하여 재봉을 배우기도 했다. 스물두 살 때, 사촌 형부의 소개로 만난 남자와 결혼했다. 결혼 후에도 기숙사에 살면서 주말부부 생활을 했다. 이년 후, 첫 아이를 가지고 만삭 때까지 교대근무를 하다가 퇴사했다. 이로써 전남방직과 인연이 끝난 줄 알았지만, 둘째 아이를 낳고 나서 생활고 때문에 재입사했다. 기혼이라는 이유로 정규직보다 훨씬 월급이 적은 임시직으로 채용되었으나 한 푼이 아쉬운 상황인지라 그저 감지덕지했다. 오히려 남편의 사업이 망하면서 자식들을 부양하고 교육시키며 겪었던 생활고가 전남방직 근무보다 더 힘들었다.

가족들은 "그렇게 몸 바쳐 뒷바라지해준 덕분에 살 수 있었다"고 고고를 인정해주며 고마워한다. 평생 자신을 거쳐간 인생의 파도에 성실하게 임했던 고인선은 여든일곱 나이에도 쉬지 않고 소일거리 삼아 일주일에 사흘은 노인 일자리로 일하며 노년을 보내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나만 생각을 하고

내 고향은 광주시 남구 봉선동에 고씨들이 모여 살던 어느 집성촌이여. 윗대 할아버지 때 부터 문중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고 하는 자작일촌²⁸. 형제는 삼남매인데 위로 언니가 있고 남동생이 하나 있어. 나 여덟 살 때인가 열한 살 차이 나는 언니가 시집 가불고, 한 열다섯 살 까지 행복하게 살았어. 언니가 시집가고 나서 나밖에 없으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나만 생각을 하고, 옷도 예쁘게 입혀서 아주, 학교 가면 옷 잘 입는다고 막 그러고, 우리 아버지는 내가 말하면 웃고 막 하니까, 그때가 제일 행복했었어. 그때만 해도 동네에서 국민학교를 많이 안 보냈어. 나는 늦은 나이지만 학교에 보내주셔서 광주대 근처 금당동에 있는 효덕국민 학교까지 한참 걸어 다녔어. 같은 학년이어도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고. 그때는 나이 차이가 막 많았어.

국민학교 삼학년 되던 열네 살 때 십이월에 늦둥이 남동생이 태어나서 그토록 아들을 바랐던 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 그런데 이듬해 유월에 동생이 아직 아기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아마도 아버지가 오래 사셨다면 학교를 더 다녔을랑가도 모르지. 그래가지고 울 엄니하고 나하고 동생을 키웠어.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동생은 어리지, 어머니는 이제 오십이 넘으셨지. 그때는 오십이 넘으면 징허게(매우) 늙은 사람으로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가장이 되어갔고 서이 식구가 산디.

열여섯 살 때 삼월에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유월에 6·25 전쟁이 났네. 6·25 당시 우리 집이 지대가 높았거든. 비행기가, 아조 갈매기 날아 오대끼 무등산 있는 디서 몇 대가 막 날아와갔고 광주 시내에다가 막 이렇게 내려가고 다 때려. 광주 시내 여기저기 폭격을 아조 다 때려 부렸어. 우리 동네는 어디로 피란 안 갔어. 처음에는 그냥 거가 있다가 우리 마을에서 가까운 근처 산으로 피란 가서 쪼까 있다가는, “아이고. 죽어도 집에 가 죽자” 하고 집으로 다시 왔어. 나중에 시골 쪽 얘기를 들은께, 구례나 화순 같은 데서는 낮에 경찰들이 성가시게 하고 밤에 인민군들이 와서 뭘 내놓으라 하고 그랬다드마. 우리 동네는 요 시내가 가까운께, 군인들이고, 인민군들이고 한나 성가시게 한 사람이 없어. 아, 근처 과수원에 인민군 부대가 있던 있었어. 어느 날은 밤에 인민군들이 와갔고 우리 동네 애들한테 노래를 갈쳐 준다고, 해서

보니까 여기 군인들하고 똑같더라고. 하나 무섭도 안 하고. 그러더니 어느 날은 군인(국군)들이 막 (공격)헌께는, (인민군들이) 도망갔던 갑이여. 그냥 시골 어디로 다 막 부대가 가불더라고. 으디로 간고 했더니. 막 그때 이제 철수한 거지. 그 인민군들이 북한까지 다 못 가고 어디서 다 죽었을 것이야. 지금 생각헌께, 똑같은 우리 한국인들인디. 6·25 때, 여 광주 시내 사람들이 우리 동네로 피난을 많이 왔어. 우리 집이 아무래도 시골집이라 사랑채도 있고 터가 넓었는데 어떤 부잣집이 우리 집으로 피란을 와서 작은 방에서 한 두어 달 살았어. 시내 사는 부자여서 그런가 전쟁 중에도 먹고 사는 것이 아주 그냥 지글지글지글 해 먹고 순 쌀밥만 해 먹고 그러고 살더라고.

몇번을 허탕을 치고 어렵사리 들어간 전남방직

어렸을 때는 우리 집이 일본 사람 소작농이었어. 그래갖고 이제 농사 지어갔고 한 절반 정도를 내야 돼. 옛날에는 우리 논이 두 마지기가 있었거든. 그 논이 비만 오면 논둑이 무너져서 자갈이 다 들어와 버려.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엄니가 그놈 소쿠리에다 자갈을 담아서 이리 저리 힘들게 퍼냈어. 이제 농사를 못 짓고 논을 내놔야. 누가 지으라고 내놓으면은 그 집에서 지어갔고 절반을 나눠 먹지. 그러면 그 절반에서 또 세를 내야 하는데 못 내. 여자만 있으니 농사를 못 지고 논²⁹을 사서 부려야 해. 그때는 농사만 지어갔고는 못살지. 돈이 있어야 농사도 지어. 그래갖고 돈 벌어서 농사지으려고 내가 방직회사에 들어갔다니께. 내가 돈을 벌어야 이제 살 수가 있으니까. 누가 말릴 사람이 없어. 그때는 남자들도 돈 벌 데가 별로 없었어. 그래도 여기 전남방직이 광주 시내에서는 월급이 제일로 쟈지.

우리 사촌 오빠가 전남방직 병원에서 진료 보는 원장을 알았던 가봐.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봐라” 하면서 소개를 해 주더라고. 그래갖고 가봤는데 처음에는 사람을 안 쓴다고. 사람 쓰면 연락해 준다고, 봉선동서 임동까지 걸어서 거까지 가면은 또 안 쓰고. 뭐 몇월 달에 쓴다고 그러면 또 오고 그러다가, 맨날 갔었지. 한 일년을 한두 달 있다가 또 가고. 이제 사람 쓴가 하고 또 가봤지. 근데 이제 한 번은 간께 6·25 전쟁 때 우리 집으로 피란 왔던 부잣집에서 식모를

28 自作一村. 한집안끼리 또는 뜻이 같은 사람끼리 모여 한 마을을 이룸.

29 일꾼. 품팔이.

하던 아가씨가 그 집 식모로 있더라고. 그걸 보니까 반가웠지. “방직회사에서 사람을 구한가 해서 와 봤어요” 하고. 그때도 허탕을 치고 몇번을 가도 모집을 안 한다고 해. 한창 보리타작을 할 때라 바쁘고 그러니까 “에이, 이제 안 가버려야지” 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식모 아가씨가 방직회사에서 직접 우리집까지 왔어. “방직회사에서 사람을 쓰니까 몇월 몇날 와라” 하고, 그래갖고 갔어. 면접시험이랑 필기시험을 봤는데 무슨 ‘세계 오대양을 써라’ 이런 문제였어. 그리고 체력시험도 보니까 내가 몸이 약해서 조금 걱정을 했거든. 어떻게 문제를 다 맞추서 합격했다고 정문애다 딱 내 이름 써놨더라고. 그때 제일 좋더라고. 내 나이 열아홉 살, 그때부터 일해서 돈 벌어다가 농사 밭천 대고 아버지 노릇을 하고 살았지. 그 일 안 했으면 어떻게 살았을랑가 모르지. 동네에서는 내가 “집안을 위해 일한다”고 다들 기특하게 생각해줬어.

솜과의 전쟁, 정방

방직회사는 정방, 권사, 직포라고 해서 여러 가지 공정이 있어. 내가 헨 디는 일본말로 세이보라고, 한국말로 정방³⁰이라 해. 앞에서 제일 처음에 솜을 터는 데, 혼타멘³¹이라고 해. 한참 솜을 터는 놈이 좀 굵게 나와. 그것을 감는 류멘³²이라고 있어, 그 다음이 렌조³³라고 솜을 펴줘. 그 솜에서 실을 빼는 단계가 정방이야. 나 막 들어갔을 때는 바로 일을 한 건 아니고 작업장 청소를 하고 다녔어. 방직회사도 인공 때 폭탄이 때려부러갔고 다 부서져서 옛날에 식당이었던 데다 불탄 기계를 놔갖고 했었어. 옛날 기계가 다 녹아버린 데다 식당이라 천정이 알아가지고 공기가 안 좋으니까 죠시³⁴가 안 좋아갖고 실이 막 범벅이 돼서 잘 떨어져. 그때 제일 힘들었지. 막 코피가 짹짹 나고 막 땀때기가 엄청 큰 놈이 나고. 겨울에도 더워. 그러니까 흠, 한 꺾딱짜리 옷 입고 해야지. 일도 힘든데 식당밥은 입에 안 맞아갖고 잘 안 먹

30 꼬임을 주어 실의 강력을 높이는 공정. 精紡. せいぼう.

31 혼타멘. 원면을 혼합하고 이물질을 제거하는 공정. 混打綿, こんだめん.

32 이물질을 제거하면서 캔에 담는 공정. 梳綿. りゅうめん.

33 섬유를 균일하게 늘려 펴는 공정. 練糸. れんじょう.

34 상태. 調子. ちょうし.

게 되더라고. 그래서 빼빼 말랐었어.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야 우리 집이 농사를 짓는다 그래 갖고 막 참았지. 그러다가 한 일년 있다가 새로 공장을 짓는다고 막 그러더라고. 식당에서 청소하고는, 신공장으로 가갖고는 이제 실 빼는 거 했지. 공기가 좋으니까 죠시도 좋지. 죠시가 좋으면 실이 안 떨어지고 그래.



고인선은 입사한 후 정방 공정에서 일했는데 조금만 잘못하면 조장이 휘파람을 불며 야단을 쳤다. 일러스트 송하용

우리 다음이 실을 감는 권사, 그 다음이 천을 짜는 직포야. 권사나 직포 공정은 그래도 편한데 우리 정방 일한 사람이 제일 되었어. 제일로 여름에 덥고 더러워. 처음에 막 들어가면 되어서(힘들어서) 아주 숨도 못 쉬어. 그래도 한번 거기 들어가면 거기서 끝장 지어야 돼. 기술

이 딱 그것이라 거기서 해야지. 다이³⁵를 보면서 실 빼는 것을 다이모찌라고 해. 한 사람이 담당하는 다이가 얼마나 기냐면, (아파트 바깥을 가리키며) 여기 엘리베이터에서 저쪽 끄트머리만큼 길어. 다이 사이 사이에서 일을 해. 이렇게 양쪽으로 해갖고 한 여덟 명이 실을 잊어 주고, 막 그런 일이었어. 위에 있는 솜에서 실을 빼서 아래쪽 다마³⁶에 실이 감아져. 다마가 몇 개나 됐는지는 너무 많아서 다 세지도 못해. 다이를 보면서 중간에 실이 떨어져.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막막 형클어져. 그럼 얼른얼른 꼬아갖고 잊어야 하는데, 여기저기 사방에서 실이 떨어지면 실 범벅이 되어 그냥 난리가 나버리지. 끊어진 걸 빨리 안 이으면 안에서 먼지가 지거든. 속으로 손을 넣어서 미영 가리³⁷가 안 붙게 빼줘야 해. 이제 여기 요놈이 싹 차면은 뺄 빼갖고, 이만한 통에다 담아갖고, 막 갖고 가버려. 그러면 그놈이 이제 또 여기서 새로 감아져. 실을 감은 다마를 빼놓으면 남자들이 실 실어다가 저기 권사로 갖다 주고, 권사에서 이제 이렇게 감아주면 이제 직포로, 베 짜는 데로 가져가. 남자들이 기계 같은 거 기름도 주고 고장 나면 고치는 거 했어. 조장이 가운데서 왔다 갔다 하면서 휘가락(휘파람)을 훑 불어갖고 어쩐다 저쩐다 미마와리³⁸를 해. 다른 공정은 실이 끊기면 딱 기계가 끊어버리는데 우리 한 데는 계속 돌아만 가니까 조금만 늦어도 실이 막막 형클어져. 그러면 조장이 휘가락을 불고 그러면 이 놈을 가서 잊어 주는 사람이 있어. 실이 떨어져갖고 실 범벅이 나오면 조장에게 지청구를 들어. 조장 언니한테 예쁨 받으려면 일을 잘해야 해. 조금만 잘못하면 휘가락 불어서 다오라 해갖고 주임이라는 사람한테, 그때는 오하나시³⁹라 했어. 군대처럼 이려고 서서 지청구 들어야 돼. 그때는 조장들이 얼마나 셧다고, 이때 제일 잘 나가던 조장 언니가 나중에 계모임에서 계장을 하고 있더라고.

처음 들어가면 여덟 명에서 실 빼는 것부터 시작해서 배가 차면 실 끊어진 거 이어주러 다니고 다마 빼는 것을 하다가 거기서 더 올라가면 조장을 해. 나는 다마 빼는 것까지 하다가 조장까지 못 올라가고 얘기 가져갖고 나왔어. 어떤 사람은, 나보다는 꽤 언니야. 그런데 자기

35 작업 기계. だい.

36 실 감는 도구. 玉. たま.

37 솜먼지

38 순찰. 見回り.

39 말쑤. お話. おはなし.

이름 쓸 줄도 몰라. 글씨는 몰라도 똑똑해갖고 일을 잘했나 봐. 그래갖고 배가 찬게 조장을 했어. 우리끼리 밤에 잠 오면 잠 깨게 웃기려고 종이에 '나는 바보요'라고 적어다가 조장 등거리에다 붙여. 아니면 조장이 왔다 갔다 하는 바닥에 써놔. 그래도 조장이 글씨를 모르니까 전혀 몰라. 만약 우리가 그런 줄 알았으면 가만 안 놔뒀을 거야. (웃음)

실이 끊어지면서 범벅이 되면 솜처럼 뭉쳐. 실을 이어주면서 나온 솜을 앞치마에다가 막 담고 해갖고는 한데 모아서 다시 실 있는 데 그놈 이용해. 내가 처음에 청소만 한 것처럼 실 빼는 사람들 말고 청소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 근무자는 거의 여자들이었어. 현장에 여자들이 한 열 명이면 남자는 두 명도 안 됐을 거야. 현장에는 얼마 없고 사무직 쪽에 더 많았어. 지금 생각하면 거그 다닌 남자들이 다른 데보다는 돈을 많이 벌고 안정적이라 좋았을 것 같은데, 왜 그런 디 다닌 사람하고 결혼하려고 안 했나 몰라. 회사에서 남자들에게 사택도 해줘 갖고 좋았을 건데.

근무는 삼교대 할 때 있고 이교대 할 때 있고 그러거든. 삼교대 하면 A반, B반, C반으로 나눠서 아침 일곱시부터 해갖고 오후 네시엔가 끝나. 또 오후 네시에 들어가면 밤 한시에 나오고, 한시에 들어가면 아침 일곱시에 나와. 삼교대 하면 그래도 할 만한데, 이교대를 하면 저녁 일곱시에 들어와가지고 새벽 한시쯤 밥을 먹고 일하다가 아침 일곱시에 나오면 겁나게 피곤했어. 쉬는 시간이 없어. 기계가 계속 돌아가. 중간에 밥 먹는 시간에만 잠깐 쉬고 하루 종일 일했어. 너무 졸리면 잠 안 오게 한다고 막 약 사 먹고 그랬어. 야간에 일할 때 어찌다가 전기가 딱 나가면 이때다 싶어서 그냥 땅바닥에 드러누워서 잠을 자. 낮에 잠 안 자고 일하려면 막 잠이 오니까. 그때는 마스크도 없었고, 직포 같은 데는 그러지 않는데, 우리 정방은 미영 가리를 막 먹으니까 폐결핵 걸린 사람도 있었어. 나는 그렇게 미영 가리를 많이 먹었어도 지금까지 죽지 않고 살았어. (웃음)

중방 큰애기 멋지다고 반하지 말라

근방 양동이나 발산 같은 가까운 데 사는 사람들은 통근하고 나처럼 집이 먼 사람들은 기숙사에서 살았어. 기숙사에서 같이 살았던 친구들은 보성이나 영광 같은 어디 먼 데서도 많이들 왔어. 통근하면은 이제 기숙사비랑 밥값이 안 빠지니까 월급이 더 많아.

기숙사 방마다 한 열 명 정도 살았어, 방에 들어가면 양쪽 벽에 물건이나 이불을 넣어 놓는 벽장이, 자기 벽장이 하나씩 있어. 다섯 명씩 이쪽저쪽으로 누워서 벽장 쪽으로 머리를 두고 자고 중간에 왔다 갔다 해. 실장 언니가 한가운데 가장 좋은 자리에서 자고, 신입이 막 들어오면 제일 구석에 걸레나 청소 도구 있는 데서 자. 그러다 빈자리가 나면 자리를 점점 옮겨 가. 실장 언니는 아주 엄하고 무서웠어.

아침에 일어나라고 방송 노래가 흘러나와. 그러면 일어나갖고 세수하고 밥 먹으러 가고. 기숙사는 공장에서 좀 멀었어. 걸어서 한 십분 정도 걸렸던 것 같아. 식당도 좀 멀었고. 기숙사에서 나와서 식당 가서 밥 먹고 공장 가려면 바빠. 기숙사에 있을 때는 세탁소에서 작업복과 모자를 빨아갖고 풀 뺏뺏하니 먹어서 다려. 그놈으로 동그라니 주름을 잡아야 모자가 예뻐. 누가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닌데, 다 그렇게 했어.

회사 안에는 기숙사 말고도 세탁소나 공부하는 도서관도 있고 양재학원도 있었는데, 나 양재학원 다녔어. 다른 사람은 그냥 어찌저찌 노는데 나는 남은 시간에 요만치도 안 놀고 그 시간에 그러고 오고 그랬다니까. 우리 방에서는 나 혼자만 다녔어. 그 양재학원은 한 육개월 다녀갔고 베에다가 자를 대고 그려갖고 미싱으로 박아서 곤색⁴⁰ 천으로 내 것 우아래 잠바, 스커트 해 입고 블라우스 해 입고 소풍도 갔어. 결혼해갖고도 우리 남편 것 와이셔츠도 해주고 우리 딸 것, 수 뇌갖고 베이비복 만들었어. 다른 사람들은 시간 나면 놀러 다니고 그랬는데 난 시간을 전혀 놀지를 안 하고. 일요일 날만 쉬었는데 외출할 일 있으면 기숙사 사감실에서 외출증을 써갖고 정문에 관리실 같은 곳에 비추고 나갔어. 밖에 안 나가면 일요일에 교회 가서 예배도 하고 그랬지. 그래서 나는 안 믿어도 예수 노래는 다 알고 그래.

우리 방에 식구 하나가 연애하느라고 맨날 외출 멍기고 나가드만, 군인하고 연애했더라고. 만나던 군인하고 결혼했는가 몰라. 개 말고는 다 암전했어. 시골에서 올라와갖고 순하고. 막 돈 쓰고 안 다녀. 일 끝나면 시집가면 한다고 수 놓고 그랬어.

‘종방 큰애기 멋지다고 반하지 말라’는 노래가 있었어. 옛날에는 방직회사를 종방⁴¹이라고 했거든. 그때는 한복만 입고 멍겼지. 돈을 버니까, 근방에 옷집이 없고 벵집에서 베를 팔아.

암전한 사람도 거기서 베를 떼다가 맡겨갖고 풀 먹여서 옷을 해 입으면 아주 옷 태가 짝짝 흘러. 종방에 다닌다 하면 막 연애한다고 안 좋게 생각했어. 누구는 거기 들어간다 헌께 “거기 들어가면 전부 연애한다”고 지 아버지가 절대 못 가게 해서 안 갔대. 지금 생각하면 들어가서 돈 벌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일은 힘들어도 한 번 들어오면 나간 사람은 별로 없었어. 짝 빼입고 밖에 나가면 자기들은 못 들어간게 우리들 좋아 봐라 했어. 그 당시는 시험도 치고 누구 소개로 왔다는 뺨도 있어야 돼. 나도 식모 도움으로 들어가서 돈 벌고 나중에 동네 사람 하나 넣어 주구 그랬어. 나 일헌 데는 아니고 초방이라고 다른 데.

그때는 기숙사 생활이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도 그때가 한창 젊을 때고 친구들과 여럿이 사는 게 재미졌어. 거기서 서로 언니 동생 삼아갖고 친하게 지낸 동생이 있었는데 성이 박가여. 나보다는 한 덧 살 차이 날 거여. 그 동생은 C반이고 나는 A반이었는데, 기숙사 방이 달랐어. 내가 야간근무를 하고 자고 일어나면 그 동생이 오전 근무를 하고 시간이 맞을 때 우리 방에 놀러 와. 그냥 내 팔을 베어 주고 옆에 누워서 같이 자고 외출도 나가고, 그런 것이 재미있었지. 여자들끼리라도 남녀 간에 연애한 놈같이, 꼭 동성연애하는 것 같이 서로 옷도 해주고 겁나게 생각하고 그랬어. 한 방 식구 중에 동갑짜리 친구랑도 친했고, 또 나이가 두 살 아랫가 어린 동생이 나를 언니로 생각해서 시기를 하더라고.(웃음) 그것(박가 동생)이 자리 오면은 막 시기를 해. 그래갖고 막 내 빨래도 해 주고. 그런 것이 재미있었지. 샘이 많았던 그 동생은 어디 가서 뭐 하고 살고 있는가 모르겠어. 박가 동생하고는 그 후로도 즈이 집도 가고 우리 집에도 가고 하면서 만나면 겁나게 재미있었어. 서로 어머니 옷도 해주고, 나 결혼 해갖고 살 때도 찾아와서 우리 남편에게 “형부, 형부” 하면서 찾아 다니더니만, 그 동생이 어디 공무원하고 결혼 해갖고 양동에서 삼시롱(살면서) 아기 낳고 나서도 우리 집에 멍기더라고. 그러던 어느 날, 방직회사 다닐 때부터 교회에 다녔던 그 동생이 교회 가자고 그러더라고. “나는 장남 며느리고 제사 지내야 해서 못 간다” 그랬더니 발길을 딱 끊어버려. 그래도 언니 동생 하면서 그렇게 오래 지냈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딱 끊어버리는구나. 만약에 그 동생이 이 책을 본다면 “오매, 우리 언니다” 할 것이여.

40 검색

41 일제 강점기 때 전남방직의 전신인 종연방직을 줄여서 부르는 말.



전남방직 기숙사에는 한 방당 열 명 정도의 여공들이 살았다. 고인선은 성이 박가이고 몇 살 차이나는 이와 언니 동생하며 지냈고 여자들끼리 연애하는 것처럼 서로 생각했다. 일러스트 송하용

맛난 거 사먹고 극장도 가보고 했으면 좋았을 걸

오래 돼서 월급은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어. 그때는 계좌가 어디 있어? 그냥 월급 타러 가면 장부에서 결근한 거 있나 확인하고 다 빼고 돈을 봉투에 담아서 줬어. 보너스도 없고 데모하고 그런 것도 없고, 우선 돈 버니까 고마워갖고 불만도 안 샀어. 불만 사 봤자 자기만 돈을 못 벌지. 내가 관두고 나온 뒤로 같이 일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데모를 해가지고 노조가 생겨갖고 보너스도 주고 퇴직금도 주고 그랬다더라고. 그때는 광주에 극장이 몇 군데 있었거든. 극장 좋아하는 사람들은 휴일이면 광주극장, 동방극장 같은 데 많이 갔는데 나는 안 다녔

어. 영화 보거나 옷 해 입고 짝 꾸미고 외출 나가서 산동교나 비아 같은 데로 놀러도 가고 그러면, 나는 놀러도 안 가고 월급 받으면 다른 데 안 쓰고 우리 가족들 먹고살고. 쉬는 날이면 농사지을 놈 먹일 반찬, 시장 봐갖고 집에 가고 그랬다고. 돈은 다 엄니 주고. 열아홉 살에 회사 들어가서 스물두 살에 결혼하기 전까지 그렇게 했어. 요새 아가씨들도 그렇게 살까?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불쌍해. 맛난 것도 사 먹고 극장도 가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저 집에 가서 밥만 먹으면 될 줄 알고, 생전 군것질할 생각도 없었어.

보너스는 없었지만 월급 말고도 매달 광목을 열 마씩 줬어. (양팔을 펼쳐 보이며) 한 마가 이만씩 할 거여. (누르스름한 물건을 가리키며) 이게, 광목 색깔이 요렇게 생겼지. 그 당시 세탁소가 겁나게 크게, 빨래도 하고 삶기도 하고 다린 것도 있고 다 있었어. 거기 가서 광목 이놈을 삶아갖고 둘이서 짝 펴서 널어서 햇볕에다 말려서 바래. 물 문히고 바래고 삶아갖고 바래고, 그러면 하얗게 깨끗해져. 그때는 옷을 파는 가게가 없을 때라 광목으로 옷을 해 입으면 좋았어. 하얗게 색을 내서 저고리나 치마 해 입고 친척들 옷도 해주고. 보신⁴²을 신고 땡긴끼, 시집가면 열 켈레 스무 켈레씩 해갖고 가거든. 그리고 시누가 시집가면 쓰라고 주기도 하고. 작업복을 위에 것은 회사에서 줬는가 모르겠네. 청바지 색깔 같은 거. 아래는 우리들이 몸빼⁴³로 해 입었어. 월급날 받은 광목에 검정 물을 들여갖고, 허리에 고무줄 넣어갖고 평평했어.

방직회사 다니면서 번 돈으로 동생 명의로 땅을 사서 내가 결혼하고 나서도 걱정 없이 살게 해놨어. “누님이 나 얘기 때부터 키워 줬으니까”라고 동생이 지금도 나를 아주 분명히 생각해. 얼마 전에도 잠깐 들러서 용돈을 쥐어주고 가더라고.

장남은 피하고 싶었는데

그때는 다들 가난해서 집에 돈 벌어 식구들 먹여 살리려고 결혼을 빨리 안 했어. 우리집 아랫집서 사촌 언니가 살았거든. 스물두 살 때 사촌 형부가 어디 회사를 다녔제. “내가 우리 사

⁴² ‘버선’의 방언

⁴³ 통이 넓고 발목을 묶게 된 일본식 옷으로 여자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

촌 처제 중매한다” 해갖고 같은 회사 다니던 남편을 소개해줬어. 나는 처음에 우리 집을 더 도와줘야 한다고, 결혼 안 한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그 사람과 결혼했어. (웃음) 사실 그때 내 생각이, 장남 며느리 자리는 안 가고 싶고 너무 강한 사람한테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결혼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해지대. 안 하고 싶어도 해지대. (웃음)

남편은 장남인 데다 고집이 얼마나 센가 내가 못 이겨. 그래도 결혼하고 나서는 ‘장남은 다 그런다’ 하고 내가 다 할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도 싫은 생각이 없었어. 남편은 6·25 때 가서 싸운 사람이야. 제주도에서 훈련하는데 급식 배달하다 배가 고파갓고 돼지고기 동동 뜬 놈, 비계 한 덩어리 주서 먹었대. 그래갖고 밥을 안 줘볼고 별주고 그래가지고 봄동 뜯어 먹고 그랬다대. 그래갖고 강원도에 가서 싸웠지. 그래서 참전 유공자라고 돌아가시고 나서 전라북도 임실에 묘지가 있어.

결혼해갖고도 나는 기숙사 생활을 했어. 우리 집 양반은 우리 집에서 아직 어린 처남하고 장모하고 같이 살았어. 나 대신 울 어머니가 사우(사위) 밥을 해주고 그러고 살았어. 내가 돈 벌어도 하나도 안 쓰고 남편한테 바치고 필요할 때 타서 썼어. 착실하고 깨끗하고 그러니까 믿고 다 맡겨 버렸어. 스물두 살에 결혼해서 스물네 살까지 얘기가 없더라고. 스물네 살 때 얘기가 생겼어. 그래갖고 뭘 못 먹어. 자꾸 토하고 그랬어. 얘기 배갖고도 그대로 다녔어. 만삭 때까지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교대근무를 하니라 겁나게 힘들었지. 그러다가 이제 아기를 낳아야 되니까 친정으로 갔어. 열흘 동안 진통을 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얘기를 받아줬지. 그래갖고 그놈 얘기 키우고, 둘째 배갖고 낳았어.

어디 별 데가 없으니 다시 방직공장으로

남편이 돈을 벌어야 하는데 직업이 없으니까 힘들어. 그래갖고 얘기 둘 낳고 한 이년 있다가 내가 방직회사 임시직으로 다시 일하러 들어갔어. 원래 전남방직 사장이 한 명은 이북 사람이거든, 김형남이라고. 근데 뒤에 얘기 낳고 간게 전남방직하고 일신방직으로 갈라져 버렸더라고. 전남방직에서 임시직 모집한다고 해서 경험자로 들어갔어.

갔더니 그때 같이 다마 빼는 일하던 친구들이 높아져서 전남방직 쪽에 가서 막 조장이라고 휘가락 불고 다니더라고. 내가 그 밑에서 일했지. 임시는 월급이 푹 떨어져 버려. 본 거시

기(정규직)로 다니면 백만 원 나온다 하면 임시는 한 칠십만이나 됐을까. 결혼 해갖고 나오면 인기가 없어. 그래도 사회에서는 그 돈을 못 벌어. 어디 가서 별 데가 없어. 그놈이라도 벌어야 하니까, 식구가 먹고 살아야 하니까. 기숙사에 안 사니까 밥값은 빠지지 않았어. 그때 우리 친정 어머니 고생 많이 시켰다. 어머니가 젓떼기 얘기 둘 그놈 키워주고, 나 밥해 주고 사우 밥해 주고.

우리 집이 옛날 남구청 바로 그 옆이었어. 옛날에 남구청이면 철뚝 넘어서 안 동네로 쪽 들어가거든. 거기서 임동까지 걸어서 다녔어. 아침 일곱시 출근하려면 새벽 네시에 교회 종소리 나면 깨갖고, 일어나갖고 우리 어머니가 밥해 주면 다섯시에는 나가야 돼. 아주 그냥, 진짜 한하고(계속) 가도 가도 끝이 안 나와. 그때는 버스도 없었잖아. 학동에서 충장로 어디로 가는 거 하나 있었을 거야. 그러니까 임동에서 나가서 양동시장 쪽으로 올라가면 공원으로 지나서 대성국민학교 지나서 까치고개를 지나서 백운동 넘어가갖고 철뚝 넘어가갖고 그 동네로 간디 얼마나 멀겠어. 힘들어갖고 사람 없는 디서 울고 싶었어. 그래갖고 한 네시까지 일을 삼교대 일하고 끝나면, 그때 이제 우리 집 가면 아주 녹초가 돼, 아주 죽기 직전이야. 아무리 쫓더라도 대성국민학교 넘어가면 막 포도시 걸어가. 어쩔 때는 눈이 펄펄 내려갖고 다리가 푹푹 빠질 때도 있었어. 그래도 하나도 일하기 싫단 생각은 없었어. 그것이 내 할 일이라고 그러고 했지. 그저 일을 시켜주는 게 감사해서 불평할 줄도 몰랐어. 갈라지고 나서는 임시로 다닌게는, 일 끝나면 집에 가기 바쁘게 두 회사끼리 어쩐가 아무것도 몰랐어. 기숙사에 있고 해야 뭐가 어찌고 돌아간 지 알지.

그러다가 광천동에 집을 얻어갖고 이사갔지. 그리 이사 가갖고도 거기서 다녔어. 요즘 같으면 아들이 며느리랑 산디 내 몸 하나 가서 얹혀산다고 하면 며느리가 겁나게 부담 느끼지. 근데 임시로 들어가서 월급도 적고 한디, 시골에서 시부모님 시동생 둘 해서 네 식구가 올라와서 합해 브렸어. 그런게 얼마나 뭇이 많이 들어간가 생활이 곤란해. 내 월급 죄까 받는 여자 일이 얼마나 돈이 많겠어? 야간근무 때는 집안일 하다가 잠을 안 자고 출근을 하면 막 살을 잡아 뜯어도 잠이 와. 그러다 날이 새고 저기 창문에 하늘이 보이면 신기하게 잠이 딱 화딱 깨. (웃음) 매일 먼 길을 왔다 갔다 하려니 차라리 기숙사 살 때가 좋았어.

일을 다니다가 셋째가 생겼어. 첫째 때처럼 얘기 배갖고 삼교대 할 때 퇴근하고 새벽 한시에 집에 오면 식구들이 자느라고 문을 열른 안 끌려줘서 서러울 때도 있고. 그래도 잠 죄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리쌀로 밥해야지. 식구들 먹여야 하니까. 일하다가 아기가 나

오려고 허거니(허영계) 바람이 있잖아, 우리 때는 바람이라고 했는데, 양수가 터졌어. 그래서 회사를 그만두고 아기 낳으러 집에 갔어. 그때는 시어머니가 와 계실 때라 시어머니가 아기를 받아줬지.



임신한 몸으로 삼교대를 마치고 새벽 한시에 퇴근하고 돌아올 때 잠자던 가족들이 알아채지 못해 문을 열어주지 않아 서러울 때도 있었다.
일러스트 송하용

그 후, 방직공장 힘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니었고

셋째 낳고 식구들이 많으니까 수발해야지. 자식들과 시동생 둘에다 시골 살던 시댁 친척들까지 우리 집에서 학교를 다녀서 다 챙기느라 아침마다 도시락을 여덟 개씩 짰어. 많은 식구들 수발하면서 시부모님 모시고 살다가 두 분 다 돌아가시고, 우리 애기들 커 버리니까 정신없이 살았어. 방직회사를 관두고 나서는 식당일을 오래 했어. 건물 지는 디, 그런 디 밥을

다 해주고. 지금은 생수도 나오고 하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어서 집에서 물을 다 끓여갖고 얼음 넣고 식혀갖고.

나 유문동서 오래 살았어, 한 십팔년. 광주일고 앞에 교보빌딩이 아직 없었을 때. 살던 데가 수창국민학교 건너편에 카도⁴⁴였거든. 그때도 식당 할 때여. 5·18이 나갔고, 군인들이 막 우둘투둘 총을 쏘 대서 무서웠어. 그래서 본계는 군인들이 군인 차 트럭 큰 놈을 몰고 오더니 청년들 학생들 지나가면 그냥 막, 이런 막대기로 그냥 두드라 패. 그래서 쓰러지면 차에다 싣고 가고. 우리 집 옆에가 학원도 있었거든. 거기 옥상에 올라가서 구경한게, 이쪽은 유문동이고 저쪽은 북동이거든. 도망가는 사람을 막 쫓아가서 그놈 때려잡아갖고 와서 신고 가고, 그때 으이 징했어. 탁탁 때려갖고 그냥 탁 실어가 불고, 상무대 어디로 신고 가 불고. 열 며칠인가 문을 닫고 완전히 방송이고 전화고 싹 끊어져 브렸어. 뭐가 어떻게 돌아간 지도 모르고, 그랬네.

금남로에는 차도 안 다니고 사람도 안 다닌게 누가 어쩔 수가 없었어. 나중에 어쩐다 해갖고 군인들을 어디로 쫓아내 불고, 여기 시민들이 차를 타고 막대기를 들고 찍음서 뭘 노래를 부르면서 막 그러고 땡겼어. 그러고 땡기다가 어디 우에서 총을 쏘면 죽고 그랬다고 해. 그때는 전부 나가면 죽은게 방에만 있었어. 옆집에다 방을 얻어놓고 우리 애기들 있으라 하고 밥을 해서 담 너머로 넘겨줬어. “어디 나가면 인자 총 맞아 죽고 막 근게 나가지 마라”고 신신 당부했거든. 그런데 알고 보니 이 녀석들이 갖다 주는 밥 묵고 어디 도청 앞에 막 땡기고 구경하고 그랬더라고. 어느 날 우리 아들이 여가(등을 가리키며) 최루탄 이런 거에 타져갖고 왔더라고. “으미, 너 데모 하지 마라” 그런게 “우리 친구들은 다 감옥 갔어라”그러대. 나중에 서울 간게 광주 사람들은 전부 빨갱이라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한 사십 살, 이제 그 뒤에 돈도 벌어서 집도 짓고 했는데, 또 인제 마흔아홉 될 때 우리 집 양반이 사업한다 해갖고 이제 망해볼고는, 대학생이 셋에다 고등학생 하나인데, 집도 없이 만들어 놓고는 빚만 지게 해놨어. 그때부터 육십 살까지 십 년 동안을 빚 갚아가면서 애기들 대학 다 졸업시키고. 그때 제일 고생했네, 오십 대에. 이때 고생한 거에 비하면 방직회사 힘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 자식들이 결혼하는데 돈도 하나도 못 대주고 집 하나도 못

44 모퉁이. 角.

사주고. 그래도 애기들이 다 착해. 착실하고 대학교 다 나오고, 지가 벌어서 대학원 나온 놈도 있고 회사 다니고 성공해서 잘 살고. 지금도 꼬박꼬박 용돈을 보내주고 있어. 미국을 세 번 갔다 왔어. 내 칠순 때 가고 남편 칠순 때 가고 손자 여울(혼인시킴) 때 가고. 뉴욕에 백이십층짜리 쌍둥이 빌딩이 있었거든. 거기 백이십층까지 올라갔어. 남편이 생전에 이렇게 다 모아 놓고, “니기 엄마가 있어서 할아버지 할머니 작은아버지 다 모시고, 느그들 다 대학 갈치고 했다. 느그 어머니 아니었으면 못 했다”라면서 나를 막 겁나게 세워줬거든. (웃음)

방직회사 동료들과 계모임을 꾸리고

빛을 다 갠고 육십 살에 지금 사는 곳으로 이사를 왔는데 누구를, 방직회사 사람을 하나 만났어. “오매, 어째 여가 있냐?” 그래갖고 나는 여기서 산다 어쩐다 얘기를 하다가 그 사람이 “우리 계 한다” 그래서 나도 했지. 그래서 갔더니 정방 식구들이었어. 처녀 때 친구들이니까 친했지. 아유, 여기서 사냐고 막 반갑다 하고. 여기 와서도 친해갖고 친정 식구들 만난 것 같아. 형제간 같이 그렇고.

처음에 계원이 정방 식구들 열여섯 명이었는데 이십일이 겹날이었어. 한 달에 한 번씩 이십일 날 모여갖고 꼭 식당에 가서 밥 먹고. 겹돈 만 원 내고 식당에 가서 한 육천 원짜리 밥을 사 먹고 남으면 그놈 모아갖고 많이 모이면 나눠 쓰고 그랬어. 만나면 옛날얘기도 하고 자기 식구들, 자식 얘기도 하고. 옛날에 방직회사 다닐 때 조장하면서 열렬하게 휘가락을 불고 다니던 계장 언니도 진즉 죽어 불고, 어디 요양원에 가 있는 사람, 아파갖고 빠지고. 하나씩 가더니 이제는 다섯 명이 남았어. 다섯 명이서, 계 깨지 말고 우리 중에 하나 남도록 계를 하자고 그랬는데, 작년에 코로나 땀시 식당에 모이기가 힘들었어. 그래갖고 인제 계 깨붓당께. 다섯 명 중에 하나는 시내 살고 하나는 용봉동 살고 이 동네 식구들이 셋이 있어. 근데 둘이 아파 가지고 잘 못 걸어 다녀. 한 사람은 치매가 왔는가 집에만 있고 누구는 요양병원 가 있고. 그러니까 모임 수가 없지.

계모임 회원 중에 ○○이 부지런하고 야물어. 그 사람은 방직회사에 오래 다녀갖고 아마도 조장도 했을 거야. 가가 우리 계에서 총무를 했어. 그래갖고 작년엔가, 이제 모이자고 그러고 있다가 코로나가 와버리니까 못 모였어. 이 동네 사는 셋이 그동안 가가 총무 하느라고 애

썼으니께 “우리 얼마씩 주자” 해갖고, 하나가 만 원 주고 또 하나가 이만 원 주고 내가 이만 원 해서 봉투에다가 담아갖고. 봉투에다 가 이름하고, 몇월 몇일 날짜까지 쓰고, 오만 원 넣어 갖고 내 가방에 넣어 놓은 지 지금 한 일 년 되었나, 갖고 다닌당께. 한번 만나자 해도 “답에 만나자고”, “쪼까 코로나 가면 만나자고” 하면서 못 만나. 내 가방에다 갖고 땡기니까 무거워 죽겠어. 개한테 “얼른 돈 가져가라” 그래야 쓰겠어. 총무하고 세 명 더 있는데 그것들이 겁나게 오래 다녔어. 나하고 제일로 친한 사람 하나 있어. 지금도 전화는 주일마다 넣는데, 만나는지는 오래 되었어. 근데 귀가 짱 먹었더라고. 나도 이제 귀가 먹었당께. 다리는 성가시게 했어도 귀는 성가시게도 안 했는데 귀가 먹었나 몰라.



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날의 모습을 그린 그림을 들여다보고 있는 고인선

방직공장에 한번 가고 싶어

나는 항상 부모님께 감사해. 나 아픈 데가 여기저기 많아도 이렇게 걸어땡기게 해줘서. 아

버지 엄니가 건강하게 낳아 준 덕이지.

이제 늙어버려서 그런가 방직공장 구경 한번 가고 싶기도 하더라고. 요새 애기들은 들어갈 회사 많으니까 그런 일 안 헐라 그럴 거여. 그때는 가난해갖고 없어 갖고잉. 어디 들어갈 데도 없고. 생전 뭐 어디 가서 데모하고 불만 사갖고 말을 할 데가 없었어. 그냥 열심히만 살면 된다고 그랬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 식구가 먹고살 수 있었어. 요즘 뭐 해달라, 데모하는 거 보고 내가 “꼴 보기 싫다” 하면, 우리 아들은 “그런 것을 해야 한다” 해. (웃음) 한 육십까지는 일이 무서운지를 모르고 살았어. 근데 지금은 무섭지, 조금만 서 있어도 아프고. 그래도 지금도 나는 몸을 그냥 놀리는 것이 싫어서 일주일에 세 번씩 주민센터 노인 일자리에서 일하네. 오늘도 오전에 일하고 왔어.

만약에 새로 태어나면 애기 많이 안 나고 자와. 시집도 안 갈라면 안 가고 자퍼. (웃음) 다시 스무 살이 된다면 대학교 다니고 공부하고 싶어. 국민학교 나왔은께 한글은 배웠지. 근데 중학교에 가서 영어나 한문 그런 거 배우고 자운디, 그럴 수가 없었어. 그때 세상 사는 것은 사는 것이 아니었어. 우리 딸이 공부를 여간 잘했어. 육백명 중에 전교 일등이었어. 나는 딸이 보기만 해도 징허니 예쁘고 그랬는디, 시어머니는 딸이 중학교 간다니까 “먼 놈의 가시내, 일이나 갈쳐서 시집보내지” 중학교 보낸다고 안 좋게 생각했어. 그래도 나는 일부러 대학까지 가르쳤어. 서울로 가서 대학 나와서 서울 머시때하고 결혼했어. 처음에는 내가 사우를 마닥했어. 결혼하지 마라 했어. “장남이고, 가난하담서. 엄마도 고생했는디, 너도 또 장남한테 가야? 가지 마야” 그래도 결혼 해가꼬 사우가 착실해서 잘 살아.

우리 딸, 지기 할머니가 중학교 가는 꼴도 안 보려고 했는데 나는 우리 손녀들에게 대학교 가라고 해. 뭐든지 배운 것이 안 배운 것보다 나은께. 뭣이든지 시간만 있으면 배워야 돼. 우리 손녀 하나가 애인이 있어. “결혼하면 애기는 몇 낳을래?” 물어 본께 애기 안 낳는다고 그래. “애기 안 낳으면 왜 결혼해야?” 했더니 그냥 산다고 해. 금께 내가 즈그 아빠한테 “참, 잘 생각했다. 요러고 고생하고 난께, 결혼한 거, 시집 식구 모신 거, 아무 거시기가 없어야” 그랬어. 요새 애기들이 잘 생각했어. 결혼 해갖고 가정을 이루고 애기 낳아서 자식 키우는 것이 재미는 있어. 그래도 요새같이 좋은 세상, 하고 싶은 것 하면서 자유롭게 살아야지.

나 고생하고 했어도 우리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들, 다 건강하고 예쁘고, 대학교 나오고 그런 것이 제일 오지지. 이제 다 살고 보니까 건강이 최고고, 부부간에 서로 뜻 맞게 살고, 그 거 제일 행복한 거지, 다른 거 필요 없어.



2021년 12월 광주여성구술채록단과 공장을 찾아 숲길을 거닐며 오랜기억을 떠올리는 고인선(가운데 모자쓴 이) 사진 임미숙

생애연보

- 1935년(1세) 광주 남구 봉선동에서 1남 2녀 중 둘째로 출생
- 1948년(14세) 12월 남동생 출생
- 1949년(15세) 6월 아버지 별세
- 1950년(16세) 3월 효덕국민학교 졸업. 6월 6·25 발발
- 1953년(19세) 전남방직 입사. 정방 공정 배정. 폭격 피해로 공장 옛 식당 건물에 기계를 놓고 작업. 기숙사 생활
- 1956년(22세) 장남인 남편을 만나 결혼. 기숙사 살면서 주말 부부 생활
- 1959년(25세) 출산 임박 때까지 교대 근무하다가 퇴사. 첫 아이 출산
- 1961년(27세) 둘째 아이 출산. 전남방직 임시직으로 재입사
- 1962년(28세) 셋째 아이 임신하고 출산 임박 때까지 교대근무
- 1964년(30세) 3년 정도 근무 후 퇴사
- 1965년(31세) 넷째 아이 출산. 이후 식당 일 시작
- 1970년대(40대) 주택 장만
- 1980년(46세) 5월. 광주일고 근처 유문동 식당에서 일하다가 5·18 경험
- 1983년(49세) 남편의 사업 실패. 이후 10년 정도 빚을 갚으며 생활고 겪음
- 1994년(60세) 오치동으로 이사 후 계모임 참여
초기 인원 정방 출신 16명
- 2020년(86세) 코로나19 바이러스 유행으로 인해 계모임 중단
마지막 계원 5명
- 2021년(현재) 월, 수, 금 오전에 노인 일자리 일 다니고 있음



노미래

많이 배우들 못했어도 공장에서는
어깨에 힘 좀 주고 일했지



많이 배우들 못했어도 공장에서는 어깨에 힘 좀 주고 일했지

생애 개요

노미례님은 일제강점기인 1938년 함평에서 태어났다. 세상 물정 모르던 초등학교 일학년 때 광복을 맞이했고 “도시에서 공부해야 한다”는 아버지 손을 잡고 인천으로 이사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들과 함께 다복하게 지내던 인천 생활은 6·25 전쟁으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고 끝났다. 열네살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되어, 전쟁을 피해 고향으로 험난한 피란길을 나섰다.

고향에서 일가친척에 의탁하며 지내다가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광주로 올라왔다. 같이 올라온 친구들과 함께 여러 번 도전한 끝에 방직공장에 입사하였다. 홀어머니와 어린 세 동생을 건사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감 때문에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일에만 매진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공장에서 취미도 낭만도 챙길 겨를도 없이 뛰었다. 그 덕분에, 순식간에 조장이 되었다.

그러나 스물다섯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다. 면회하러 왔다가 혼기도 놓치고 일만 하는 딸을 보고 쓸쓸히 돌아서는 어머니의 뒷모습에 결혼을 결심하였다. 지인의 소개로 결혼을 하였으나 결혼 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방직공장에서 일했고 급여는 모두 친정으로 보냈다. ‘동생들이 독립하기 전까지 일을 계속하겠다’는 결혼 조건 덕분인지 시댁에서는 탐탁해하지 않았으나 방해하지는 않았다. 공장을 다니며 두 아이를 낳았고, 퇴직한 후 다시 임시직으로 공장에 다니면서 셋째를 낳았다. 막내 넷째만 일에서 벗어나 출산하였다. 넉넉지 못한 형편이라 자녀 넷 모두 대학까지 가르치지 못했다. ‘그때 빛을 내서라도 공부를 더 시킬 것을…….’ 하는 후회와 미안함이 가슴 한편에 그득하다.

학교 대신 산업현장에서 인생의 참 의미와 삶의 지혜를 배웠고, 몸으로 경험하고 터득한 인생 공부와 마음공부가 참 스승이었다. 젊은 시절 고생스러웠던 방직공장 생활이 슬프지도 부끄럽지도 않다. 오히려 삶의 터전이자 가족을 먹여 살린 젖줄이었던 방직공장 추억은 훈장이다. “나는 배운 것이 없어 아는 게 없다”는 나직한 말에는 치열했던 어린 여성 노동자의 삶과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가족을 지켜냈다는 자부심이 녹아있다.

여든다섯인 지금은 새벽 운동을 나가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젊은 시절보다 훨씬 활기차고 건강한 마음으로 생활한다.

선머슴처럼 달랑거린다고 지청구 들던 아이

함평군 학교면 복천리는 우리 노씨 일가가 모여 사는 집성촌인데 나는 그곳에서 일제시대 1938년 2월 2일 태어났제. 어릴 적에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고, 호적에 올린 이름이 따로 있다고 허는데, 다들 나를 경희라고 불렀제. 우리 가족은 부모님과 오빠, 나 밑으로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이렇게 3남 2녀 다복헌 가정이었제. 궁계, 전쟁이 나기 전에 말여, 그때꺼정 아무 걱정도 없이 살았어.

해방 전 고향에서 살 때는 농사도 짓고 그랬응께 살만했지. 나 어려서 기억하는 우리 부모님은 아주 엄격한 분이었어. 우리 친정아버지는 그야말로 양반이셨지. 나는 남들처럼 아버지 앞에 함부로 걸어 댕기도 못해 보고, ‘아빠’하고 어리광 한 번 제대로 못하고 컸어. 그랑께 아버지하고는 거리가 좀 멀고 그 품에 한 번도 안겨 본 역사도 없구만. 우리 어머니도 매한가지였어. 항상 조심만하고 어머니 앞에서 깔깔대고 웃고 요래보들 못하고 컸응께. 남들처럼 ‘엄니’ 요로케도 못 부르게 하셨당께, 버릇없어진다고. 우리 어릴 때는 양반 그런 것을 엄청 따지고 살았을 때 아닌가.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나한테 귀에 못이 백히게 허신 말씀이 “너는 선머슴애마냥 바지만 걸치고 달랑거리고 댕긴다”고 늘 지청구⁴⁵를 하셨지. 그랑께 우리 어머니는 생전에 나 듣고 배우라고, 당신 부모님을 집에서는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하시지만, 밖에서 말씀허실 적에는 ‘우리 안어르신, 밖어르신’ 이렇코롬 말씀허셨당께.

음식 하는 것이고 뭐 그런 것도 자주 말씀해도 나는 그것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 남아처럼 밖으로만 나돌고 들판 개만이로(개처럼) 뛰어 다녔응께. 그랑께 나하고 우리 어머니하고는 통 안 맞았제. 내가 워낙 건덕구리라 그 시대를 심든(힘든) 줄도 모르고 억척으로 살았응께. 근디 내가 ‘만약 선머슴처럼 그리 안 험터라면 우리 가족은 또 어찌 되었을까’ 허는 생각이 들기도 허. 지금 생각허도 내 나이 열서너 살에 홀어머니와 동생 셋을 책임지는 일은 버거운 일이었제. 근디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 줄도 모르고 해냈지. 지금 생각해 봐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닌디. 그때는 내 식구들 입에 풀칠허는 것이 우선이었당께.

일본인 담임선생 이름과 구구단만 기억나고

나는 학교를 제대로 다 못 댕겼제. 함평서 여덟 살에 국민학교 입학하고, 학교까지 십리 길을 산길로 언덕길로 막 올라 댕겼던 것이 생각나. 왜정 때는 촌에서 집 뒤에다 굴도 파고 그랬잖어, 왜놈들 잡으러 오면 숨는다고. 그래 우리 집도 굴 파고 그랬는디 해방이 되고 인천으로 바로 이사를 갔지. 당시 우리 아버지가 서울로 인천으로 댕김서 사업을 허셨는디, 그때 세상 물정을 쪼까 안께 도시로 간 것이여. “자식은 도시에서 갈쳐야 된다” 해가꼬. 해방되고 곧 바로 인천으로 이사를 갔제.

함평서 국민학교 일학년 댕기다가 해방되고, 인자 거그로 갔는디, 인천 가서 언능 전학이 안 되더라고. 지금 댕기로 전화로 전학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여. 한참을 지나서야 전학이 되었지. 그레갓고 내가 인천서 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이 기억나는 것은 우리 담임선생 이름하고 구구단 외운 거야. 그때 우리 담임선생 이름이 유나이스야, 선생 이름이. 그란디 고것을 어찌 그리 잊어볼도 않고 머릿속에 야무지게 기억허나면, 그때 교실서 공부를 허고 있는디 머리 옥에서(위에서) 사람 소리가 나. “유나이스 선생 교무실로 오라” 그렁코롬 말혀, 깜짝 놀랐지. 그때는 ‘오메, 저것이 뭇이당가’ 했제. 지금 말로 치면 고것이 스피커야 스피커. 그 당시 스피커가 뭇인지도 모르는 강촌에서 올라온 촌놈이라 고것을 어찌 알겼어? 하하하. 그때는 저것이 ‘우리 선생 이름을 어찌코롬 안가’, 참말로 요상했지. 그랬는디 세상에 또 우리 선생이 조선사람이 아니었어. 조선사람 같았으면 일본말을 갈쳤을 것인디, 우리 선생은 일본 사람이라 당신이 조선말을 배울라고 우리말을 많이 썼제. 그래 우리가 좀 수월했어. 글고 또 구구단도 어찌 배웠나면 여선생이 수월허게 갈친다고 이이는 사, 삼삼은 구, 사사 십육, 오오 이십오, 요렇게 갈쳤지. 그래서 지금도 당신들처럼 절절로 나눠서 외우지는 못혀. 그렁게는 안 배웠응께. 그래 지금도 배운 대로만 알어.

6·25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인천으로 데꼬 갈 때는 살기가 관찮았제. 그때 인천다가 일본 집을 사 났어. 우리집 있는 데가 소방소도 있고 공설운동장도 있었응께. 집도 지금만이로 이렇게

45 아랫 사람의 잘못을 꾸짖는 말.

변기 화장실은 아니라도, 안에 그런 것도 있고, 목욕탕도 불로 때는 거 있고, 이게 일본식 집이라 문은 전부 유리창이라 좋았지. 전에는 물도 귀했잖아. 근디 우리집에는 우물도 있었어. 이렇게 타래박으로 떠서 먹었지. 하여튼 전쟁 나기 전에는 곤란하들 안 했제. 당시 인천서 우리 아버지가 무슨 장사를 하셨는지 그때 연탄 그런 것도 없이 장작불 때는 시절 아닌가. 평장작이라는 것이 있는데, 평장작은 장작을 토막 낸 것이고 다발 장작은 자잘한 놈 다발로 묶어놓은 것이라 그것을 해서 팔았어. 지금으로 말하자면, 가스 맞다, 가스회사를 했다고 봐야지. 그때 인천에서 학교 다닐 때 나무로 만든 계다를 신고 다녔어. 그것을 다른 말로 나막개라고 했는디, 나무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리 불렀제. 계다는 일본말이고 그것이 지금 같으면 쓰레빠야 쓰레빠. 그것도 우리집은 살만 헌께 나막개를 신었제. 가난한 집은 그런 거 있도 없어. 그거를 신고 눈 올 때 걸어가면 그 뗏이나 그것이 막 굽 사이로 올라와. 하하하. 그래도 엄청 좋았지.

근디 인천서 얼마 못 살고 6·25가 딱 터져버렸어. 그것이 어떻게 났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때 밤손님이 먼저 왔었던 거 같았어. 당시 우리 큰집 언니가 초등학교 선생이었어. 큰덕 언니가 우리집서 직장 댕겼는디, 폭격 나기 전에 우리 언니랑 그 핵교 선생들이 잽혀 가서 저녁에 두들겨 맞고 오고 그랬다고 했어. 그란디 우리는 뗏을 모른게 어째서 잡혀갔냐고 물어봤던가 봐. 공께 이렇고 이렇고 해서 잽혀 갔다고. 자세히는 몰라. 인자 우리가 어린 게 그렇게 말을 둘러댔던가 봐. 그렇구만 알고 왜 난리가 났는지 몰랐어. 나중에는 막 폭격이 나고 그랬어도 여름에는 그런대로 전뎠는디, 전쟁이 더 심해져서 우리가 피란 간다고 개나리 보따리 짚어지고 집을 나서고 그랬어. 그때 우리 작은방 아저씨가 리어카로 우리를 데꼬 안 갔으면 우리는 거가 있다 다 죽었을지도 몰라. 작은방 사는 아저씨가, 우리 아버지는 고향 가서 못 올라오시고 우리 어머니는 짧은 각시가 어린 아그들 허고 있음께 자기네들만 피난 갈 수도 없잖아. 그래 자기네 리아카에다 우리 가족도 싣고 그렇게 피란이라고 가는디 십리도 못 갔지.

그렇게 집을 비워놓고 피란 갔다 돌아왔더니만 인민군들이 우리집을 차지하고 우편국을 만들어 놓고 썼더라고. 거기다 총알도 엄청 숨겨두고, 즈그덜 먹을라고 김치 갖다 났지, 쌀 갖다 났지, 집에다 먹을 것을 겁나 쟁여 났어. 그 덕에 당분간 우리 식구는 먹고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당께. 근디 일본식 집이라 유리창이 다 폭격을 맞았으니 어찌했겠어, 유리창이 다 깨져 불고, 왕창 뼈들만 남았더라고. 그 시절에는 숨이불 있잖아, 그 숨이불로 다 이렇고 문을 쳐났더라고. 그래 놓고 굴속만으로 가려 놓고, 거그서 인민군들이 숨어서 지내고 있었나 벼.

거그 인천에서도 몇 해 못 살고 6·25가 터지는 바람에 피란 댕기다 고향으로 내려왔제.

내가 죽으면 우리집을 맡아 줄 사람도 없고

당시는 나라에서 곳간들을 다 열어 났어. 인천 선창가에 그 창고들, 쌀 창고다, 뭐 나락 창고다, 거기 가서 다 곡식을 가져가는데, 우리 집은 못 가져 왔어. 왜 그랬냐면 남에 집은 다 어른 남자들이 있지만 우리집은 내가 켈로 큰 어른이야. 고작 내 밑에 동생이 겨우 열 살 먹은 남동생이 남자여. 그러니 내가 어쩔겠어. 그때는 쌀푸대를 가마니라고 했어. 그것을 이리저리 십자로 묶어놓은 겹보리를 어깨에 끼고 집에 떠메고 갔지. 나락은 무거워서 못 지고 가니까 겹보리, 그것을 요리조리 묶어진 사이로 팔을 끼워 넣고 그걸 짚어지고 집으로 갔네. 근디 고놈이 이렇게 야잡게⁴⁶ 있으면 어깨에 못 끼울 것인데 많이 쟁여 있음께 내 키높이랑 맞아, 그래서 팔을 이리저리 가마니 속에다 끼워 넣고 어깨에 끼워 메고 집으로 갔제.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용케도 살았다 싶어. 사람이 더러는 악으로 산다고 허는디, 그때 내가 그랬지. 열서 너 살 계집아가 고놈을 메고 집까지 갔으니 오죽 용을 썼을까. 그 당시 우리 어머니는 안방마님이었어. 왜 그랬냐면, 지금 가가 일흔세 살 먹었는가 그려, 하여튼 그 막내 동생이 나보다 열 두 살 연하인 디, 당시 고놈이 갓난아기였어. 고 애기 낳고 어머니는 밖에도 못 나오시니 내가 그리 동동거리고 나섰던 거지.

그때 피란 댕김서 본 것이 생각나. 지금 코로나 있잖아요? 요것맹키로 전쟁 났을 당시에 지금처럼 무서운 장질부사(장티푸스)가 와갖고 사람을 싹 쓸어 갔어. 당시 내가 장질부사를 앓았는데, 근디 우리 어머니가 막내 동생 보고 “너는 죽으면 내다 버리겠는디, 느그 언니는 내가 못 버리겠다. 니가 대신 가져라” 그랴. 그게 뭘 말이나면, 내가 죽으면 우리집을 맡아 줄 사람도 없고 집안을 이끌고 갈 사람이 없으니 나는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여. 그러서 자식을 버리게 된다면 차라리 막내 동생은 죽으면 잊어불고 가겠는디, 나가 죽으면, 끌고라도 가야 식구들이 살 수 있으니, 제발 죽지 말라는 것이었제. 참 무작헌 세월 살았다. 그치? 우리 어머니가 당시 난리통에 남편도 큰아들도 다 잃어불고 얼마나 살 길이 폭폭했으면 이런 말씀을

46 낮게. 나즈막하게

허셨겠어. 지금도 생각하면 참 기가 맥힌다, 그 세월이.

피란 땡길 때 본 것은 길 양쪽에 송장들이 쪽 늘어져 있어. 그란디를 피란 가니라고 그 사이를 걸어 땡겼응께. 무시무시했제, 그때 또 피난 가는데 소래다리라는 데가 있었어. 소래다리를 건너가는데 인자 피란민들 건너라고 판때기를 놔뒀더라고. 철로는 강물에 풍덩 빠져볼고. 금께 얼마나 다리가 사시나무 떨 듯 부들거렸지만, 일단 살아야 허니까 뭐 무서운 것도 잊어붙고 걸어갔는다. 그래도 그 소래다리가 가끔 생각이 나. 그래 내가 가끔 인천 가면 소래다리, 소래다리하면 우리 큰조카가 “천안 거그 어디가 긴갑데요” 그래. 그러서 내가 “오메나, 그 소래다리 한번 보면 쓰겼다, 피난감서 거그가 얼마나 머시했다고” 했어. 근디, 아 막상 가보니 쪼잔해, 그래 내가 “오메 이거 진짜 소래다리 아닌갑다. 굉장히 멀고 높았는다” 그랑께, 우리 조카가 “작은 엄니가 그때는 피란 보따리 짊어지고 땡긴 얘기라서 크고 멀게 느꼈지” 그러드라고.

책가방 대신 인생짐을 걸머지고

결국 인천에서도 오래 살든 못했어. 얼마 못 가서 6·25가 더 심해지는 바람에 여기저기 피란을 땡기다 결국은 고향 함평으로 오게 되었당께. 그 난리통에 고향으로 내려왔지만 학교를 끝까지 못 땡기게 되었어. 난리통이라 전학은 무슨, 아버지, 오빠 다 돌아가셨으니 내가 학교 땡기고 그럴 처지가 못 되었지. 목구녕 풀칠허기 힘든 시절에 전학 그런 것이 대순가. 금께 내가 학교 땡긴 것이라곤 고향서 초등학교 입학허고 땡긴 것 쪼끔 허고 인천 전학 가서 땡긴 몇 년밖에 없어. 겨우 까막눈 신세만 면했던 거지. 학교는 그게 끝이야. 내 평생 글공부는 초등학교 땡기다 만 고것이 전부여. 나도 참 복 쪼가리가 잔상에도 없고, 세상 고생이란 것은 원 없이 해봤당께. 전쟁 통에 전학을 못 허고 학교를 못 땡긴 탓인지 나는 학교도 공부도 안 좋아혀. 그래 초등학교 졸업은 못 땡지만, 피란 땡김서 책가방매니로 인생짐을 걸머지고 땡긴 것이 내가 한 공부랑께, 인생 공부.

아버지가 난리통에 고향에 가셨다가 거그서 돌아가셔부리고 오빠도 인민군한테 잡혀가볼고 우리가 고향 말고는 의지할 데가 없어. 우리 어머니가 남편도 아들도 잃어붙고 오죽했으면 어린 자식들 앞세워 남편도 없는 고향을 찾았을까. 그래도 일가친척 모여 사는 고향밖에

더 있겠어. 그래 함평으로 내려온 것이지. 당시는 함평 노씨다 허면 고향에서 자작일촌 허고 사는, 다 알아주는 집안이었응께. 우리를 ‘나 몰라라’ 안 허겠지 허는 맘으로 고향엘 간 거여. 고향으로 들어가 본께 참말로 막막했지. 그때는 너나없이 다 어려웠는다 유독 우리 집이 더욱 힘들었던 것은 우리 집에는 일을 책임지고 헤쳐나갈 가장이 없었다는 것이여. 그래 고향에 가서도 뭘 일도 못허고, 이집 저집 일가친척에 부쳐 먹고 살았어. 다행히도 거가 노씨들 집 성촌이라 아무리 어렵고 곤란허도 자기들만 밥 먹고 우리들 나 몰라라 그라들 안 허니께, 그 당시 인심이. 그래 고향이 좋은 거 아니겠소. 우리 집안사람들이라 겨우 붙어 살았는다, 내가 그 어린 몸예 네 살 터울 동생을 데꼬 땡김시롱 남들 배급받아 가고 남은 것을 쓸어 담아가지고 가서 먹고, 전쟁통을 그렇게 살아냈어. 지금도 돌아보면 징헌 세월 살았지. 하여튼 나는 6·25때부터 먹고사는 데 이력이 났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항시 허시는 말씀이 “저 아는 아무 데나 놔뒀도 먹고사는 데는 일 없을 것이다” 그랬제. 그리 살다가 여그 방직공장을 들어가게 되었어.

때락 큰 가시나 서이 방직공장 입사하다

방직공장에서 사람 뽑는다는 소식은 동네 사람들이 알려졌지. 우리 집이 먹고 살기 힘들니까 밥벌이하라고 알려준 거지. 공장서 인물고사, 뭐 그런 거로 사람 뽑는다고. 그때 혼자는 자신이 없었는다, 내 조카뻘되는 얘기 하나 허고 그 얘기 친구허고, 이래 서이 광주로 왔어. 광주가 어딘지도 모르는 가시나들이 도망을 와갖고 갈 디가 없응께, 광주에 멀리 집안 언니가 지산동서 살었는다, 그 언니 집을 찾아간 것이여. 그 가난한 시절에 때락 큰 가시나들 서이 달라붙었으니 가라는 소리도 못 허고 그 언니가 얼마나 애먹었겠어. 그란디, 방직공장을 하루 이틀에 얼른 들어 가냐 허면 그것도 아니여. 날마다 뽑기는 헌디 시험 보면 자꾸 떨어져. 그러면 그 이튿날 또 가고 그랬지.

근디, 우리 서이 약속을 헌 것이 뭐냐면 ‘서이 중에 두 사람 되고 한 사람만 떨어져도 들어가지 말기’로, 같이 들어가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어. 그래갖고는 지산동서 질(길)도 잘 모르고 그렇께 철로, 그 철로만 타고 날마다 방직공장 앞까지 땡겼어. 그전에는 철로가 있었거든. 없는 시절에 녀의 식구 서이나 밥 멕이고 재울라니, 그 언니가 오직 힘들었겠어? 그것도 다

큰 가시내들을. 그래도 눈치 없이 그러고 땡긴디, 아이고, 나만 시험에 딱 붙고 돌이는 떨어져 부렸네. 그란디 돌이는 여그 광주가 집이고 집도 괜찮게 살고 나만 생활이 어렵고 그랑께, 그 뭐시냐, 약속을 했더라도 나는 공장에 들어갔어야지. 그란디 서이 약속한 것이 있어놔서 나도 공장에 못 들어갔고, 날마다 같이 입사 시험을 치러 다녔제. 우리가 좀 철이 들었더라면 나는 땡겼어야 된다고, 안 그랴.



방직공장 단팥과 함께
우측 종이 가방을 들고 있는 이가노미레

그때는 방직공장 문 앞에서 공장 땡기는 아가씨들 보면, ‘아이고 느그덜은 뭘 복이다냐’ 그 랫당께. 그렇게 부럽고 예쁘게 보이고 그러더라고. 근디 마침 같이 간 친구의 친구 언니가 점 심시간에 나와갖고 우리 친구를 딱 본 것이여. 그래 “느그가 어찌 이려고 있냐?” 물어 본께,

“입사를 허로 왔는디 안 되었다” 했제. 공개 그 언니 허는 말이 “여그는 방직공장 땡긴 사람이 고, 안 땡긴 사람이고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른다. 몰래 들어가 기숙사에서 밥 묵고 그래도 된 다”고 말을 해줬어. 그래 아는 사람 없으면 못 들어갔을 것인디, 언니가 말해 준거라 우리가 몰래 기숙사에 들어가서 밥도 묵고 그랬지. 그래 나는 진즉 합격 했으께 그대로 출근을 허게 되고, 돌이는 날마다 머시 해서 결국에 서이 다 공장에 들어가긴 했제.

세 즐짜리 완장 찬 조장이 되다

전에는 방직공장에 삼천 종업원이라 했거든. 삼천 명이 된가 안 된가는 모르지만 그런 말 이 있었으께.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 나는 방직공장 정방이라는 디서 일했제. 내가 다닌 곳이 원래는 전남방직인디 그것이 몇 년 있다가 일신방직하고 전남방직으로 갈라졌어. 분가해서 도 나는 전남방직에서 일했지. 방직공장에는 직포과하고 방직과가 있는디, 직포과라는 디는 (곳은) 베 짜는 디고, 방직과는 베 짜는 것 준비하는 디여. 말하자면 솜 타서 실 뺀 디까지 방 직과 정방에서 허는 일이라고 봐야지.

그때는 하루 여덟시간씩 삼교대를 했는디, 사람이 부족하고 허면 한동안은 이교대를 많이 했제. 열두 시간씩 꼬박 서서 일허면 걸어 감시릉도 자울고(졸고). 그때는 잠자는 것이 제일 로 크게 아쉬웠지. 이교대를 자주 하고 나서 쉴 때는 목욕탕에 가서 목욕도 허고 기숙사에 와 서 쉬고 해주는 밥 먹고. 허는 일은 되얏지만 맘은 편했어. 공장서 밥 주고 재워 주고 돈 주고 그러니.

그때는 공장 식당에서 밥을 어찌 줬냐 허면, 두부 많이 주고 콩나물 많이 주고, 또 저 화요 일 날은 팔밥, 금요일 날은 콩밥, 그런께 나는 피란 땡김서 고생을 많이 해갖고, 팔밥 콩밥 가 리지 않고 뭐든지 다 잘 먹었지마는, 우리 그 조카되는 애기는 입이 짧아서 팔밥 주네, 콩밥 주네, 입맛에 안 맞네, 하고 투정이여. 반찬도 그 단무지, 옛날에는 단무지를 다팡이라고 했 제. 다팡 그런 거 주고 헌께, 밥을 못 먹겠다고 해서 결국 그대 같이 들어갔던 조카와 친구는 얼마 못 땡기고 그냥 나가 부렸어. 고생을 안 허봐서 오래 못 견뎠지. 근디 나는 오래 땡겼지. 결혼해갖고도 둘째까지 낳고 퇴직하고, 셋째 임신해서 나왔다가 다시 임시직으로 들어 갔으 게. 다들 나를 부러워했어. 그때는 한 달 월급이 오륙만 원 했던가 그랴. 월급이 첨에 들어가

서는 만 얼맨가 그랬을 것이여. 그래도 인자 조장급 허고 그래갖고 오류만 원 그렇게 타고 그랬지.

근데 거기서 기계를 여러 개 놓고 일헌디, 어쨌든 그 선생님이 날 잘 봐줬던가 그래서 반장이 됐어. 조금씩 계급이 올라갔어. 그때 급수로 해서 뭐 삼급까지 올라갔제. 그런 식으로 해갖고 난중에는 내가 조장까지 했제. 공장에서 내가 조장까지 올라 갔는디 여러 단계가 있어요. 그때는 일본 말을 많이 썼지. 일본 사람들이 운행했던 디라 처음에 들어가면 니아마끼라고 해서 청소하는 사람, 그다음에는 이제 다이모지라고 기계 보는 사람, 그다음에 이제 다막에라고 기계가 다 차면 빼는 사람, 도비쪼는 뭐냐 하면 기계 차면 내려서 빼고 또 채우는 사람, 그다음에 조장이 있고. 조장만 우리말이여. 공께 나는 그 공장 계급도 일본말로 밖에는 몰라.

그때 공장서 기계가 양쪽으로 짝 있는 디를 세 줄짜리 완장 탁 차고, 내가 조장인께, 거기서는 가우 잡고 살았지. 우리 정방이라는 데는 기계가 막 돌아가니까 신호를 할 때 이 휘각⁴⁷ 소리 갖고는 소리가 작아서 안 들려. 그때 내가 조장인께 휘가락⁴⁸을 획불었어, 완장 찬 조장이 휘가락 획 불면, 그 사람들이 달라들어서 같이 일허고, 또 휘가락을 휘엑 불면 오라는 소리, 획획! 불면 야! 하고 부르는 소리, 그리고 휘익 그리 불면 뭐시 하라는 소리, 휘에엑 그러면 빨리빨리 허라는 소리. (웃음) 그때는 휘가락으로 말을 하듯이 그리 신호를 했어. 아무튼 그때 내가 많이 배우들 못했어도 공장에서는 어깨에 힘 좀 주고 일했지.

공장 다니는 게 자랑이었던 공장 가시내

당시 친척들이나 주변에서 특히 우리 집안에서 나를 굉장히 좋게 봐줬지. 어린 나이에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으니 더욱 그랬어. 그러니 나도 그때는 아무래도 생색을 좀 내고 그랬제. 내가 전남방직에서 일할 때는 광목을 줘는디, 한 달에 광목을 제일로 적게 받았을 때가 다섯 마였어. 급수가 올라간 게 여덟 마 주다가 열 마씩 줘어. 전에는 천이 오직 비싸고 귀할 때 아닌감. 고깃을 동네 사람들 나눠 주고 그랬으께, 나를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몰라. 그래 나는

47 호각. 호루라기

48 입술을 오므려 불기도 하고, 입에 손가락을 넣어 불기도 하는 휘파람 소리

방직공장 댕긴 것이 자랑이었어, 자랑. (거실 쇼파 천을 가리키며) 이게 다 그때 받은 광목이야.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이불 홀청을 전부 광목으로 허고 살어.

헌디 당시 우리 보고 더러는 ‘공장 가시내’라고 했어. 공장서 일헌다고 ‘공순이’라고도 불렀고. 그러도 나는 그런 말 괜찮았구만. 남의 것 도둑질헌 것도 아니고, 지 노력으로 일해서 가족 건사했는디 그리 불려도 무슨 상관이여. 지만 정신 차리고 잘 살면 되지. 안 그라? 헌디 당시 전대생들이 공장 아가씨들을 꼬신다는 그런 말도 있었제. 철딱서니 없는 아그들은 더러 월급 타서 그 학생 다 대주고 그런 사람도 있었으께. 아, 나도 언제가 한번 남학생이 접근해왔었지. 물리학과 다닌다고 그란디, 나는 원래 성격이 또 뭐시 헌디다가, 그런디 정신 팔 상황이 아니잖아. 딱 짤라 부렀더니 다시는 연락이 안 와. 그때 그 학생들헌테 넘어가 즈그 신세 조진 애기들도 있고, 시집 잘 간 애기들도 있고 그랬지. 다 지난 이야기지만 철없는 사람들도 더러 있었으께.

공장서 나는 특별한 취미 같은 것도 없었구만. 그때 공장서 한문이랑 한글도 같쳤고, 어떤 사람들은 또 양장허는 것도 배운 사람 있었지. 그런 거 취미 생활로 한다고 많이 배우고 그랬는디 나는 일단 내 가족 먹여 살려야 했으께, 판디 신경 안 쓰고 그저 공장서 일허고 돈 버는 것 밖에는 모르고 살았다고 봐야지. 일 공부만 배웠어. 다른 사람들은 다 뭐시 했지마는 나는 오로지 일만 허고 살았어. 그래도 내가 인덕(人德)은 있었든가 당시 직포과에서 한 사람, 방직과에서 한 사람 뽑아 상을 주었는디, 아, 그 속에 내가 들어가 상을 타기도 했어. 그때 일년에 한 번씩 공장서 상을 주는디, 빛이나면 은수제, 그 귀한 은수제 한 벌을 상으로 줘다니까. (웃음)

나는 공장서 열두 시간 일허도 그것이 부당하고 힘들다 그런 거 못 느꼈는디. 공장 생활이 불편하고 힘들었던 거는 뭐 당연한 것으로 알았지. 사람이 부족할 때는 이교대로 일했어도 막 제품은 많이 팔리지 사람은 부족허제 기계가 스물네 시간 돌아가야 된께, 열두 시간씩 일해도 그런 거 불평을 안 했어. 그때도 공장서 그런 일로 데모도 허고 그랬는디, 나는 그런디 참석허도 안 했제. 노동자 권리 그런 거는 내가 뭘 잘 몰라. 그것도 뭔가를 알아야 데모도 하고 참석을 하지. 그런 것도 많이 배우고, 뭘 아는 사람들이 말도 허고 따지제. 나맹기로 글공부도 많이 안 허고 일만 허는 사람은 그런 거는 잘 모르지. 일만 허고 다달이 월급 받으면 그것이 장땡으로 알았지. 근디 그때 데모한 사람 잡을라고 너도 나도 달라들어 (노조)회장이 책상 밑으로 숨고 그랬다는 소문도 있었어. 내가 거그 가임을 안 허고, 내 눈으로 직접 보들 안 했으께.

어머니의 뒷모습에 결혼을 결심하다

당시 우리 어머니는 내가 방직공장 댕김시로 나이도 많이 묵고 결혼을 안 한다니까 힘들었지. 근디 나는 내 동생, 내 가족 먹이는 것이 우선이라 결혼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제. 허나 우리 어머니는 시집 안 간 딸이 벌여 준 돈으로 먹고살자니 오죽이나 마음이 불편하셨겠어. 그런께 나를 여울라고(결혼시키려고) 애를 썼는디, 내가 “동생들이 돈 벌어서 생활할 때까지는 결혼 못 한다”고 못을 박았으니, 남들 이목도 있고 또 시집도 안 간 딸 앞길 생각하니 마음이 괴롭잖아요? 그래 한번은 어머니가 면회를 왔다 돌아갈 때, 오메, 그 뒷모습이 얼마나 처량해 보이든지, 내가 우리 어머니 축 처진 그 뒷모습에 결혼을 결심했다니까.

당시 우리 식구들을 내가 결혼해 버리면 안 되는 형편이었어. 동생이 돈을 벌어야 가정을 이끌고 나갈 것인디 동생들은 아직은 어리고, 우리 어머니는 안방마님이라 아무것도 모르시니 내가 시집 가불면 우리 식구들 어찌겠어. 내 밑에 남동생 둘 여동생 하나 있는디, 둘째 남동생은 우리집에서 같이 못 살고 큰집 가서 부처 살고 있을 때여. 말하자면 양자를 보낸 것이지, 우리집 형편이 곤란헌께. 그때는 피란민 배급도 타고 했지만 그래도 어려웠어. 옷도 구호물자 옷 타서 입고. 그렇게 요즘 내가 헌옷 버리면서 ‘이것도 가난한 나라에 가서 예전 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이 이 옷을 타서 입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잔해.

내가 시집 못 가고 있을 때 한번은 대구에서 직원 모집을 하러 왔어. 그때 내가 되모시⁴⁹를 생각했다니까. 내가 대구에 가서 결혼했다고 머리를 올리고 다니다가, 전남방직에 다시 내려와서 결혼 안 했다고 머리를 풀고 취직하면 어떨까, 그런 잔피도 생각했다니까. 우리 가정이 오죽 힘들면 그런 생각도 해봤을까. 그때는 워낙 사람들이 귀한 때라 그것도 가능했지만 거짓말을 못 헌께 그리도 못하고 할 수 없이 스물다섯 먹어서 결혼했제.

그래 내가 맞선을 봤는디 그가 누구냐면, 나랑 같이 일하는 친구 고모네 사돈네여. 우리집 양반이 그 사돈 되는디, 그 때는 거의가 다 결혼을 일찍 헌디 우리집 양반도 나이 들도록 결혼을 못 했어. 그런께 그 양반도 연분을 못 찾았고 그러니 연결이 돼서 선을 봤제. 그때 내가 시댁에다 결혼 조건이 “나는 동생이 돈 벌어서 생활할 수 있을 때까지 친정에 돈 벌여줘야 된다”고, “결혼해도 내가 벌어서 친정 식구들 맥여 살려야 된께, 그래서 결혼을 허고도 공장에

를 댕겨야 된다”고 했으니 시댁에서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 시댁은 괜찮게 살았거든. 그런 조건으로 시집을 갔어. 그런께 시댁에서도 별말을 못허제. 신랑도 그만두라고 재촉도 안 허고. 그러니까 결혼 해갖고도 둘째 낳도록 방직공장을 댕기니 나를 마음에 안 들어했제. 내가 내놓을 것이 뭐가 있어? 피란민 가시내에다가 친정에 양친이 다 계신 것도 아니고 결혼해서도 친정 식구들 맥여 살려야 하고……. 이렇게 내놓을 것도 볼 것도 없는디 자기 아들하고 결혼 시킬라니, 내가 시어머니 마음에 들었겠어? 마음에 든 것이 하나도 없었것제. 그런디 요상하게도 신랑이랑 나랑 인연이었든가 내가 신랑 마음에 들어갖고 결혼허게 됐당께. 처음에 시어머니가 와서 선을 봤는디, 그때 내 몸매가 날씬했던가 봐. 그런께 시어머니가 “가시내 허리나 아니나 뭐시 해갖고 아기도 못 낳겠다” 그러케 말헌께, 신랑 하는 소리가 “그래도 허리, 다리, 팔뚝은 다 통통합디다” 그랬대. 내가 팔다리가 좀 포동포동헌 편이거든. 그래 남편허고 인연이 돼서 결혼도 하고 아들만 넷을 낳았어.



부부사진
1988년 4월로 기억된다.

49 결혼한 적이 있지만 처녀 행세를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순 우리말.



젊은 시절 제주도 한라산에 오른 노미례
1986년 5월로 추정. 남편의 동네 사람들과 함께 한 여행이었다.

법으로만 살았던 결혼생활

결혼은 남편이 서른 살, 내가 스물다섯에 했제. 근디 그 양반 돌아가신 지 벌써 이십 년째 야. 생존해 계시면 올해 아흔인께. 일흔 살에 돌아가셨네. 한 사십 년 같이 살았구만. 첫애를 스물여섯에 낳았는데, 남편이 좋고 사랑해서 결혼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 걱정 덜어드리려고 한 결혼이라, 남편한테 다정하니 대할 줄도 어양부릴 줄도 몰랐어. 나는 결혼생활을 법으로만 살았다고 생각하는 거. 어째 이렇게 생각허냐면, 그런게 오직 결혼도 넘(남) 눈이 무서워서, 어머니 뒷모습이 안쓰러워 결혼한 것이지, 좋아하고 사랑해서 결혼헌 그런 것이 아니잖아. 여자가 나이 들면 결혼이란 것을 해야 되니까 그래 결혼을 헌 것이야. 그래도 우리 부모님 사시는 것 보고 존대할 줄도 알고, 나 생전 서방님한테 반말도 한 번 안 해보고, 좋아한다고 그런 말도 해보들 못허고, 일평생 들어 보들 못했으께. 요즘 사람들처럼 사랑한다고 그런 말 못하고 살았으께. 결혼이란 것을 옛날부터 내려오는 순리로 알고 살다가, 내 나이 예순다섯

에 영감님 가시고 자식들 다 장성해서 집 떠나고, 지금은 빈껍데기로 이리 혼자 살고 있제.

그 양반 생전에 페인트 대리점을 했구만. 그때는 제비표 페인트라고 제비표가 명품이라고 해갖고 인기가 있었제. 근디 가게에서 손님들이 오시면 “어서 오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런 소리도 못허, 부끄러워서. 그런게 이웃에서 내가 “작은 마누라인 줄 알았다”고 하더라고. 나 허고 우리집 양반허고 다섯 살 차이 나는데, 그 양반은 늙어 보이고 나는 젊어 보이니까, 작은마누라가 돈 떨어지면 돈 받으로 나왔다고 했다는디, 다음에 나허고 친해지게 그런 말을 해 주더라고. 그런 남편이 페인트 대리점을 예순 살이 넘도록 하다 그만뒀지, 아마. 그때는 내가 남편이 돈을 벌어줘도 돈 욕심을 부릴 줄도 모르고, 생전에 남편이 돈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그랬지. 부부지만 다정허니 그리 못 살았어. 남들처럼 남편보고 돈 주라 소리 할줄도 모르고 속일 줄도 모르고 순종만하고 살았지. 그 양반도 생전 돈 주고 그것 어따가 썼냐고 말할 줄도 모르고. 그냥 법으로만 살았던 결혼생활이라. 근디 애들은 넷이나 낳았구만. (웃음)

방직공장이 키운 내 아이들

아들만 넷인데, 방직공장에 다니면서 아이 셋을 낳았어. 셋째는 우리 집에서 낳았제. 둘째까지 시어머니가 산후 수발을 들어줬고 셋째부터는 우리 집에서 친정어머니가 해주셨지. 우리 아그덜 셋째까정 방직공장 댁김서 낳고 키웠으께, 방직공장 덕분에 아그들을 키운 셈이제.

근디 지금 내가 후회하는 것은 아이들은 대학까장은 못 갈쳤다는 것이여. 그때 내 주장이 새끼들 안 굶기는 것이 젤로 컷으께. 내가 피란 댁김서 워낙 배를 많이 굶아서 안 굶기는 것을 아주 장땡으로 생각했으니까. 그 당시는 먹고사는 것이 최고 아닌감. 그러서 결국 아그덜 공부를 많이 못 시켰지만. 또 그때는 내가 ‘자식들 대학을 꼭 보내줘야 헌다’ 그런 생각을 못했제. ‘고등학교꺼장 보내주면 된다’고 그런 식으로만 생각했어. 근디 우리 막둥이가 대학교를 간다고 시험을 쳤는데 떨어져부렸어. 그리고 대학교를 다시 간다고 이러이러 헌다고 헌디 나는 “못해야, 느그 알아서 힘닿아서 가면 모르고 내 힘은 더는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넷째도 고등학교만 나오게 뒀어. 그때도 억지로 갈칠라고 했으면 갈쳤을 것인데, 머릿속에 글 담아 뒀으면 남이 못 뺏어갈 것인데, 지금은 후회된다니까. 이제 생각허면 그거 제일로 미안하고 그랴. ‘그때 빛이라도 내서 갈쳐뒀으면, 머릿속에 글 넣어뒀으면 새끼들 편히 살 것인데’

히는 생각이 들어. 지금 큰아들은 건축회사에 댕기고 막둥이는 서울 회계사무실에 댕기는데, 그때 내가 많이 가르쳤으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 있을 것이여. 지금 사람들은 어쨌든 지 새끼들 갈칠라고 그러잖아. 그리 못했으니 후회가 많이 돼야. 이제 이런 생각해도 아무 소용도 없지만 말이여.

그리고 보면 내가 아그덜한테 잘못된 것이 굉장히 많아. 먹고살라고 공장 댕김서 제대로 돌보지 못했고 맛있는 것 못 멕여주니 내가 집에서 밀가루로 음식을 만들어 줬어. 그때는 밀가루가 대포대로 나왔어. 대포대 밀가루 한 포대 사 놓으면 부자 안 부러웠지. 밀가루 고놈 사다가 내가 빵 만들고, 도나스 같은 것 만들어서 먹였지. 맛있는 거 좋은 거 못 멕여준 것, 그것도 후회되고 그라.



친구의 딸 결혼식에서 첫째·둘째 아들과 함께
왼쪽이 첫째아들이다.

근디 우리 동생들은 내가 고생해서 다 키워 논께 지금 다들 잘 살아. 그라 조카들도 잘 되어 좋은 직장에 다니고. 그래서 동생들이 날 생각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프다고 그라. 요즘도

우리 동생들은 나를 “우리 누나, 우리 누나, 세상에 둘도 없는 누나”라고 험시롱 동생댕들도 자주 전화하고 뭘 보내주고 그라 짜. 근디 우리 아그덜만 나 때문에 못 먹고 못 배우고 그랬 응께 내가 항상 애기들한테 “내가 잘못된 것이 많다. 내가 죄인이다” 그러면, “엄마 그런 말 씀 마세요. 엄마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혀. “건강하게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큰 복 받은 것이고, 공부 그것 안 해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우리 잘 키워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애기들이 날 이렇게 위로해 줘. 우리 아그덜 참 효자들이지, 세상에 둘도 없는.

배추속 비우듯 마음을 비워야 산다

우리 큰아들이 사고로 일찍 죽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진짜 가슴 찢어지게 아팠어. 안 겪어본 사람은 그 속 모르지. 그걸 요새 말로 허자면, ‘너 늙어 봤냐?’ 이런 말 있지요? 이 말은 늙어 봐야 노인 마음을 알 수 있듯이 자식 앞세운 일을 당한 사람 외에는 그 아픔을 몰라. 말로 표현이 되겠어? 누가 상처가 나서 많이 아파라고 하면, 아프겠다는 말은 하지만, 아파 본 사람만이 얼마나 아픈지 알듯이. 말로는 아프겠다고 하지만 그 깊은(깊은) 속을 어찌 알아. 내가 아들 잃고 가슴이 아픈디 어찌 말을 못 하겠더라고. 그냥 가슴이 맨날맨날 칼로 찢어대는 것 같았어. 그라 미친 사람 마냥 돌아댕겼어. 우리 집 양반도 점잖해갖고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둘이 그냥 마주 보고 허구헌 날 눈물만 흘리고 있었지. 그 마음이 오죽했을까. 그래도 부부가 가슴이 아프면 서로 다독겨려줘야 헐디, 그것도 안 돼. 그 양반은 그 양반대로 말을 못하고. 나는 나대로 심(힘) 들고. 그래도 시간이 절로 넘어간께, 그런께 ‘산 사람은 산다’ 그런가 벼. 근디 그 쓰라린 가슴을 낮게 해준 것이 뭐이냐면, 겨울 운동장에 찬 서리 맞고 서 있는 배추야, 배추.

그러니까 이전에 전남대학교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느디 내가 구령을 해줬어. 방직공장에서 휘가락 붙었듯이.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선생님, 선생님 했거든. 그랬느디 우리 아그가 그래분 뒤로는 거기 안 나갔어. 아니, 못 나갔제. 그러니까 그때 석달을 그랬느디 이제 백일 넘고, 그러니까 거그서 같이 운동한 사람들이 “그래도 나와서 같이 걷고, 운동도 하고 그라야 잊혀지는 것”이라고 나오라고 막 하더라고. 그래서 못 이긴 듯 나갔느디, 지금은 전남대학

교 여기가 다 이렇게 건물들이 짝 찼는디, 그때는 빈터로 많이 있었거든. 땅이 빈터로 있으니까 주민들이 거기다 배추도 심고 뭐도 심고 했는데, 겨울 지나고 봄 되었는데, 그곳을 지나가는데 배추가 속 찬 놨은 자기네들이 다 해가고, 조금 아까운 놨은 딱 묶어놓고, 속이 안 찬 놨은 그냥 내버려뒀어. 봄이 되니 속 찬 놨은 묶여져 있다가 폭 썩어서 내려부리고, 속 안 찬 놨은 다시 새파라니 이렇게 살아 있더라고. 그것을 보고 '바로 저거다, 내가 마음을 배추속 비우듯 싹 비워버려야 그래야 내가 산다. 내가 죽어볼면 나는 괜찮을 것인디, 남은 식구들을 어쩔 것이냐, 내 가슴 아픈 것이 저렇게 배추속처럼 마음을 싹 비워버리고 속없이 살아야 되겠구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또 한 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자' 이리 마음 먹었지. 물론 그때만 해도 나를 위해 발버둥쳤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을라고. 그렇지만 그때 마음은 '남은 자식들을 생각해서 내가 이러면 안 된다', 그란디 그때 내가 생각한 것이 '배추가 아픈 내 마음을 깨우쳐 주는구나'였제. 안 겪어본 사람이 이 마음을 알까. 그 배추 포기 속 비우고 겨울철 난 것을 본 사람들도 내 마음을 모르지. 그래도 시간이 저절로 간게 살았소. 마음이 아파도 시간이 절로 넘어간게 살아지대요. 지금 한 삼십 년이 됐는가, 그놈이 간 지.

우리도 학교맹키로 동창생이다

방직공장에 다녔던 사람들, 처녀 때 공장에서 뭐 했던 사람들 모임을 했는디, 그것이 이십일 계모임이었어. '우리도 학교맹키로 동창생이다' 그래가지고 방직공장 퇴직자들이 모임을 만든 것이었어. 거그 거실에 있는 거울이 그 거울이야. 결혼해갖고 살면서 처음에는 거그 멩김서는 그런 거 할 줄도 모르고 퇴직하고 나와 가지고 집에서 애기들 키우면서 모임을 만들었어. 친목계라 하지 않고 '동창 모임'이라고 했어.

처음에는 계원이 한 스무 명 되었구만. 야구선수 어머니도 우리 계모임이었고. 지금은 이사 간 사람, 저승 간 사람, 뭐 어찌고 해가지고 다 떨어져볼고 몇 사람 안 남았어. 다들 아프고 그런게 자주 모이지도 못하고. 그 계원들이랑 모여서 서로 오갈 때가 한 이삼년 된 거 같어. 깻돈으로 한 달에 만 원씩 부었어. 그 돈으로 식당 같은 데 가서 밥 먹고 톱툰이 여행 다니고 그랬지. 처음 시작할 때는 가정집에서 모임을 했는디, 그걸 유사라고 해. 서로 만나면 "니가 유사다", "내가 유사다" 해갖고 돌아가면서 모이고 했는디, 그때가 참 좋았지, 지금은 나이 들

고 그래서 그것도 힘든게 나중에는 식당에서 모임을 했어. 여행을 간 곳도 많았어. 그러니까 여행도 여그 모임에서만 간 것이 아니라 여그저그서 갔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 뭐 가기는 많이 갔는디 잘 모르겠어요. 진주 벚꽃놀이도 가고 단풍놀이도 가고 그랬는디..... 내가 계책을 갖고 있었어. 깻돈이 모이면 어떻게 하나면, 모은 돈으로 놀러도 멩기는디 쓰고 자식들 여울 때 뭘 일 있을 때 그런 거 다 깻돈으로 주거든. 무슨 행사 있으면 그 돈으로 부조하고, 그런 것까지 다 기록하고 그랬는디, 한 이삼년 전에 깻돈도 싹 나눠줘부렀어. 우리 먹고 남은 놨이라고. "우리 나이 먹고 자식들 다 여우살이 해 버린게 돈이 필요가 없다" 해서 나뒀지. 그 많던 이십일 계모임이 요근래, 금께 지금은 서이 남았는디 그 중 내가 제일 건강허지. 한 사람은 또 살겠네 죽겠네 허제, 몸이 안 좋아. 그래 근래에는 자주 만나지도 못했어. 여름에는 더워서 여름 끝나고 모이자 허고, 겨울에는 겨울이다 해서 못 모이고, 따뜻해지면 모이자 했는디 또 요새는 코로나 땡시 그도 못 만나고 있어. 남은 사람 몇 안 되니 더 보고 잡지.



방직공장 동료들과의 계모임은 스무 명으로 출발해 이제 세 명만 남았다.
진해 벚꽃놀이. 위줄 오른쪽 두 번째가 노미례



2003년 11월 2일, 국학 기공 모임
첫번째 줄 왼쪽 네번째가 노미례

인생 공부 덕에 노년도 활기차게

생각을 해보면 나랑 우리 가족은 방직공장 덕분에 살았다고 봐야지. 그래 방직공장은 내 인생의 동반자였어, 동반자. 그 시절 가시내가 어디 가서 돈 벌어들 디가 있었간디. 거그서 돈 벌어갓고 친정 가족들 다 부양했고 내 새끼들 키웠으께, 방직공장이야말로 우리 가족 밥줄이 었고, 내 짧은 공부를 대신해 준 스승이었다고 봐. 우리 가족 맥여 살릴 수 있는 공장이 있었으께 나는 뒤돌아보지 않고 억척같이 살았어. 그래 지금 생각해도 방직공장은 참으로 고맙고 보배로운 곳이야. 그곳이 나를 키운 토양이라고 해야겠지. 그곳 덕에 나랑 우리 가족이 뿌리 내리고 잘살고 있잖아.

당시 공장서 게으름 안 피우고 일한 것이 몸에 배여 나는 지금도 활동을 많이 해. 늙었다고 놀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새벽 운동도 나가고 봉사활동하고 다녀.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움

받았으께 나도 뭔가는 그 대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난 진즉에 젊어서 장기기증 그런 것도 다 신청해뒀어. 그것도 지금은 늙어서 받아줄지는 모르지만 말여. 봉사는 뭐 별난 봉사 있겠어? 식당에서 배식 같은 것도 허고 또 복지관이나 어디에서 뭘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고 그랴. 그래서 내가 복지관에 나가면 굉장히 인기가 많아. 선생들이 운동하면 방직공장에서 휘가락 붙었던 경험으로 구령 같은 것도 해주고 그랑께 선생들이 좋아라허지. 몇년 전에는 봉사 많이 했다고 김정숙 여사 초청으로 청와대까장 땡겨 왔어. 광주효령복지타운에 김정숙 여사가 오셔갓고 그때 우리를 초청했어. 초청을 받으면 그 많은 사람을 누구는 데꼬 가고 누구는 안 데꼬 가고 할 수가 없잖아. 그래 나같은 경우는 상을 많이 탔지. 그래 봉사상을 많이 탄 그 뭘시기로 해가지고 청와대를 갔다 왔어.

코로나 전에는 새벽 운동 나가면 학교 운동장 돌고, 체조 조끔 허고, 금께 저것(거실에 있는 표창장 사진)이 전국 다 돌아 땡긴 증거여. 아, 그런께 우리 나라가 참 좋다고. 어르신들 체육대회라 해갓고 일 년에 한 번씩 대회에 나갔는디, 처음에는 금상, 대상, 요령코 메달을 겁나게 타 왔는디, 진짜 금은 아니라도 메달을 거실에다 짝 걸어놔어. 지금은 다 치워버렸구만.

내가 요즘도 복지관에 나가면 그곳을 천국으로 알아. 거그 가면 따순 점심해서 주지 겨울에 추우면 난방 때주지, 여름에는 더우면 에에컨 틀어주지, 거기 가면 기른 것이(없는 것이) 없네. 또 나만 언닌가 여기서 언니! 저기서 언니! 허면 내가 획 돌아보면 사람들이 다들 나를 좋아라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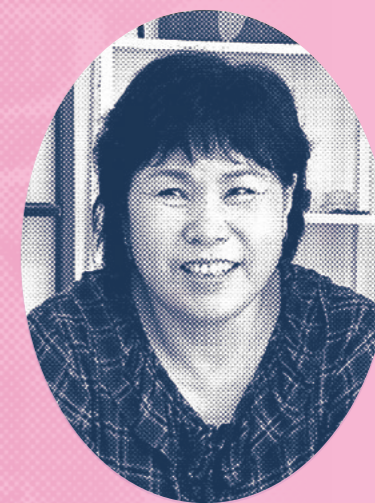
지금은 나 혼자 산께 복지관에 땡기고, 국가에서 노인들 주는 기초연금 받고, 노인 일자리 나가면 돈 나오고 그걸로 살어. 이것도 내 복이지, 안 그랴? 나는 요즘도 아침이면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전남대학교 운동장에 나가. 지금은 코로나 땡시 운동을 못 현께, 단체 운동을 못허게 현께 많이 답답허지만 곧 좋아지겠지?



광주여성구술채록단과 함께 앨범을 들여다보며 웃는 노미례

생애연보

- 1938년(1세) 음력 2월 2일 함평군 함평읍 복촌리에서 2남 2녀 중 장녀로 출생
- 1947년(10세) 학다리초등학교 입학
- 1948년(11세) 1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인천으로 이사
- 1949년(12세) 인천승일초등학교 전학
- 1950년(13세) 6.25 전쟁 중 부친과 오빠 사망. 고향 함평으로 내려와 가장이 됨
- 1956년 (19세) 고향에서 친척들 보살핌으로 지내다 광주로 올라와 전남방직 입사
- 1963년(26세) 겨울, 결혼
- 1964년(27세) 첫아들 출생
- 1966년(29세) 둘째 아들 출생
- 1967년(30세) 전남방직 퇴사
- 1968년(31세) 셋째 아들 출생
- 1973년(36세) 넷째 아들 출생
- 1970년대 중반 방직공장 동료들과 계모임 시작
- 1998년(61세) 장남 교통사고로 사망
- 2001년(64세) 남편 폐질환으로 별세
- 2021년(현재) 복지관 봉사활동



김옥희

월급 육만원으로 적금을 넣어
이백사십만원 모아 결혼을 하고



월급 육만원으로 적금을 넣어 이백사십만원 모아 결혼을 하고

생애 개요

김옥희는 1959년에 동갑내기 부모님이 오십 세에 낳은 늦둥이로 목포에서 태어났다. 남들보다 일찍 들어간 초등학교 시절에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지만, 중학교 입학년 때 집안 사정이 나빠져 납부금을 내기 어려워 지자 스스로 학교를 그만두었다.

학교를 그만둔 후, 집 근처 빵공장에서 잠시 일하다가 당시 월급을 많이 준다는 방직공장 모집공고를 친구를 통해 전해 듣고 입사시험 응시를 결정했다. 당시 일신방직은 경쟁률도 높았으며 필기시험과 면접, 신체검사를 거쳤다. 처음 일신 방직에서는 실을 감는 권사 일을 했고 후에는 직포과에서 베를 짰다. 근무 삼년차가 되어서야 입사 시 적어냈던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었고 이후 일년여를 더 근무하다가 건강의 문제로 자진 퇴사했다. 삼개월 후 전남방직에 입사해 삼년 육개월간 근무했으며 기숙사에서 동료들과 함께 지내며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었다.

월급을 모아 결혼준비를 했으며 퇴사와 함께 결혼하였다. 결혼 후 미용실 등을 하며 1남 1녀를 양육했다. 집에서 딸을 출산하다 죽을 고비를 넘겼으며, 신장이 좋지 않은 아들에게 기꺼이 신장을 기증했으나 결국 다시 떼어 내게 되는 등 아들의 힘든 시간을 지켜봐야 했다. 아픈 자식을 보고 마음이 많이 아팠지만 이제 두 남매는 어엿하게 자라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아 행복하게 살고 있다.

광양제철 협력사에서 일하면서 만 육십 세에 순천연향중학교부설 방송통신중학교 과정에 입학해 모든 과정을 마쳤다. 현재는 고등학교 입학년 과정을 공부하면서 평생교육원에서 영어, 북, 기타를 배우면서 더없이 행복한 제이의 인생을 살고 있다.

4대 독자의 장녀로 태어나

아버지는 목포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서 고생 안 하고 공부만 많이 하신 분이셨고 평소에 말이 별로 없으셨어요. 어머니는 굉장히 정이 많았죠. 듣기로는 제 위로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열아홉 살 무렵에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자손이 없었는데 나를 늦게 낳으셔서, 엄청 귀하게 컸어요. 내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으면, 어머니 아버지가 ‘노는 것도 보고 싶고 공부하는 것도 보고 싶다’고 해서 뒤에 와서 봤고. 그래서 애들이 “너 할아버지 왔다, 할머니 왔다” 그랬어요. 나는 “오지 말라”고 그러고.

저는 두 살 때부터, 한 사십 년을 임동 전남방직 부근에서만 살았어요. 원래는 목포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저를 낳고 광주로 이사를 왔고, 어찌하다 보니까 살림도 많이 없어져 버렸죠. 동갑내기 부모님이 오십 세에 저를 낳았으니 이미 연세도 많이 드셨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소녀 가장이 돼버렸어요. 동생하고는 일곱 살 차이가 나는데, 옛날에 아버지가 사대 독자이다 보니까 손을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너무 나이 드셨다보니 소풍 갈 때 김밥 같은 것도 다 내가 싸줬어요. 동생하고는 나이가 많이 차이 나서 항상 내가 엄마 같은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광주에서 하셨던 식당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사진을 보니까 ‘삼화식당’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일이라고는 할 줄 몰랐는데 사람을 두고 식당을 운영했어요. 또 발산에서는 ‘중앙이발관’을 차려서, 그것도 이발사를 두고 한 오년 운영했던 것 같아요. 발산쪽으로 뽕뽕다리를 건너서 오면 큰 길이 바로 나왔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 아버지가 “여기는 깡패가 너무 많아서 못 해먹겠다”고 하셨던 것이 기억나요. 동네에 너무 깡패들이 많아서, 와서 이발을 하고도 그냥 가버리거나 이발 비용을 달라고 하면 행패를 부리니까 깡패들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그래서 치웠다고 들었어요.

내일부터는 치마를 입혀서 학교 보내세요

초등학교 삼학년 때까지 나는 남자 옷을 입고 학교에 다녔어요. 또 아버지가 항상 업어서 교실까지 데려다줬고요. “내려놓으면 꺼질까 바람 불면 날아갈까해서 그랬다”고 하대요. 그

런데 한번은 선생님이 교문 앞에 딱 서 계셨어요. 아버지 보고 “애기를 지금 여기서 내려주라”고. 아버지가 “교실까지 업어다 주겠다”고 하니 선생님이 “정문을 벗어나서는 아버님 자식이지만 정문부터는 내 자식이니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치마를 입혀서 학교에 보내세요. 똑똑한 애기를 왜 바보 만들려고 그러시냐”고 하셨어요. 그때만 해도 하지만 입고 다니니까 애들이 여자인지 남자인지 보자고 화장실까지 따라오고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니까 참 괴로웠겠죠.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을 참았고, 참다가 집에 오는 중에 실수를 해버린 적도 있어요. 그 선생님 덕분에 삼학년 때부터는 치마를 입고 다니고 애들하고 많이 어울렸던 기억이 있어요.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김옥희
백일 기념사진



남자 옷을 입고 자란 어린시절



과목했지만 자상했던 아버지

교복입은 학생들을 숨어서 지켜보고

지금 생각하면 어렸을 때 목포에서 계속 뭔가 팔아다가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살림이 없어져 버렸는데 생활보호대상자 같은 보조를 좀 받았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나이가 많은데 우리는 어리니까. 가르칠 여력도 없었죠. 생활도 어렵고 납부금도 못 냈는데 그때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납부금 안 가져오면 막 불려서 혼내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안 간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서립초등학교는 졸업했고 중앙여중에 입학해서 다니다가 말았어요. 그때 내가 열세 살 정도가 됐으니까 부모님은 육십대 중반에 가까웠겠죠. 납부금을 못 내고 중퇴를 했으니 당연히 마음에 상처가 많았어요. 골목을 지나가다가도 친구들을 보면 숨고, 학생들이 교복 입고 학교에서 나오면 그런 것도 숨어서 지켜봤고…….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것을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보면 항상 부러웠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벌어야 먹고산다는 그런 것 때문에 직장생활을 했죠. 그 당시로는 다시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못 했어요. 돈이 없으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으니까.

옛날에 친구들한테 뭐가 되고 싶냐고 하면 ‘선생님도 되고 싶다’, ‘대통령도 되고 싶다’고 하던데 저는 ‘마도로스가 되고 싶다’고 했어요. 선생님이 불러서 이유를 물었는데 저는 바다는 길이 없는 줄 알고 그냥 망망대해에 올라서 항해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가슴을 펼치고 어디든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싶다는 뜻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 그런 것에 굉장히 답답함을 느껴서 그런 말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든 부모님을 모시고 다녀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열여섯 살이 안되어 남의 호적으로 입사하다

중앙여중 일학년에 다니다가 가을쯤엔가 중퇴를 했어요. 유동에 ‘풍광빵’ 공장이라고 있었거든요. 아는 사람이 소개해줘서 한 일년 삼개월 정도 다닌 거 같아요. 빵을 기계에 집어넣으면 반으로 갈라져 나오는데 나는 그 반을 벌려서 속에다 크림 바르는 일을 했어요. 다니면서도 일을 할 만한 다른 곳을 알아보기도 했고요.

그러다 친구가 방직공장에 사원 모집을 한다고 공고 붙은 것을 이야기를 해줬어요. 친구들 사이에도 거기 들어가려는 사람이 많았어요. 왜냐면 거기가 월급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것 같아요. 소개로 들어온 사람들도 많았어요. 옛날에 간부들 집에서 식모처럼 한 이삼 년을 살면 거기에 들어 보내줬나 보더라고요. 들어온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래요. 그때는 공장에 들어가기 힘들니까 그런 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만십육세에 신체 건강한 사람. 키가 작아도 안 되고 몸무게가 적어도 안 되니까 친구 하나는 거기에 들어가려고 쇧덩어리를 주머니에다가 넣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경쟁률이 셋어요. 테

니스장에 전부 집합시켜보면 한 백오십명 됐는지 거기가 사람들로 아주 빼곡했어요.

학력 기준은 따로 없었고 국졸만 되면 돼요. 글씨는 어느 정도 아는지, 또 산수풀이 있잖아요, 초등학교 때 문제들이 좀 나왔던 것 같아요. 분수 같은 것 몇 문제, 더하기 빼기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글씨 쓰는 거, 이름, 주소 같은 것. 간단한데도 그래도 몇 문제 됐어요. 한 스무 문제 됐던가. 면접할 때는 심사하는 사람들이 앞에 한 다섯 명 정도 앉아있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한 줄로 서서 다섯 명씩인가 들어갔어요. ‘어디 사냐’, ‘부모님은 계시냐’ 그런 간단한 걸 물어보고, ‘일을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오래 다닐 수 있냐’ 그런 것들을 물어봤던 것 같아요. 시험 보고 나면 거기서 바로 결과가 나와 버려요. 그리고 다음에 바로 신체검사를 해요. 필기시험하고 신체검사까지는 그날하고, 면접은 그 뒷날인가 했던 것 같아요. 또 면접 결과는 오전에 하고 오후에 결과가 나오니까 떨어지면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떨어지면.

일신방직은 만 열여섯 살부터 뽑았던 것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그때 성장이 좀 빨랐나 봐요. 그래서 신장 기준에는 상관이 없었는데 나이가 어리다 보니까 맨 처음에 내 이름으로 안하고 남의 호적으로 가지고 들어갔죠. 그런데 나중에 한 삼년 일하다 보니까 본명으로 바꾸라고 하더라고요. 당시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았고 주민등록증도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이름을 내 이름으로 바꿨어요, 일하다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은 공장 생활

면접하고 공고 붙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일을 시작했어요. 기숙사에 들어간 사람이 있고 통근한 사람이 있었는데 저는 집이 가까워서 통근했어요. 보름 정도가 지나고 자기 들어갈 부서가 결정이 됐는데, 저는 처음 일신방직에 있을 때는 실을 감는 권사 일을 했었는데 ‘베 짜는 데에 사람이 모자라다’고 해서 직포과로 가게 됐어요. 자동으로 기계가 베를 짜다가 잘못되면 서잡아요. 실이 끊어지면 자동으로 서요. 그러면 가서 엮어서 다시 가동시키는 일이에요. 여성근로자들이 거의 기계를 다 봤고, 기계 고치는 사람들은 한 명씩 한 조에 딸려 있었던 것 같아요. 삼교대라고 해도 우리 베 짜는 데만 해서 한 스무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헌 기계를 삼십대 정도 보는 사람이 있고 아주 자동으로 돌아가는 데 육칠십대까지 봤어요. 기계가 있고 각 골목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여공들이 막 뱅뱅뱅뱅 돌아요. 한시도 앉아있을 틈

이 없고 계속 서서, 달리기도 아니고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그 여덟 시간 동안을 일해요. 밥 먹는 시간이 이십분에서 삼십분 정도 있는데 얼른 먹고 오면 또 계속 그렇게 돌아야 돼요. 기계가 서면 거기 가서 얼른 보고 또 기계가 안 설 때는 베가 잘 짜지고 있는가를 양쪽으로 보면서. 김불이 있으면 계속 잘못돼서 기계가 돌아가거든요. 그걸 찾아내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동이었죠.



전남방직 기숙사 정문 앞에서 동료들과 함께

한 십분 정도 거리에 식당이 있는데 가서 밥만 먹고 바로 와야 돼요. 밥 먹고 오는 동안 조장이나 조장 밑에 사람들이 그 기계를 봐주는데 얼른 먹고 와야 돼. 늦게 오면 또 그것도 혼나. 기계 시스템에 따라서 계속 사람들이 움직여줘야 되니까. 웬만하면, 명절 때 아니고 특별한 때 아니고는 기계가 계속 돌아가요. 회장님인가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기계를 잠깐 멈춰가지고 묵념하고 다시 기계 살리고 했던 것이 기억나요. 사이렌이 짹 울리면서 그 시간대에 묵념을 했어요. 김영남 회장님인가 그랬을 거예요. 키도 굉장히 크고 그랬던 분인데 가끔

한 번씩 공장 안을 시찰하셨어요. 회장님 오신다고 하면 그때는 완전히 군대식으로 청소 깨끗이 해놨고.

교대할 때는 삼십분 전에 다음 교대반들이 들어와요. 베가 잘 짜지고 있는지 자기 구역을 점검하고 먼지도 다 말아내면서. 사이렌이 울리면 메타기를 전부 돌려. 그러면 자기가 한 것이 어디서부터인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대가 됐어요. 자기 반 기록이 한 달에 몇 미터인지 다 나왔는데 일등이네, 이등이네, 그런 것으로도 굉장히 그랬어요. 우리한테는 그런 것(포상)도 없었는데 기록을 그래프로 그려놓고, 그러니까 경쟁이 돼서. 그리고 기계가 고장 나도 안돼요. 어떻게든 빨리 돌리게끔 해야 돼.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쉴 틈이 없이 일했죠. 또 쉬는 날도 거의 없었어요. 주간에 일곱시에 시작해서 세시에 끝나거든요. 세시에 끝나면 그 다음날 열한시에 작업 들어올 때가 있어요. 이제 야간으로 바뀔 때, 그때가 쉬는 거예요. 쉬는 날이 없어. 새벽에 일곱시에 시작한다고 하면 여섯 시 반까지는 현장에 가 있어야 되고, 끝나고는 삼십분을 더, 말은 구역 기계 청소를 하고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시간을 더 하고 왔지. 삼십분 전에 출근해서 삼십분 후에 퇴근을 하니까. 그런데 그것하고 관련된 비용은 따로 없었어요. 그래도 그때는 거기가 돈도 제일 많이 받고 그러니까 그냥 '여기가 제일 좋은가보다',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진급은 조장까지 됐고 그때는 월급도 수당이 조금 붙었던 걸로 기억해요.

야간 근무조일 때 집에서 나올 때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나와 버리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통근하는 사람들은 다들 자는 시간에 나오니까 힘들죠. 또 직포와 같은 데는 걸음을 많이 걸으니까 뚱뚱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다 날씬했어요. 여덟 시간 내내 걸어 다녀야 되니까. 직무마다 다르지만 손가락이 잘린 사람, 팔 한쪽에 문제가 생긴 사람이 있었죠. 나도 전남방직에서 손가락 살점이 푹 떨어져 나갔는데 병원도 못 갔어요. 추운 날은 여기가 아려와. 드림에 실이 감기게 되면 날카로운 고리칼로 잘라야 되는데 그걸 하다가 이렇게 된 거야. 살점이 덜렁덜렁하게 됐는데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짹 동여매고 그대로 버텼어. 어차피 결석도 안 되고.

월급 타다 주면 엄마가 그걸 모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나 봐요. 삼십만 원짜리 적금을 했는데 삼십만 원이 그때는 큰돈이었어요. 그런데 그걸 동네 사람이 먹고 도망갔어. 그 후로 내가 조금 위기가 왔어요. 살도 많이 빠지면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막 어지러웠던 것 같아요. 막 어지러워 빙빙 돌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부모님한테는 그런 말도 못했어요. 그만둔다고 하면

말릴 것 같아서. 그때가 사춘기 비슷한 때였던 거 같아요. 계속 일을 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더라고요. 이렇게 힘들게 일을 하면 뭔가 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니까. 그런데 내가 안 벌고 있으니까 또 힘들어지는 것 같아서 삼개월 정도 쉬었다가 전남방직으로 다시 들어갔어요. 그런데 전남방직 들어갈 당시에는 일신보다 경쟁률이 적었어요. 생각해보면 그때는 전자회사 같은 것이 생겨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많이 간 것 같아요. 일신방직에서 일할 때 권사라고 실 감는 데서 아주 잠깐 있었는데 전남방직에다 그걸 할 줄 안다고 이야기했어요. 베 짜는 데가 너무 힘들니까. 권사는 많이 걸어 다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사년을 근무했는데 전남방직에서는 기숙사로 들어가서 친구들과하고 있으니까 일에 점점 재미가 생기더라고요.



전남방직 내 도서관을 겸한 강당에서

조용필의 '단발머리'에 춤도 추고

입사할 때 기숙사 방이 정해지는데 퇴사까지 그 방에서 생활을 해야 해요. 완전 군대식이어서 이제 들어온 사람들은 말도 못했어요. 위에 언니들이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돼요, 안에

들어가면. 어떤 책임을 맡게 됐을 때나 드물게 방이 바뀌고 나머지는 거의 한 방을 계속 써야 하니까 가족 같기도 했어요. 언니, 동생, 하고 그냥 가족같이 지냈던 것 같아요.

오후 다섯시에 가서 저녁밥을 먹거든요. 그런데 일을 하든 안 하든 저녁쯤 되면 배가 고파요. 밖에는 튀김집이 죽 있었는데 단골집들도 있어서 무슨 방 몇 호실 아무개라고 하고 외상으로 사오기도 했어요. 월급 받으면 갚는 형식이었는데 그것도 수위 아저씨가 못 나가게 할 때도 있었죠. 그러면 다시 작업복을 입고 사감 선생님 모르게 방에 있는 물주전자를 들고 나가. 세시에 일 들어가서 밤 열한시에 끝나는 사람들이 한 여덟시쯤 밥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럼 그 시간대에 작업복을 입고 가서 일하다 온 것처럼 해서 밥을 주전자에 하나 담아와. 그래서 거기다 비벼 먹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는 야간 일을 할 때인데, 그때는 근무가 오전에 일곱시에 끝나고 밤 열한시에 다시 일을 들어가면 되니까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때 많이 놀러 다녔어요. 삼교대 할 때 저녁에 심야업할 때 낮에 시간이 좀 비니까 아침에 한숨 자고 나서 그 시간을 이용해서. 방에서나 딸기밭, 복숭아밭 같은 야외에 놀러 가면 야외전축을 들고 놀았어요. 조용필의 '단발머리'라든가 남진의 '님과 함께' 같은 노래에 춤추고 놀았던 거예요. 일회용 카메라로 사진도 찍고 사진관에 맡겨서 사진 나온 날은 같이 보고 한참 웃으면서 많이 놀았던 것 같아요. 옛날에는 딸기밭이나 복숭아밭에 가서 먹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면 주인들이 씻어서 바구니채로 무계를 달아서 줘요. 딸기 나올 때는 딸기밭에 가고 포도 나올 때는 또 포도밭에 가고 복숭아 나올 때는 복숭아밭에 가고 참외 밭에도 가고 그렇게 밭으로만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오래는 못 놀아요. 왜냐면 저녁에 잠을 자야 야간작업에 들어가니까. 사감 선생님이 몇 시까지 들어오라고 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사감 선생님이 굉장히 무서웠어요. 일 안 갈 때 점호를 하면 여섯시 삼십분에 복도에 쭉 앉혀놔요. 그리고는 잘못하고 다닌 것, 행동에 주의를 주면서 엄마 역할을 하죠. "아무개, 몇 호실에 왜 늦게 들어오냐"고 야단도 치고. "여자들이 맥주가 음료수다 해서 술 마시고 다니면 되겠냐" 그리고. 구역마다 청소를 하는데 청소 더럽게 하면 야단도 맞고 그랬어요. 저녁에 늦게 들어오면 창문 넘어 몰래 들어와야 되고. 어떤 날은 사감 선생님 몰래 기어서 안 보이게 들어왔던 기억도 나요.

또 친구들 중에 코 골고 자는 애들도 있잖아요. 나란히 아홉 명 정도가 한 방에서 자다 보니까 잠꼬대하는 친구한테 뺨도 맞고 그랬어요. 자기가 임신한 줄도 모른 이가 있었는데 그 안에 그런 사연들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배가 막 불러오다 보니 사감 선생님 귀에까지 들어

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8개월 됐다 그러더라고요. 시골집에 가다가 성폭행을 당했던 모양이 야. 회사에서는 그만두라고 했는데 8개월이니까 애를 떼지도 못하고 아기를 낳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후로는 소식을 모르겠어.



기숙사에서는 한 방에 여덟아홉명이 함께 생활했고 각자의 이불을 깔고 덮었다.

음악다방도 가고 펜팔도 하고

시내에 <조약돌>인가 하는 그런 음악다방이 있었어요. 차 마시러 가면 DJ들이 우리를 지목해서 멘트도 해주고. 예전에는 총장로 한복판에 막걸리 나이트클럽도 있었거든요. ‘우다

방’이라고 해서 우체국다방⁵⁰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고. 괜히 만날 사람 없는데 거기 서 있기도 했어요. 총장로가 우리들한테는 꿈의 장소였죠. 그리고 군인들하고 펜팔도 많이 했어요. 송정리쪽에 친구집이 있었는데 근처에 포병대가 있었어요. 그 담장에 있는 데를 걸어가는데 군인들이 막 달려와가지고 “아가씨, 아가씨”하고 불려서 주소를 주길래 펜팔을 했고 그래서 영화도 한 번 보러 갔어요. 그 사람이 인천사람이었는데 한두 번 친구 데리고 나가서 만났던 기억이 있네요.

또 여기 삼양타이어, 이후에는 금호타이어죠, 옛날에 삼양타이어에 다니는 남자들하고 우리쪽 누군가가 알게 돼서 그 사람들하고 놀러도 가고 그랬던 기억도 있어요. 놀러 갈 때 필요한 것이나 먹을 것은 거의 남자들이 다 준비해 왔고 증심사 같은 데 가서 놀았어요, 몇몇이서 만나서. 제 주변에 그런 회사 그런 사람들하고 조금 거래가 좀 있었어요. ‘노는 거래’가. 그래서 결혼한 사람도 있고 어쨌든 나름대로 좀 재미있게는 살았던 것 같아요. 직장생활하면서 돈을 버니까.



동료들과 함께 놀러갔던 복숭아밭에서

⁵⁰ 실제로 다방은 없었으나 우체국 앞을 약속 장소로 정하는 경우가 많아서 ‘우다방’이라고 부르곤 함.



개관한지 얼마 안 된 국립박물관 앞에서 함께 근무했던 방직공장 조원들과 함께

전두환 물러가라 좋다 좋다

그때는 5·18 사태라고 그랬죠. 어떤 날 밤에 잠들려고 하다가 한 열한시쯤에나 낭랑한 여자 목소리를 들었어요. 정말 우리가 뛰쳐나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호소력 있게 가두방송을 했던 것이 지금도 쟁쟁하네요. 그래서 몇몇 기숙사생들은 뛰쳐나갔어, 막 못 나가게 해도, 나갔던 애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등경기장 너머까지 그 차를 따라갔었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기 다닐 때 그런 일이 있어서 공장 기계가동을 멈추고 다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여공들을. 집에도 못 갈 형편인 애들은 기숙사에 남아 있었고.

집이 바로 회사 앞이다 보니까 내다보면 식당 아줌마들이 주먹밥 같은 것을 해서 정문 앞에 놔두고 국 같은 것도 퍼주고 하는 것이 보였어요. 또 헬리콥터로 뼈라를 뿌렸는데 “지금 폭도들이 다니니까 전부 집으로 들어가라”고 했고, 아세아자동차에서 차를 갖고 나와서, 그런 차들 택시 할 것 없이 빵빵거리고 다니면서 “전두환이 물러가라 좋다 좋다”하고 구호를 했는데 동네 사람들이 과일 같은 것을 차에 얹어주는 모습도 봤어요. 엄마는 내가 귀한 딸이라 나가서 죽을까 봐 절대 못 나가게 했는데, 나갔던 친구가 공수부대 만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남대 있는 데서 돌멩이를 주워 옷에 싸서 전대생을 쫓는데 공수부대원들이 총끝에다가 칼을 매달고 “너 이년 죽여 버린다”고 목에다가 들이대더라. 그래서 벌벌 떨고 있는데 마침 높은 사람이 와서는 “그냥 보내라” 해서 살아서 왔다고. 또 5월 17일에는 친구들과 함께

로 ‘비원’에서 만나기로 해서 수창초등학교 뒤를 지나는데 공수부대하고 맞붙어서 난리가 났어요. 겁도 없이 지나고 있었는데 어떤 아줌마가 가지 말라고 잡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학생인지 시민군인지 모르겠는데 나 있는 데로 막 뛰어오는 거예요. 뒤를 보니까 군인들도 뛰어오고. 놀래가지고 집으로 막 달려와 버렸어요. 또 전남방직 앞쪽에서 부산 화물차를 불태웠던 적도 있었어요. 집 앞이긴 해도 나는 자꾸 밖에는 나가봤어요. ‘언제쯤이나 공장 일을 다시 시작할라나’ 궁금하기도 했고.

월급은 부모님한테도 드리고 적금도 넣고

월급은 부모님한테 그냥 다 드렸어요. 번 것을 부모님한테 다 갖다 보이는 그런 재미가 있었죠. 연세 든 노인분들이라 굉장히 고마워했어요. 일신방직 근무했을 때 월급은 다 부모님께 갖다 드렸고 전남방직으로 오면서는 내가 일정 부분 월급을 직접 관리하기 시작했어요. 결혼자금도 준비하고 싶었고. 그때는 엄마가 길에서 인형 파는 일을 조금씩 하셨기 때문에 ‘이제 조금 덜 드려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적금을 넣었어요. 월급은 처음에 이만원이 조금 넘었던 것 같은데 일하면서 조금씩 올라갔고, 한 이만 팔천 원까지 받았던 것으로 기억해요. 그래서 한 삼년짜리 적금 넣고 나머지는 또 엄마 갖다 드렸어요. 한 삼년에 이백이나 삼백만 원 정도 만들어지는 것을 넣었을 거예요.

결혼할 때쯤에는 월급이 더 올라서 한 육만 원 정도나 됐을까. 사실 기숙사 생활을 했기 때문에 식비 조금 낸 것 빼고는 돈 쓴 것이 별로 없어요. 협동조합이라고 해서 물건도 살 수 있었는데 그건 바로 월급에서 빠져나가니까. 회사 안에 농협인가 수협인가 있어서 거기다 적금 넣고. 그때 이백사십만 원인가 모아가지고 결혼했던 것 같아요.

애를 낳고 직접 미역국을 끓였던 시절

남편은 순창사람인데 광주 와서 살다가 만나게 된 거예요. 외가쪽 사촌 형부가 통장이어서 동네일을 봤는데, 사람이 부지런하고 좀 괜찮아 보인다고. 중매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결

혼했어요. 그냥 너무 직장생활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그런데 나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이어서 참 힘들었어요. 스물네 살에 이제는 편안하게 조금 놀아보려고 결혼했는데……

신혼집이라고 해봤자 상하방 월세였어요, 그때 그 사람도 워낙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예단 같은 것은 한복 정도 맞췄고 양장 한두 벌 정도, 패물은 반지, 시계, 목걸이로 세 가지 했고 시부모님 이불하고 방석을 해서 갖다 드렸어요. 신혼여행은 아버지 고향인 목포로 갔고. 배를 타고 어느 섬인가를 들어갔다가 서너 바퀴 돌고 나와서 목포에서 하루 저녁 자고 다시 올라왔던 것 같아요. 돈 좀 있고 하는 사람들은 제주도로 신혼여행도 가고, 강원도나 속초 같은 데로 신혼여행 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우리는 그냥 아버지 고향, 호텔도 정하고 간 것이 아니어서 그냥 아무 여관쯤이나 되는 데서 하루 잤어요. 물론 다른 친구들이 하는 것에 비교해보면 섭섭한 점도 있었지만 워낙 없이 살다 보니까 그런 것을 요구할 만한 상황도 못 됐고. 임동에서 첫 살림집을 살게 됐는데 사는 게 너무 힘들었어. 결혼하고도 부모님한테 좀 잘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렇게도 안 됐고. 신랑도 부모님한테 별로 잘하지 못해서 다툼도 많이 있었어요.

스물네 살에 결혼해서 스물다섯 살에 아이를 낳게 됐어요. 큰애가 딸인데 병원에서 낳지도 못하고 백운동 조산소에서 낳았어요, 싸니까. 그리고 아기 낳자마자 바로 집으로 왔어요. 또 둘째 낳을 때도 병원을 세 군데 정도 들렀는데 신랑이 비싸다고 싫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서운해서 “그냥 집에서 낳겠다” 하고 고집을 부려서 집으로 다시 되돌아와 버렸어요. 결국 집에서 낳기로 결정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낳자를 잘못 짚어가지고 일찍 오신 거예요. 시어머니는 신랑 친어머니 돌아가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이는데 그래서 그때 나이가 서른여덟밖에 안 됐어요. 게다가 애들을 셋이나 데리고 올라왔어. 애들이 아홉 살, 일곱 살, 세 살 그렇게 먹었는데 그 애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결국은 잘못 짚은 한 달 동안 내가 애들까지 다 밥을 해 먹이게 된 거지. 그러다가는 어머니가 미안했나 봐요. “너, 배 많이 아프면 전화해라” 하고 한 달 만에 내려가셨는데 그러고 나서 딱 이틀 만에 막 또 배가 아픈 거야. 그때는 애들을 안 데리고 혼자 오셨어요. 그런데 조산소에서 낳은 것하고 어머니가 받아주는 것하고 뭔가 다르긴 달랐나 봐요. 애는 이미 나왔는데 배가 계속 아파. 그리고는 새벽에 보니까 웬 핏덩이가 풍덩 빠지는 거예요. 그거 안 빠졌으면 나 아마 죽었을 것 같아, 지금 생각하면.

남편이 당시에 음료 배달일을 하면서도 고물상 같은 것도 했거든요. 백 평 정도 되는 터에다가 고물 같은 것을 막 쌓아두고 살았고 그 옆에 집을 지었어요. 그냥 대충 짓다 보니까 집

도 좁고 화장실은 완전 난장판이었어, 그냥 나무로 대충 붙여놓은. 십이월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눈보라 치는 날 화장실에 가서 앉아있으면 그 앉은 대로 굳어버려요. 일어서려고 해도 안 일어나져. 손도 얼어서 안 펴지고 그랬어요. 첫 아이 때는 양력 유월 일일이라 좀 따뜻할 때라 몰랐는데 둘째는 겨울에 낳다 보니까 몸조리도 안 되고 집도 추워서 진짜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도 며칠 동안 수발해주는 것도 없이 그냥 가셨는데 신랑도 뭘 해주고 그런 것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내가 아침에 직접 미역국 끓여 먹었어요. 애를 봐주거나 그런 것도 모를 때고 그냥 여자만 애를 키우는 줄만 알았어.

시아버님은 새어머니하고 아주 산골에 살았는데 애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한 번씩 광주에 왔어요. 시부모님은 순창에 사셨는데 남편도 엄마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려서 좀 불쌍하게 컸더라고요. 나 출산 때 그 어머니는 새로 얻으신 분이었어. 그런데 귀가 짹 먹어가지고, 뭐 세 살 때 물에 빠져가지고 고막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도 잘 못 알아들으셔. 말을 아주 크게 하거나 아니면 등을 두드려가지고 입 모양으로 알아들었는데 사람은 참 좋았어요. 그리고 나이가 나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났어. 시어머니가 내가 시집갔을 때 서른여덟 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때 애들이 어리더라고요. 커가면서 자기 엄마는 말을 잘 못 알아듣고 하니까 시동생들이 나를 더 잘 따르더라고요. 검정 고무신을 신고 광주를 오면 내가 운동화 사주고 옷도 사 입히고 이발도 다 시켜주면 애들이 그렇게 좋아했어요. 시어머니도 머리 파마시켜드리면 그렇게 예쁘더라고요, 젊은 각시니까.

한 달 사이로 부모님을 보내고

두 분이서 늘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자네가 죽으면 나 데리고 가고, 내가 죽으면 자네 데리고 간다”고. 만날 “서로 빨리 데리고 가자”고……. “애들 고생시키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정말 돌아가실 때도 한 달 사이로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맨 처음에는 엄마가 중풍으로 쓰러지셨는데, 제사 지내고 아침에 설거지하고 들어오시다 쓰러지셨거든요. 뇌출혈이었어요. 그래서 한 오년 정도 한쪽이 마비된 채로 집에서 지내셨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도와주시기는 했겠지만 수발을 잘하진 못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는 중풍으로 한쪽을 계속 못 썼고 한 손으로만 일을 다 하셨어요. 워낙 부지런한 분이더라. 이렇

게 먼저 아프신 건 어머니였는데 어느 날은 아버지 몸에 갑자기 피부병처럼 온몸에 열꽃이 피었어요. “왜 그러시냐?”고 했더니 “아이 나 죽겠다” 하시면서 옷을 막 벗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업고 요한병원까지 갔어요. 아버지는 풍채가 좀 좋으셨는데 내가 업고 가다가 막 쓰러 지기도 했죠. 겨우겨우 병원 앞까지 모시고 갔는데 거기서 천주교 신부님들이 나와서 보시고는 놀라면서 휠체어 같은 것을 가지고 나와서 모시고 들어가셨어요. 그때 입원해서 좀 괜찮아졌거든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완전히 악화가 되셔서 또 다른 병원에도 좀 입원하셨는데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아버지가 집으로 가고 싶다고 하셔서 그렇게 했는데 집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늘 “내가 너 결혼한 것을 보고 죽어야 원이 없겠다. 둘 다 이렇게 놔두고 죽으면 누가 결혼을 시키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중매로 결혼을 서둘러서 한 것이었어요. 결혼하고서 부모님한테 정말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게 안 되고 이상하게 신랑하고 좀 다툼이 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임종 날에도 “싸우지 말고 살아라” 그러면서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대요, 안 돌아가시고. 그런데 신랑이 오니까 손을 잡고 제발 나하고 “싸우지 말고, 좋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신랑이 “알았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하니깐 막 그 말을 듣고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도 눈을 못 감으셔. 그래서 내가 눈을 손으로 몇 번 쓸어드리면서 “아버지,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했더니 그대로 돌아가시더라고요. 또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어머니는 이상하게 계속 잠만 주무셨어요. 집에 가서 “엄마, 나 왔어” 그러면 “어, 왔냐” 그래놓고 또 주무셔. 그게 지금으로 말하자면 잠 치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달 새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도 아버지처럼 내가 그렇게 안 잊혔는지 아버지 유언 같이 “잘 살아라”고 하시더라고요.

엄마 돌아가시기 얼마 전, 굴 무침을 엄마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애기를 업고, 또 연년생이라 하나는 걸리고 가야 돼. 두 분이 누워계신 상황이라 애를 맡길 수도 없고 그래서 “엄마, 내가 다음에 와서 해줄게” 그랬는데 결국 못 해드렸어요. 항상 그게 그렇게 마음이 아파요. 또 엄마가 생선을 자주 줬는데 나는 엄마가 머리만 좋아하는 줄 알았어요. 살은 항상 나한테 주고 엄마는 머리만 드시니까 ‘우리 엄마는 머리만 좋아하는가 보다’ 하고 생각한 거지. 그래서 “엄마, 엄마 이거 좋아하잖아” 하면서 내가 줬더니 엄마가 “이놈 새끼야, 내가 머리를 좋아서 먹냐. 느그 줄라고 살을 바르고 그냥 아까우니까 내가 머리 먹는 거지” 그러시더라고요. 살아가면서 내가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때 그랬구나’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내가 결혼하고 나서는 동생도 졸업하자마자 부모님을 모시느라고 엄청 고생했어요. 납부금을 못 내서 졸업을 못할 형편이었는데 마지막 한 번은 선생님이 납부금을 내줘서 졸업장을 받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동생은 고등학교 졸업을 하자마자 직장에 들어갔어요. 나는 결혼해 버린 상황이었고. 그 전까지는 내 월급으로 부모님과 동생까지 생활비를 썼죠. 그런데 내가 결혼을 해버리니까 형편이 더 어려워졌어요. 엄마 아버지는 그렇게 많이 아프시고. 또 내가 아기들을 막 낳아서 키우다 보니까 엄마 아버지 생각할 시간도 없이, 정신도 없이 그냥 살았어요. 항상 마음은 있는데 결혼생활할 때 내가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생각대로 부모님한테도 못 해줬고. 그래서 항상 그것이 마음이 아파요. 젊었을 때 나를 키워가지고 좀 더 오래 사셨으면 내가 잘해드릴 수 있을 건데, 그렇게 일찍 돌아가셔서. 나도 스물여덟이니까 뭘 알겠어, 아무것도 모르지.

꿈에 그리던 집을 사고

우리집에서 지하수 받아서 애를 씻기면 하얗게 위로 뭍이 묻은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앞집에 가서 수돗물을 얻어다가 아기만 목욕을 시키고 그랬어요. 우리집에는 전기도 없었는데 그 앞집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는 냉장고도 돌리지 않고 애들 키우면서 살았는데 앞집에 수돗물 받으러 가보면 그 집이 그렇게 좋아 보여서 ‘이런 대문이 있는 집만 있어도 내가 너무 좋겠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집이 우리집이 됐어요. 열심히 살다 보니까 정원도 있는 그 집을 우리가 사게 된 거예요. 큰애가 유치원 들어가기 전예요. 맞벌이를 하면서 큰 애를 아주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에 보냈는데 하루는 애가 “엄마, 친구들이 우리 집을 양철집이래, 종이집이래”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 엄마가 나중에 좋은 집 살게” 그랬는데, 우연히 옆집에 온 것을 봤어요. 집을 내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우리가 한참 사업이 잘될 땐데 보험을 털고 어찌고 해가지고 그 집을 우리가 사게 됐네요. 그래서 거기서 애들을 유치원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했어요. 너무너무 좋았죠. 애들도 좋아하고 너무너무. 그때는 진짜 좋대요.

살림을 일으켰던 성도공병 시절과 그 후

남편은 공장에서 음료수를 받아다가 슈퍼 작은 곳에 배달해주는 일을 했어요. 그냥 유통만 할 때는 힘들었는데 차차 빈 병을 많이 수집하게 됐고 신안동에서 수거된 빈 병을 각 회사대로 분류를 해서 되파는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튼짜리 차를 갖고 일을 할 때도 있었어요.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애들은 유치원 보내놓고 병을 고르는 작업을 직접 했어요. 그러다가 사람도 사서 분류를 했고, 남편하고 공병을 팔러 공장에 들어갈 때는 내가 따라가니까 나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젊은 사람이 저렇게 생활력이 강하다”고. 한번은 시동생이 택시를 타고 ‘성도공병’에 가자고 하니까 택시기사가 거기를 어떻게 아느냐고 묻더라고. 그래서 우리 형님집이라고 했더니 “그 형수 대단하다” 하면서 내 이야기를 하더라고. 내가 사업하는 머리가 좀 있었던가 봐요. 저녁이면 오리 한 마리를 사거나 뭐든 사서 무조건 든든히 끓여놔요. 큰 술에 밥도 해놓고. 그러면 유통업체 해태나 코카콜라 쪽 사람들이 와서 밥을 먹고가요. 그러면서 자기 것이 아닌 것도 받아다 주고. 그 시간이면 굉장히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폭 끓이던 것을 한 그릇 퍼주고 다른 반찬도 필요 없이 밥 한술 나눠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집으로 다들 몰려들었어. 공병집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집은 차들이 많이 밀려가지고 줄을 서서 기다리고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돈을 잘 벌어서 한 달에 백이십만 원씩 적금도 넣고 그랬지.

성도공병을 운영하면서 ‘내가 다음에 이 일을 그만뒀을 때는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그 일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깨끗한 직업도 갖고 싶었고 나도 기술을 배워둬야 할 것 같아서. 그래서 유동에 있는 현대미용학원에 갔어요. 거기서 자격증을 따고 그 동네 옆에 가서 미용보조일을 했어요. 실습도 끝나고 나서는 매곡동에 미용실을 차렸는데 ‘중사’라고 일을 좀 잘하는 애를 들였어요, 내가 서투니까. 그런데 한 삼년 정도 일하다 보니 집이 멀어서 좀 힘들더라고. 다시 임동으로 와서 차고 자리에다가 가게를 차렸어요. 집에서 한 오년 정도 미용 일을 했죠.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90년도 넘어서 성도공병 상황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납품 문제였는데 이전에는 누구든 납품이 가능했던 것을 병을 납품받는 회사에서 지정한 사람에게만 가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를 거쳐서 가니까 마진율이 안 좋아져서 그만할 수밖에 없었어요. 미용실을 잠시 차려서 해봤지만 가게 운영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더라고. 성도공병을 그만둔 남편은 트럭을 가지고 농수산물 중개일을 하게 됐어요.

저도 ‘그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다’ 싶어서 미용실 문을 닫고 차라리 직장생활을 하려고 일신방식으로 들어갔죠. 모집한다는 말을 듣고 갔더니 예전 근무 당시에 과장인가 했던 분이 공장장으로 계시더라고. 그분이 우연찮게 나를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낮에만 하는 일을 한 삼년 했어요. 그때는 소면이라고 기계를 보수하는, 기계를 고치는 남자분들 하고 같이 일을 했어요. 남자분들이 네 명 있고 나 한 명. 그때는 그렇게 낮에만 일을 했죠. 그러다가 광양의 지인이 포스코 협력업체에서 건설직 일꾼을 구한다고 하니까 직장생활을 해보자고 했어요. 애들은 광주에 집을 얻어주고 광양으로 둘이 내려갔죠.

병을 이겨내는 아들과 친구 같은 딸

어느 날 아들이 화장실에서 다급히 불러 갔더니 피 냄새 잔뜩 나는 빨간 소변을 보여 주더라고. 그래서 전남대병원으로 갔는데 고등학교 삼학년이라 입원을 못 시키겠더라고. 아들도 아프진 않다고 입원은 안 한다고 했고. 결국 약만 받아가지고 왔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무렵에 너무 안 좋아져서 내가 신장을 쫓았어. 식구들을 하나하나 맞는지 검사해보자고 했는데 남편은 당뇨가 조금 있었거든요. 이식을 하는 동안에는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해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배려로 한 방으로 옮겨서 생활하다가 같이 퇴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집에 와서는 나도 수술 받은 환자인데 내가 서서 아들



미용실 운영 당시 건강하고 해맑았던 아들

반찬을 다 해주게 되더라고. 하루는 친구가 와서 “너도 아픈데 그렇게 반찬을 하나”고 했어요.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였는데도 자식이 아프니까 내가 환자라는 것을 그렇게 잊

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수술이 잘못됐는지 어쨌는지 일년 조금 있다가 나중에 다 떼어버렸어요. 아들하고 딸이 함께 지내라고 쌍촌동에 아파트 하나 얻어주고 나는 광양에 살아서 몰랐어요. 내가 걱정할까 봐 말을 못했는데 아들이 그동안 몇 번 길에서 쓰러졌었다고 하더라고요. 도저히 안 되겠다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신장을 못 쓸 것 같다고 그냥 떼어내고 다른 신장이식을 바로 신청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들이 두 번 다시 남의 신장을 안 받고 싶다고 차라리 투석을 하겠다고 했어요. 왜냐면 신장이식을 하면 약을 한 주먹씩 먹어야 하니까. 그런데 투석을 하면 약을 별로 안 먹어요. 아들이 신장을 다시 떼어낸 때가 대학생 때였는데 학교 다니다가 군대도 가게 됐어요. 키가 백팔십이센티에 체구도 좋았거든요. 그런데 휴가 나올 때가 한참 지나서야 겨우 만나보니 얼굴이 못 알아볼 정도로 너무 못쓰게 됐어. 그래서 물었더니 공병부대로 빠졌는데 시멘트 가루 독이 얼굴로 퍼져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새카맣게 변하면서 신장이 막 안 좋아진다는 것을 느낄 정도였다고 해요. 처음에는 일을 잘한다고 상도 받고 그랬다는데 나중에는 몸이 너무 안 좋아지고 얼굴도 그러니까 거기서 함부로 휴가를 못 내보냈나 봐요. 휴가 온 김에 전대병원에 검진을 가봤는데 “어떻게 이런 애가 군대를 갔냐”고 그래요. 결국 국군통합병원에 가서 육개월간 입원해 있다가 의가사 제대를 했어요.

아들은 신장을 떼어 내고 투석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막 울면서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들한테 “엄마가 이런 말 하면 너무 이기적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투석을 하면서 산다고 생각을 해버려. 너만 그러는 거 아니고. 병원에 가면 투석하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다 투석하면서 산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러면 네가 그렇게 속상한 마음은 줄어들 거야”라고 했더니 조금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담양에 시골집을 한 채 사줬어요. 거기서 살라고. 그런데 젊은 애라 너무 답답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차를 한 대 사주면서 “아들, 이것을 날개 삼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해봐” 했어요. 차도 없이 시골에서 지내고 있으니까 애가 점점 더 심각해지길래. 원래 해외로 다니는 여행 가이드가 꿈이었는데 그것도 포기했다가 차를 한 대 빼줬더니 호텔에 취직도 하고 거기서 며느리도 만났어요. 아들이 아픈 것을 알면서도 결혼을 하고 지금 애기 낳고 그렇게 잘 살고 있네요. 일주일에 세 번씩 투석한 지 벌써 팔년 정도 됐고 한 번 하면 다섯시간씩 걸려요. 며느리가 어떻게 보면 봉사하고 사는 거죠.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그런 것 같아. 항상 며느리

한테도 그렇고 사돈한테도 죄스러워요. 나도 고생하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것만큼은 해결이 됐어요. 나한테 손주도 안겨주고 그래서 항상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아들은 가장이 되고 나서 힘든 내색도 안 하고 더욱 생활력이 강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 아픈 것을 이야기하면 못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도 아픈 기색 안 하고요. 그래서 내 마음도 많이 편해져서 그 덕에 이제 하고 싶은 것하고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아프다고 하고 그냥 우울해 있으면 나도 그럴 건데, 아들하고 딸이 열심히 잘 살고 있으니까 더할 나위 없이 좋아요.

그리고 딸은 내가 신경을 안 써도 뭐든 잘 알아서 하는 아이였어요. 대학 다닐 때도 낮에는 도서관에서 근무를 했고 큰 딸로서 굉장히 든든하고 나무랄 데 없는 아이였죠. 나름대로 동생 아픈 것을 보고는 빨리 공무원이라도 돼서 엄마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나 봐요. 학원에 다니면서 경찰시험을 준비했는데 시험을 보면 꼭 커트 라인에서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한 이년을 공부하다가 그냥 취업을 결심했어요. 동생은 아프고 엄마는 정신이 없으니 딸도 힘들었나 봐요. 딸은 사춘기도 없이 지냈는데, 아마 그 시기가 사춘기처럼, 한때는 우울증에 걸려서 힘들어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하이마트 인사과에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그리고는 팔 년 전에 결혼해서 애도 낳고 지금 직장으로 옮기기도 했어요. 여성일자리센터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제가 한 이년 가까이 애를 봐줬는데 요즘은 참 좋아요. 싸웠다가 빠지기도 하는데 친구처럼 잘 지내요.

내 인생의 디딤돌이었던 방직공장

나한테 방직공장은 첫째로는 우리 부모들한테 뭔가를 가져다줄 수 있는 큰 보람이었고, 둘째로는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준 친구들을 만난 곳, 그래서 좋은 관계, 좋은 기억을 만들어 준, 말하자면 디딤돌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방직공장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면 집안 살림도 살기 어려웠을 것이고 동생도 학교를 못 다녔을 텐데 거기 다니면서 그래도 엄마 아버지가 조금 더 낮게 살았고 또 동생도 학교를 다닐 수 있었고, 또 나도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거기에서 배웠던 지식과 생활 지혜 같은 것이 지금 나를 이렇게 더 단단하게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애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었다면, 나는 거기에서 서로 사람들하고

나누는 정도 배우고, 또 사회생활에서 내가 지켜야 할 직장의 원칙이랄까. 직장에 다니는 그런 방법, 사회생활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거기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지금 다니는 학교에서도 사람들에게 “사회성이 좋다”, “뭔가 운영도 잘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어요. 물론 어린 나이에 다리가 튼튼 붓도록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일을 해야 하긴 했지만 정말 나한테는 디딤돌이라고 봐야죠.



전남방직 재직 당시 동료의 퇴사를 기념하며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짱'한 일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내가 무슨 자서전을 쓰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진짜. 나는 언젠가는 꼭 내 자서전을 써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 나같이 사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늙은 부모님한테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살아온 과정이 그렇게까지 했

을까. 다른 사람들은 부모님들은 젊었겠잖아요.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자서전 연습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도 광양제철 협력사에서 구년째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늦깎이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순천연향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에서 삼년을 공부하고, 올해 순천고 방통고에 일학년 다니고 있어요. 공부를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요, 공부를. 정말로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세상이 이렇게 좋아져가지고 공부할 기회가 다시 온다는 것을 생각도 못하고 지냈는데 공부하게 돼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것이 '짱'한 일이에요. 다시는 공부를 못할 것 같은 생각, 우리 배움은 이렇게 그냥 끝나나보다 했는데 배움의 길이 또 있으니까.

살면서 제 희망은 이렇게 욕심 안 부리고 내 앞에 놓인 그 상태대로, 남한테 봉사할 수 있으면 봉사하고. 지금 또 이렇게 시대가 좋아져서 뭐든지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세상이 됐으니까, 이제 남은 것은 그것밖에 없어, 내가 봉사할 수 있는 것은 봉사하면서 살고 싶다고. 어떤 욕심도 없고 내 주어진 대로 봉사하면서 그냥 나라에 할 수 있는 그런 일은 다 하면서 살고 싶어요, 건강하게.



광주여성구술채록단과 인터뷰를 하면서 앨범의 사진에 대해 설명하는 김옥희

생애연보

- 1959년(1세) 전남 무안군 삼향면 석현리에서 손이 귀한 부잣집 4대 독자 집안에서 맏딸로 태어남
- 1960년(2세) 광주 북구 임동 전남방직 부근으로 부모님과 함께 이주
- 1965년(7세) 북구 임동 소재 서림초등학교 입학
- 1966년(8세) 여동생 출생
- 1971년(13세) 초등학교 졸업. 중앙여중(당시 서구 양동 소재) 입학, 중퇴
- 1972년(14세) 북구 유동에 있는 풍광빵 공장에 들어가서 1년 3개월 간 일함
- 1974년(16세) 만15세에 남의 이름으로 일신방직 입사.
- 1977년(19세) 몸이 좋지 않아 가을에 일신방직 퇴사
- 1978년(20세) 3개월 쉬다가 봄에 전남방직 입사
- 1982년(24세) 전남방직 퇴사 후 유통업을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
- 1983년(25세) 남구 백운동 조산소에서 딸 출산
- 1984년(26세) 아들 출산
- 1986년(28세) 한 달 간격으로 아버지, 어머니 별세
- 1988년(30세) 미용기술을 배우기 시작.
남편과 성도공병 운영하면서 6개월 만에 미용사 자격 취득
- 1993년(35세) 1년 간 미용 실습 후 북구 매곡동에 미용실 개업
- 1997년(39세) 미용실 폐업
- 1998년(40세) 일신방직 낮 근무 시작
- 2001년(43세) 광양으로 이주
- 2012년(54세) 광양 포스코건설 협력사 입사. 9년째 근무 중
- 2018년(60세) 순천연향중학교 부설 방송통신중학교 입학
- 2021년(현재) 순천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



김복자

공순이라고 놀림받아도
가족 위해 자존감도 버리고
여자라는 것도 버리고



공순이라고 놀림받아도 가족 위해 자존감도 버리고 여자라는 것도 버리고

생애 개요

김복자는 광주광역시 동구 산수동 고두메마을에서 태어나 양동 발산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당시 발산마을은 광주에서도 가난한 동네에 속했으며 양동 천변에 설치된 뽕뽕다리를 건너 일신방직, 전남방직으로 일하러 가는 공장 노동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기도 하다.

정이 많고 성품이 넉넉한 아버지와 앞장서서 마을 일도 도맡아 하시고 논리적이었던 어머니, 위로 오빠를 둔 2남3녀 중 장녀였다. 김복자는 태어난 뒤로 아버지 일이 잘 풀려서 “우리 복자는 복덩이”라며 아버지께서 매우 예뻐하셨다. 동네에서 유일한 기와집에 살았지만 가정형편이 날로 어려워져 동신여고 삼학년 이학기 때 자퇴하였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뒤, 아이스크림 공장, 어망 공장, 인천의 아남전자 부품공장 등 여러 일자리를 전전하다 일신방직 공장에 우여곡절 끝에 입사하였다. 고등학교 때 친구가 일신방직 공장에서 여공을 모집한다고 해서 친구와 같이 면접을 보러 갔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는데 키가 크고 체력도 좋아야 하는 체력검사를 겨우 통과하였다.

입사 후에는 15~20kg 솜뭉치를 동그랗게 말아 기계에 넣어주는 작업을 했다. 큰 고무통에 솜뭉치를 싣고 다니는 일은 체력소모가 엄청난데다 솜먼지가 날리는 환경에서 작업을 해야 하는 힘든 일이었다. 그러나 노동을 해서 받은 월급이 가족들의 생계에 보탬이 된다는 생각에 어렵고 힘든 일도 참았고 정말 열심히 일했다.

공장일을 하면서 오빠 친구의 권유로 가톨릭청년노동자회 모임에 참가하였다. 이 모임과 가톨릭 입교를 통해 노동자들의 삶의 의미와 가치관 형성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공장에서도 동료들에게 가톨릭청년노동자회의 가치를 나누고자 노력하였다. 방직공장 퇴사 후 가톨릭청년노동자회 간사로 일하던 중 5·18 민주화운동을 맞았다. 친구가 결혼식을 하던 날이었다. 5·18은 모든 시민이 벌벌 떨 정도로 온통 공포와 불안감이 가득하였다. 가톨릭청년노동자회 회원들은 광주에서 일어난 비참하고 비극적인 진실을 전국에 알리고자 노력했으며 함께 봉사했던 동료의 어이없는 죽음도 겪었다.

스물일곱, 늦은 나이에 결혼하면서 간사직을 그만두었고 1남 1녀를 낳았다. 결혼생활은 그리 평탄하지 않았고 가정형편도 여유롭지 않았으나 보험, 세신사, 피부관리 등을 하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많은 어려움과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과 가톨릭 신앙의 영향이었다고 생각한다.

한때 참을 인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지금은 늘 베풀어 주는 자연과 건강한 가족들에게 감사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다.

유년 시절 산수동 꼬두메 마을의 추억

제 이름은 김복자예요. ‘우리집 복덩이’라고 아버지가 지어주셨대요. 내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월급도 오르고 좋은 일이 많이 생겼나 봐요. 나는 1955년 9월 26일 광주 산수동 꼬두메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위로는 오빠가 한 명 있고 아래로 남동생 한 명과 여동생이 둘 있어요. 2남 3녀 중 장녀인 거죠. 아버지는 그때, 지금은 이전했지만 동명동에 있던 형무소에서 교도관으로 근무하셨어요. 아버지가 절 무척 예뻐해주셨죠. 퇴근 때마다 맛난 걸 사 오셔서 차고 있는 저를 깨우시곤 했는데, 그게 좋고 먹고 싶으면서도 선뜻 일어나지 못할 만큼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였죠.



아버지의 형무관 시절로 막내 여동생이 태어나기 전이다.

아버지는 인자하시고 순하고 사람들을 따뜻하게 대하던 분이셨고, 엄마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엄하고 강하셨습니다. 마치 대장부 같은 기질에 집안 대소사는 물론이고 동네일도 도맡아 했어요. 그래서 양동 발산에서도 우리 엄마를 ‘호랑이 엄마’라고 불렀어요. 아무리 곤란해도, 그때는 미친 사람도 많고 동냥치도 많았지만 오면 밥상 차려 대접했고, 동치미 같은 것도 많이 담궈서 다 나눠주고 바느질도 해주고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빠 친구들도 날이면 날마다 우리집으로 왔어요. 풍족하지 않았어도 시래기죽 끓여 먹고 그랬어

요. 꼬두메마을에서는 여섯 살 때까지 살았지만, 거기에서 추억들이 잊히지가 않아요. 좌우에 논밭이 있는 마을이었는데 아마 현재 산수동성당이 있는 위치쯤이 아닐까 싶어요.

어느 때부터가 아버지가 교도관 일을 그만두고 장사를 하셨어요. 어머니와 함께 장사를 하셨기 때문에 두 분이 자주 집을 비우셨죠. 이른 새벽에 나가 밤늦게야 돌아오시곤 했거든요. 그때는 여동생들이 태어나기 전이라 오빠, 나, 남동생만 있었는데, 세 살 터울인 여덟 살 오빠가 거의 우리를 돌봐주다시피 했죠. 먹을 것도 챙겨주고 같이 놀아주고 집안일까지 했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부터 오빠는 우리 형제들에겐 오빠 이상으로 역할을 해주었지요. 오빠가 밥을 하면 태울 때가 많았어요. 무등산에서 주워 온 나무 땔감으로 아궁이에 불을 피워 직접 밥도 했거든요. 그나마 위에 타지 않은 밥은 나와 동생을 먹이고 자신은 까맣게 탄 밥을 먹곤 했죠. 밤이 되고 캄캄해지면 오빠는 우리가 무섭지 않도록 가운데 누워 한쪽 팔엔 동생을 또 다른 팔엔 나를 눕게 하고 재밌는 얘기를 해주거나 노래를 불러주곤 했는데 그 따뜻한 마음과 기운이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풀벌레 소리가 높아지고 달빛이 짙어지면 오빠는 일어나 하나밖에 없는 큰 이불을 방에 짹 펼쳐요. 방의 온기가 식지 않도록요. 그리고 얼마쯤 되면 달빛에 의지해 동생과 나를 앞세우고 부모님 마중을 나갔어요.

깜깜한 밤 동구 밖 황토 언덕길을 타박이며 걷는 어린 세 남매. 저는 어둠이 무섭기도 했지만 뒤에 오빠가 있다는 든든함과 곧 엄마를 만나리라는 설레임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얼마큼 걸어 어둠에 잠긴 숲이 시작되는 지점에 이르면 멈춰 서서 숨죽이며 부모님을 기다리곤 했죠. 그러다 타박타박 발소리와 함께 어머니 아버지 그림자가 나타나면 얼마나 반갑던지…… 우리 세 남매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마치 몇 년 만의 상봉처럼 달려가 어머니 아버지 품에 안기곤 했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허름했지만 브로크 담과 양철대문의 기와집

내가 일곱 살 무렵, 아버지가 친척 소개로 일신방직에 취직이 되었어요. 우리는 아버지의 직장과 가까운 양동 발산이라는 마을로 이사를 하였고요. 그때 발산마을은 초가지붕과 움막집 판자집이 대부분일 만큼 낙후된 동네였어요. 그래도 우리집은 허름했지만 브로크 담과 양

철 대문을 한 기와집이었어요. 마당에 뽕뿌샘⁵¹이 있어서 동네 사람들이 조석으로 우리집 샘물을 사용할 만큼 정을 나누며 살았죠. 좁은 골목 옆으로 판자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깡패, 양아치들도 많았고요. 뭘, 저의 사촌, 오촌 언니들도 방을 얻어갓고 살았는데 전부 다 판잣집 구멍 구멍마다, 아무튼 사람 몸이 들어갈 수만 있으면 사람이 살았죠.

마을 건너편에 전남방직과 일신방직을 연결해 주는 뽕뿌다리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그 쪽방 거기에 시골에서 올라온 전남방직, 일신방직 여공들이 다 살았어요. 그래서 그 회사 다니는 언니들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 언니들이, 일은 힘들어 보였지만, 일한 돈으로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데서 굉장히 밝았어요. 월급을 제대로 받았으니까, 정식으로. 그때는 여자들이 회사에 다닐 수 있는 기회가 없잖아요. 또 일반 큰 회사도 다닐 수 없었고. 그 여공 언니들이 그때 나를 엄청 예뻐하고 인사하고 그랬는데 속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부끄러워서 생콩거리며 고개 돌리고 외면하고 그랬어요.

공부하랬지 누가 썩 캐 오랬나

1966년 아버지가 갑자기 일신방직에서 강제 퇴임을 당하게 돼요. 엄마는 늑막염을 앓고 있었고 여동생도 이름 모를 병에 걸려 극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아버지마저 직장을 잃게 된 거죠. 그때부터 부모님은 온갖 모진 일을 하셨죠. 그 하천변, 광주 천변에 있는 자갈을 파서 체에 걸러 그 자갈을 판 돈으로 살기도 하고, 또 그러지 않으면 실을 엮어서 노끈을 만들어 팔기도 하고. 푸대(부대, 자루)를 만드는 노끈이에요. 말하자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죠. 그것뿐만 아니라 떡장수, 바구니장수, 이불장수 외에도 많은 일을 했죠. 하남에 있던 조상님 산소 옆 개간지에다 수박과 참외, 무 농사를 지어보기도 했는데 하필 가뭄이 들거나 한해로 모두 망쳐서 남의 손에 다 넘어가고요. 그나마 몇 푼 가지고 오다 버스에서 소매치기를 당해 몽땅 잃어버렸대요. 우리 등록금 줄 거였는데……

그래도 우리는 열심히 자랐고, 저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구열 높은 어머니 덕분에 수피아여중에 입학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를 학교에 보내는 것을 우선으로 여겼거든요.

51 펌프를 이용하여 지하수를 끌어올리는 샘.

양림동에서 수피아여중까지는 차비도 없어 걸어 다녔어요. 아마 걸어서 한 시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고등학교는 수피아여중에서 수피아여고로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일부러 신설학교인 동신여고를 간 거예요. 신설학교라 장학생을 많이 뽑는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장학금은 받지 못했어요. (웃음) 동신여고도 역시 한 시간 이상을 걸어 다녔어요. 새벽에, 네시에 일어났어요. 부모님이 장사로 집에 안 계시니 큰 딸인 제가 아침을 했거든요. 먼지투성이인 솜가루 땀감⁵²으로 아침을 지어서 동생들 먹이고 등교하면 종종걸음을 쳐도 맨날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쩌다 친구들이랑 어울려 학교를 오가는 순간들이 생기면 너무 좋았죠. 지금도 그때 친구들이랑 연락하고 지내요.

마을에서는 우리집만 가방을 들고 교복을 입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있었던 거 같아요. 오빠도 조대⁵³ 오년제 전문대에 다니고 있었고, 나는 고등학교에 남동생은 중학교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교복이라 해도 정상적인 교복이 아니고 얻어다 입거나, 그것도 빵구가 나서 꿰매서 입고 그랬죠. 한번은 교복을 다림질하다 바지 허벅지 부분을 크게 태웠는데 그것을 꿰매 입고 다녀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학교를 다닐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하고 우쭐했으니까요.

하지만 고등학교 졸업은 하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더 어려워지고 납부금을 못 내는 횡수가 늘어나니까 도저히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남동생은 중학교 삼학년, 저는 고등학교 삼학년 때 그만뒀죠, 오빠도 군대에 갔고……. 여동생 둘도 중학교를 제대로 못가고 임동성당에 있는 성심중학교라고, 김정고시를 봐서 입학했어요. 거기도 오빠 친구분이 소개해줬고요.

결국 73년, 고3 되고 얼마 후 자퇴를 한 거죠. 저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집안 상황을 아는 나이가 됐잖아요. 그때 어머니 마음이 어땠을까 싶어요. 중학교 삼학년 때 간호교육을 받으면 독일에 간호사로 파견될 수 있다는 얘기도 듣고 또 야간상고를 권유한 이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엄마는 “우리 복자는 끝까지 공부시킬 것”이라고 거절했거든요. 중학교 2학년 때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친구들과 어울려 썩을 캐고 와서 엄마에게 썩 바구니를 내밀었더니 “공부하랬지 누가 썩 캐 오랬나”며 바구니를 던져버린 일도 있었거든요. 굶어 죽는 한이

52 일신방직에서 버리는 솜 잔해물을 땀감으로 사용.

53 조선대학교를 줄여 부르는 말.

있어도 공부해야 한다던 엄마였으니까요.



동신여자고등학교 1학년 때 김복자

광주천 복개사업으로 강제철거를 당하고

고교를 자퇴하고 곧바로 사회에 첫발을 디뎠죠. 오월부터 칠월까지 삼개월간 아이스크림 공장에서 일했고요. 광주어망도 다녔어요. 바다에서 쓰는 그물망 있잖아요. 광천동에 그거를 짜는 공장, 광주어망이라고 있었는데 한 육개월간 다녔어요. 거기선 너무 힘들었어요. 일이 힘들다기보다 거기서 주는 반찬이, 김치랍시고 나온 것이 빨간색도 아니고 황토색에 가까운 완전 소금 덩어리였는데 먹을 수가 없었어요. 더글더글하던 소금 덩어리 기억밖에 없어요. 그래도 그때는 다 못먹고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감지덕지했고 몇 년씩 다닌 사람들도 있었는데 나만 못 견디고 나왔죠.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잠업검사소에서 일했는데, 거기서는 누에 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검사하는 곳이었어요. 저는 그 일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검사만 하면 정시

에 퇴근할 수 있어서도 좋았지만 누에들이 매일 자라는 과정을 보는 게 참 신기했어요. 적성에 맞는 거 같더라고요. 근데 그 일을 오래 할 수 없었던 게, 잠업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 봄부터 여름이 끝나면 딱 중단을 해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한 사개월 정도만 일이 있는 거죠.

1974년 구월 중순경, 우리 가족은 광주 천변 발산에서 거의 쫓겨나듯 이사를 해야 했어요. 그때가 스무 살이었죠. 광주천이 여름이 되면 홍수가 나고 물난리를 겪으니까 박정희 정권 시절 정화사업과 복개사업을 위한 정책으로 거기 살던 사람들을 강제철거를 한 거예요. 다들 판자촌이어도 보상이 있었지만, 우리집은 제대로 보상을 못 받았나 봐요. 철거인력이 동원되어 집을 부수고 무너뜨리는데, 부모님은 포크레인 속으로 들어가 저항하고 그랬어요. 그때 함께 살았던 이웃들은 철거민이 되어 광천동 산 위로 올라가기도 하고 용봉동이나 전대 농대 주변으로 모두 뿔뿔이 흩어져 살게 됐죠. 저는 그때 장티푸스로 열나고 아무것도 못 먹고 기어 다닌 상태에서 철거를 당했어요. 우리집은 어쩔 수 없이 용봉동 하천변으로 와 천막을 짓고 생활했어요. 내가 일어나지도 못하니까 이웃이 “이거라도 먹어보라”고 주는데 시래기국 이에요. 지금도 그 시래기국 맛과 정은 잊을 수 없네요. 그러다 같이 발산에 살았던 건축업자한테 의뢰해서 정부 보조금 좀 나온 것과 하천에서 돌 캐고 날라서 포도시(겨우) 집을 지었어요. 그때 지은 집에서 지금도 오빠가 살고 있고요.

그리고 시월에는 전자회사에 들어가기 위해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 인천에는 일할 사람이 없었던지 호남권에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일시적으로 전자제품에 대해 가르쳤어요. 그 학원을 일개월 수료하면 인천에 있는 아남전자에 다닐 수 있었거든요. 십일월부터 아남전자에서 일 했는데, 그때 받은 월급이 한 구천 원 정도였을까? 그거를 거의 90% 집으로 보냈어요. 그 나머지로 쌀도 사긴 했지만 그것도 아끼느라고 주변에 밭에서 김장용 무를 몰래 뽑아다가 먹었던 기억도 나고……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집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오빠 친구가 살레시오 수녀원에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니 빨리 내려오라 한 거죠. 내려왔더니 수녀원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들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가 어디 없을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느닷없이 고등학교 때 친구가 왔어요. 일신방직에 모집공고가 있으니 “우리 면접 한번 보자”고 그래요. 여공직 뽑는다고. 그 친구는 고등학교도 졸업했고 집도 잘 살았고 키도 엄청 컸거든요. 사실은 내가 더 가야 될 상황이었죠. 가서 보니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담당자가 앞에 서더니 체력이 좋고 키가 백육십 센치 이상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 나오라고 해요, 면접을 다 볼 수 없으니

까. 저는 키가 백오십이 센치거든요. 근데 친구랑 같이 앞으로 나갔어요. 머리를 쓴 거죠. 키를 쥘 때 신발을 벗잖아요. 어떻게든 들어가려고 몰래 꽃밭(까치밭)을 딛고 해도 백육십에 못 미쳤어요. 그런데도 내가 억지로 억지로 해서 합격을 했어요.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는 것이 엄청 강했나 봐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부족해서 무를 뽑아 먹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야 되겠어요? 키도 크고 그랬던 친구는 떨어지고, 나는 쪼그맣고 노동 조건이 맞지 않았는데도 오만 몸짓 다해서 합격한 거죠. 그때는 노동자를 뽑기 때문에 학력과 상관없이 일만 잘하고 힘이 세고 체력만 좋으면 됐거든요. 막상 합격을 하니 기분이 좋다가보다 ‘이게 나의 필연인가’ 싶더라고요. 사무실이나 그냥 먼지 안 나는 곳에 가고 싶었거든요. 그렇지만 생활이 너무 힘들니까, 그때 동생들이 중학교도 못 가고 검정고시 합격을 했거든요, 그런 상황이어서 ‘마음을 비우자,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여기다’ 그랬죠.

그때 아남전자에서 내려올 때 급작스럽게 내려오느라 월급을 제대로 다 못 받고 왔어요. 회사에서 월급을 준다고 해서 올라가 보니 안 주고 다음에 오라는 거예요. 근데 포도시 올라갈 차비만 갖고 간 거라 내려올 차비가 없는 거예요. 생활이 그렇게 어려웠어요. 그래서 고심 고심하다가 회사 정문으로 가서 함께 학원에 다녔던 동료들이 보이면 “나 차비가 없으니 차비 좀 빌려줘, 빌려줘” 해서 내려왔던 기억. 그래서 일신방직이 나에게서 무겁고 힘든 거였지만, 들어가야 되는 상황, 그랬었던 것 같아요.

솜뭉치가 온몸에 달라붙는 꿈을 아직도 꾸고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방직공장에 막 입사해서는 목화 솜뭉치를 동그랗게 모아 넓적하고 둥글게 마는 작업으로 솜뭉치가 15~20kg가 되었는데 이것을 기계에 올리는 작업을 했어요. 계속 기계를 돌려야 하니깐 숨을 계속 넣어주고 또 이 솜뭉치를 수레에 싣고 다니면서 작업을 했어요. 온몸에 숨이 다 묻고 공장바닥에도 숨이 날려 다녔지만 마스크도 없이 하루 종일 그 작업을 하고, 육개월 정도 이 과정을 맡아 했어요. 그 뒤로는 내 키보다도 큰 고무통에 쌓여진 솜뭉치를 실어 나르는 작업을 했고요. 나보다 더 큰 고무통을 끌고 다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체력이 좋아야 되고 키도 커야 됐던 거죠.

솜타래가 쌓이면 한 줄에 열개씩 해서 사십개 정도 실타래가 만들어져 기계로 들어갑니다.

이것을 기계 속도에 맞춰서 계속 넣어야 되고 중간중간에 숨을 이어주는 작업을 사년 동안 했어요. 작업은 삼교대로. 잠자는 시간도 부족하고 몸무게도 적게 나가서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위험한 작업들은 기계를 멈추고 열고 청소하고 해서 위험한 일은 적었지만 체력적으로 많이 힘든 작업이었어요. 한 부서에서 기술이 숙련되어 다른 부서로 이동하는 게 아니라 한 공정에서 사오 년 동안은 같은 작업을 반복해서 일을 했어요. 지금도 꿈에 솜뭉치가 온몸에 달라붙어 있는 꿈을 꾸는데 ‘아, 지금은 안 다니지’ 하면서 안심하면서 깨어나곤 합니다.

1970년대는 통금시간이 정해져 있고 공장일이 삼교대라 통금시간 전에 출근할 때는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거나 했고, 지금같이 건물들이 들어차 있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겼지요. 공장을 다니면서 성당을 다니게 되었는데 그때는 임동성당에서 일신방직으로 이어지는 철도길이 있었어요. 한번은 성당에서 공장으로 가는 철도길을 밤에 혼자 걸어간 적이 있어요.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 시간을 물어보는데 하마터면 그 남자한테 봉변을 당할 뻔했어요. 죽어라 악을 쓴 덕에 인근 주민들이 몰려와 겨우 봉변을 피할 수 있었던 만큼 그 당시에 여성이 혼자 다니는 밤길은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웠어요.



일신방직 공장에 다니던 시절, 3공장 차장님과 동료들

칠팔십 년대에는 여공이라고도 안 했어요. 공순이, 공돌이 그랬지. 그때는 본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활하면서도 밖으로 표현을 대부분 안 했어요. 공순이라고 놀림을 받아도 다 참아내고 그랬죠. 나는 이렇게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자존감도 버리고 또 여자라는 것도 버리고……. 자신을 희생하면서 살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할 수 있다는 것에 당당했지 인간으로서 당당함은 아마 없었던 것 같아요.

한번은 오빠 지인이 선물해주신 쉼타를 공장에서 도난당한 일이 있었어요. 여러 옷감을 짜깁기했던 거라서 독특했고 눈에 확 띄는 쉼타였는데 그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퇴근할 때 누가 내 쉼타를 입고 가지 뭐예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랑 붙잡아서 내 쉼타 내놓으라고 했더니 딱 잡아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걸 구입했냐”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해, 근데 그때 내가 갑자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비싼 쉼타도 아닌데 얼마나 입고 싶었으면 그랬을까 싶어서요. 내가 우니까 그 동료도 따라 우는 거예요. 참 이렇게 우리들이 정말 어렵게 살았네요. 퇴근할 때는 몸수색도 했는데 당시 상황이 못 먹고 제대로 입지 못했던 시절이라 그런지 옷이나 소지품에서 숨뭉치도 나오고 실타래도 나오고 그랬어요.

자긍심을 갖고 정당한 권리를 찾자

일신방직에 입사하고 나서 오빠 친구가 가톨릭에 대한 선교를 하다가 내가 몇 번이나 거절을 하자, “이런 모임이 있다, 한 번이라도 좋으니 참석해보라”고 해서 한번 가 보았더니 듣기만 해도 굉장히 신선했고, 자기 이야기를 스스로없이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은 감동과 공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 중흥동성당 내 모임에 갔을 때 주로 호남전기 사람들이 많았고 구두담이, 갱생원, 장애를 가진 사람, 여러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들이 모여 각자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스스로없이 이야기하는 모습이 신선하고 충격적이었어요. 모임을 하면서 ‘나는 어떻게 해 나갈까’, ‘상대방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다음 주제는 무엇으로 할 것인지’ 등을 토론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을 통해 이 모임에 꼭 참석하고자 마음 먹고 성당에 입교를 하게 되었어요. 이를 계기로 임동성당 칼 신부님이 이끄는 교구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 당시 노동자뿐만 아니라 일반 가정도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굶고 있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내 품팔아서 집에다만 주는 단순한 노동자의 삶이 아니라 더 나아가 노동자로서 삶의 가치, 인간

의 존엄성, 내가 또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방법들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내가 요구할 것은 요구하고 같은 노동자들끼리 서로 우애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보급하고자 각 교구의 신부님들이 요청을 해서 이런 모임을 마련할 수 있었고 지도신부님이 따로 계셨어요.



임동성당의 부활절 영세 후 칼 신부님, 신자들과 함께(1976. 4. 18)
교구모임에서는 노동자로서 삶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배우게 되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박정희 독재정권 시절이었던 만큼 탄압과 감시가 심했어요. 이러한 모임에 참석하고 활동하는 것조차도 빨갱이로 몰아세우며 형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들도 발생했어요. 회사에서는 이런 나를 강제로 퇴사시키기 위해 부서를 강제 이동시키거나 어린 조장을 시켜 발로 차는 일도 있었지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꾀꾀이 이겨낼 수 있었던 것 또한 이 모임과 활동을 통해서였어요. 수없이 어려운 과정을 거친 뒤에서야 드디어 동료들도 인정해주었고, 주 멤버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모임을 갖고 삼개월에 한 번, 육개월에 한 번, 이런 식으로 동료들을 초대해 일반회라는 모임도 꾸려가게 되었어요. 레크레이션 시간도 마련하는데 우리가 직접 강사가 되어 식순도 짜고 행사도 진행하면서 동료들의 친목도 모는 물론 ‘임동 섹션’이라는 산문집도 발간하게 되었죠. 한 번씩은 자신들이 쓴 내용을 산문집으로 발간했으니 얼마나 보람이 있었겠어요. 또 산문집을 쓰지 않은 사람들은 수련회처럼 하루 모임을 가지면서 자기 이야기를 나누고 공유하는 시간들을 가졌어요.



J.O.C 새싹팀 토론회



J.O.C 지도자 훈련회(왼쪽에서 세번째)



J.O.C 하계수련회(화순)



전남 일신방직 새싹팀 회합 후

박정희 정권 시절, 노동자모임은 빨갱이로 몰리기 일쑤였다. 김복자가 주도적으로 참여한 새싹팀의 회합도 조심스럽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이 모임의 취지는 '젊은 시절에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노동하고 그 노동의 가치를 알아가는 것, 될 수 있으면 좋은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일하자'였어요. 지금의 노동절은 5월 1일이지만 당시에는 3월 10일이었는데 그 노동절을 기념하기 위해 광주의 유명인사들을 초대하고 큰 강당에서 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수백 명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이 참가한 행사였기 때문에 형사들이 우리를 주시하고 감시할 정도로 대규모 행사였지만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 자신의 노동에 대한 자부심과 회사에 대한 애착심을 갖게 만든 행사였지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기보다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정향자⁵⁴를 따라 함께 다녔고, 내 주변에 일신방직, 전남방직, 태창양말 등에서 막 노동조합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는 노동자계층 확대와 더불어 더 많은 지역으로도 확대가 되는 시점이었지요. 각 사업장마다 버스로 화순, 장성까지 돌아다녔는데 노동조합을 새로 조직하고 그런 것은 정향자 언니가 주로 했고, 저는 회원들에게 인간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고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전달하면서 고양시키고 단련시키는 일들을 했어요. 당시 가톨릭청년노동자회 모임은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또 자긍심을 갖고 그 회사에서도 얼마 이익을 갖고 있어야 하고 또 일하는 우리는 정당하니 권리를 찾자는 것이 활성화되어서 전국적으로 모임이 더 튼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광주권 여자회장으로 뽑혀 일을 하는 와중에도 형사들이 쫓아다니기도 했어요.

일신방직에 다녔을 때 내 월급은 138이라는 숫자로 기억에 남는데 아마 십삼만팔천 원였나 봐요. 팔천 원 정도였던 아남공장 임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크게 느껴졌어요. 야간근무를 할 때는 수당 등이 있어서 좋았고 비록 엄마에게 다 드려야 했지만 묵묵히 내 일을 했고 오로지 퇴직금만 내 몫으로 남겨둘 수 있었지요. 방직공장 시절은 집안 사정이 너무 좋지 않아서 부모님께서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의 형편이었기 때문에 월급을 받아서 기뻐하기보다는 집안에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의무감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무했던 기간 모두 월급을 타면 저는 거의 써보지도 못하고 바로 엄마에게 다 드렸고요. 제가 드린 월급으로 엄마는 생활비와 여동생들의 학비로 썼지요.

그렇게 만 사년을 다닌 방직공장을 그만두자, 마침 가톨릭청년노동자회 풀타임 간사 자리가 비어 있어 간사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외국에서 보내준 월급인데 그때 십만 원이 넘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돈은 엄청 크게 느껴졌지요. 간사 일을 하면서 결핵환자를 위한 봉사나 다른 봉사활동뿐만 아니라 노동자들의 협력과 자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아 일일찻집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일일찻집은 삼개월이나 육개월에 한 번씩 열어 지역 노동자들을 초대하고 모임의 취지를 알리는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54 당시 전남제사노동조합지부장, 현 노동실업광주센터 대표. 1970년대 민주노동운동 현장과 투쟁을 기록한 『어둠의 시대 불꽃이 되어』의 공동집필자이다.

결혼을 하면서 간사도 그만두게 되었고⁵⁵ 장년회 모임인 천지애회에 참여했어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모임을 하는데 지금도 회원들 중에는 봉사활동이나 교육활동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톨릭청년노동자회⁵⁶의 관찰, 판단, 실천이라는 정신이야말로 우리들이 지금까지 활동하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5·18때 시신을 닦아주던 회원의 죽음을 겪고

지금도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나요. 그때 국제예식장에서 열두시엔가 막 결혼식이 끝나고 대인시장으로 오는데, 군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청년들을 때리고 달려가고 그러는데, 그걸 목격하고는 큰 충격을 받았지요. “아고, 젊은이들 다 죽네” 하면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고. 그 와중에 결혼한 친구집에서 저녁에 피로연을 한다고 해서 겨우 다녀왔는데 엄마에게 붙잡혀 집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중앙여고 삼학년이었던 여동생이 집에 돌아오지 않아 온 식구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다 전남대 도서관에도 들러보았더니 도서관 안이 핏자국으로 흥건하니 도저히 참혹해서 볼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다행히 며칠이 지나 집에 돌아온 동생 이야기는 중고등학생들도 같이 참여하자고 해서 며칠 동안 같이 다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바깥소식들은 완전히 차단된 채로 화순에서 어쩔니 담양에서 어쩔니 임신부를 어쩔니 등 들리는 소문들만 말 그대로 흥흥했고 밖으로 다닐 수도 없었어요.

도청이 장악된 뒤 우리는 가톨릭센터로 달려갔는데 우리 회원 홍순권⁵⁷이라는 사람이 어이없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평소 봉사활동도 열심히 하고 한 팔이 없는 장애인임에도 상무관에 안치된 시신을 닦아주고 사람들에게 물도 날라주고 그랬던 사람이 총에 맞아 죽어버렸어요. 홍순권씨의 어이없는 죽음에 ‘이 소식을 먼저 우리 회원들에게만큼은 알리자’ 해서 북동성당으로 모였어요. 편지도 쓰고 선언문도 쓰고 그랬어요. 우리들은 홍순권씨를 5·18 구묘역

55 결혼하면 퇴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56 한국가톨릭노동청년회(Young Christian Workers, YCW). 1958년에 설립된 가톨릭 노동청년단체. 관찰(See), 판단(Judge), 실천(Act) 방법론을 바탕으로 젊은 근로자들이 근로의 가치와 근로자로서 보람을 일깨우기 위하여 조직함.

57 홍순권은 1960년 생으로 당시 19세 대입 준비생이었으며 북동성당에 다니면서 초등부 교리교사 활동 중 5월 27일 도청에서 총상으로 사망했다.

자리에 묻고 버스도 다니지 않았던 길을 며칠씩 다니면서 그 사람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송홍철 지도신부님이 홍순권씨의 묘비에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라고 써주셨어요.

당시 광주에 이 비극적인 상황들을 외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해서 지도신부님들을 비롯해 우리는 전국 모임에 나가 이 엄청난 사실들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재야권 인사들, 신부님들이 앞장서 주셨고 이후에는 기독교 송백회⁵⁸ 모임의 황석영 작가, 가톨릭 천지애회 모임의 문병란 교수 등이 주도하는 임동성당 내 모임들에 자연스럽게 참여할 때도 있었습니다.



일신방직 뒤편에서 차명숙씨와 함께

58 송백회(松柏會)는 고 문병란 시인이 ‘소나무처럼 푸르고 잣나무처럼 곧게 이 사회를 위해 헌신하자’는 의미로 짓고 활동했던 광주·전남 최초의 민주여성단체로 5·18 광주민주화운동에서 한 축을 담당했다.

수녀가 되고 싶었지만

내가 이런 데만 다니고 하니까 처음에는 결혼을 안 하려고 했어요. 수녀가 되고 싶었는데 내가 무슨 고급스럽게 수녀를 할까 싶어서 부산에 있는 마리아수녀회라고 빨래만 해주는 봉사단체에 가려고 했어요. 나자렛 집이나 노인요양시설도 알아보고 갱생원도 알아보고 했는데 갱생원은 그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해서 거의 포기를 했죠. 그러다 선만 신세 번을 보다가 지금 남편을 만나 삼개월 만에 결혼을 했네요. 아주 사연이 많아요. ‘이 사람하고도 인연이 아니다’ 싶었는데 한 동네에 사는 남편 이모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결혼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내 나이도 적지 않고 해서 어머니도 반대 안 하시구요.



수녀가 되고 싶었던 김복자는 맞선에서 만난 남자와 결혼식을 올렸다(1981. 5. 10).

처음 상하방에서 신혼생활을 시작했는데 그때 따로 살았던 시동생 셋을 함께 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그 셋을 데리고 살았죠. 그 좁은 상하방에 시동생 셋과 우리 부부가 같이 살았는데 세탁기, 냉장고도 없던 시절에 빨래만 해도 어마어마하고 공간이 비좁아 내가 어디 편하게 누울 자리도 없었어요.

이층집으로 옮겨서도 뽀 양말만 해도 빨래줄에 빠곡이 널려 있을 정도였죠. 그래도 막 결

혼해서 한 이개월 정도 우리 부부만 살았을 때가 생각나요. 한여름에 남편이 아이스크림이 녹을까 봐 옷 속에 넣어 온 걸 생각하면 웃음이 나요. 당연히 다 녹아버렸죠. 날도 더운데.

결혼생활은 생각만큼 평탄하지는 않았어요. 아이들 둘을 연년생으로 낳고 시동생들과 같이 생활하고 하면서 남편이 한눈을 팔더라고요. 그래도 먹고살라고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부터가 차마 성당에는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렇게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 탓이오 내 탓이오’만 하는지 도저히 못 다니겠다고 신부님께 말씀드렸죠. 아이들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로 세신사 일도 했는데 오만 구박을 받으면서도 목포, 부산까지 다니면서 했어요. 그렇게 해서 피부관리실도 열게 되었고 한때는 아주 크게 번성할 때도 있었죠. 그런데도 그거 다 날리고 이혼하려고도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부부로 살고 있네요. 아이들한테도 상처 주지 않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부모님께도 그 어려웠던 거를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인지 동생들도 “언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버티고 사느냐”면서 많이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동정도 해주고 그랬어요. 바로 밑에 시동생의 도움과 여동생들의 도움도 정말 컸지요.

산이 높다 해도 쳐다보고 부러할 거 아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 어머니와 버스 타고 다니면서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어요. 한번은 선운사에 간 적이 있었는데 “넷물은 얇고 산은 높으니 보기 좋제잉?” 했더니 “아야, 넷물이 아무리 얇아도 얇보지 마라, 글고 저기 산이 높다 해도 그르케 너무 쳐다보고 부러할 꺼 아니다” 하시더라구요.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 속담과 격언을 한 번씩 말씀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 틀린 게 없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킬라고 얼마나 노력하셨는지 우리 형제들 몸에도 배어 있어요. 우리가 수많은 고생을 했어도 항상 따뜻하게 품어주시고 해서 이만큼 잘살고 있지 않나 싶어요.

내가 올해 예순일곱이에요. 살아오면서 많은 일을 겪었지만 내가 제일 잘한 일은 우리 아이들을 낳은 거예요 남편에게도 물어보니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 우리 딸이 손주를 낳았을 때라고 하더라고요. 애들이 결혼할 무렵부터는 백팔십도 달라지기도 했고요. 또 종교를 가지고 있기를 잘했다는 생각, 참을 인(忍)자를 내 마음에 칼을 꽂듯이 그렇게 아픔을 참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자연이 주는 감동이 참 좋고 감사합니다. 태양, 바람, 흠냄새, 공기와 새소리가 들려주는 것에 감사하고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인간이기에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이여, 자신을 위해 당당하게 살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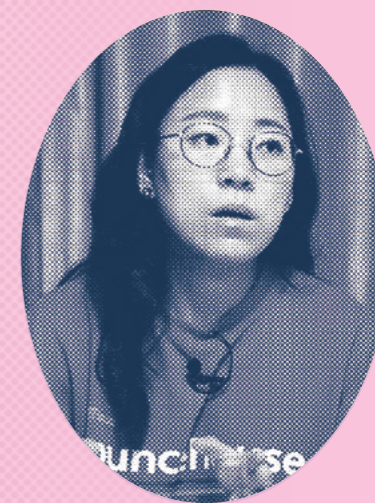
방직공장에 다니면서 우리 여공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그 힘든 일과 편견을 이겨내고 참아내고 돈을 벌었어요. 그 월급으로 가족이나 형제를 위해 많이 썼고요. 그래서 당당합니다. 한창때, 청년기를 가족을 위해 바쳤지만 제 인생관이 성립되는 시기였고 전혀 후회하지 않은 시절이었어요. 항상 남을 먼저 배려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어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아온 제가 여성들에게 이 말을 꼭 하고 싶어요.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을 숨기지 말고 솔직하게 표현하세요' 더는 희생하지 말고 자신을 위해서 당당하게 살면 좋겠습니다.



광주여성기술채육단과 인터뷰 모습

생애연보

- 1955년(1세) 광주시 동구 산수동 꼬두메마을(현재 산수동 성당 자리)에서
2남 3녀 중 둘째이자 장녀로 태어남
- 1960년(6세) 아버지의 일신방직 입사로 양동 발산마을로 이사
- 1962년(8세) 광주양동초등학교 입학. 발산마을 철거로 광주 천변으로 이사
- 1968년(13세) 수피아여자중학교 입학
- 1971년(16세) 동신여자고등학교 입학
- 1973년(19세) 동신여고 3학년 때 자퇴
자퇴 후 5월~7월까지 아이스크림 제조공장 근무
8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6개월 간 광주어망에서 근무
- 1974년(20세) 2월~5월까지 잠업검사소 근무
9월, 광주천 복개공사로 강제 철거를 당한 후 용봉동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뒤 하천변으로 이사.
10월, 인천 부평 아남전자 입사를 위해 1개월간
전자조립과정 학원 수료
11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인천 부평 아남전자 근무
- 1975년(21세) 일신방직 입사. 광주가톨릭청년노동자회 가입
- 1976년(22세) 광주임동성당에서 세례 받음
- 1979년(25세) 4년 3개월 근무 후 일신방직 퇴사
- 1979년 11월 광주가톨릭노동자청년회 간사 근무
- 1981년(27세) 결혼을 사유로 가톨릭청년노동자회 간사 퇴임
5월 10일 결혼
- 1983년(29세) 첫아들 출생
- 1984년(30세) 둘째딸 출생
- 2021년(현재) 피부미용관리숍 운영



김은경

일신방직에서도 일했는데
내가 하면 된다,
그런 힘을 얻었죠



일신방직에서도 일했는데 내가 하면 된다, 그런 힘을 얻었죠

생애 개요

82년생 김은경. 김은경은 전남 나주에서 전신전화국에 다니는 아버지와 가정주부인 어머니 사이에서 1남 2녀 중 가운데 장녀로 태어났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한 사회인으로 바깥 활동을 잘하시고 인정받는 분이었지만 그리 살가운 분은 아니었다. 김은경의 네 살 터울 오빠는 이복형제로 주로 외가에서 자라 방학 때나 만나는, 가깝지만 거리감이 있었던 혈육이었다. 여동생은 지적장애가 있었다. 어머니는 평생 여동생을 돌보는 일에 헌신하고 매진하셔야 했다. 김은경은 둘째로 태어났지만 첫째 같은 딸, 그러면서도 혼자인 듯한 외로움을 느끼며 일찍이 홀로서기를 예감했던 아이였다. 진학할 고등학교는 자연스레 나주여상으로 정했다. 취업하는 데 유리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별 기대를 하지 않은 학교에서 관현악단원이 되어 바이올린을 켜면서 재미와 열정을 느꼈다. 그러나 지원을 해줄 수 없다는 아버지의 말에 삼년을 해오던 바이올린을 포기했다. 고교 졸업 후 역시나 취업이 잘 된다는 이년제 대학 회계학과에 입학했다. 집에서는 아버지가 학비만 대주셨기에 교재, 차비 등은 늘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 졸업 후 바로 일신방직에 취직하여 집으로부터 물질적, 정신적으로 독립하였다. 거기서 보낸 육년은 은경의 삶을 통틀어 가장 힘들고 억센 시간이었다. 거기서 버텨낸 시간이 이후의 삶에서 어떤 힘든 일도 버티고 견디는 힘의 원천이 되리라곤 당시엔 정말 몰랐다.

육십대와 사십대 언니들이 만난 김은경은 삶에 대한 긍정성, 성실, 타고난 생명 감각으로 다져진 이었다. 그 나잇대 여성 중에 보기 드물게 치열했던 삶을 꾸려간 안아주고 싶은 여동생, 억센 생명력을 가진 '82년생 김은경'이었다.

평범해 보이지만 슬픈

저는 전남 나주에서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났어요.. 엄마는 한 번 결혼하셨고 그때 오빠가 있었고요. 그 후에 저희 아버지와 결혼해서 저랑 여동생을 낳았어요. 아빠는 전신전화국에서 설치 일을 하셨고, 엄마는 가정주부였죠. 오빠는 저랑 일곱 살 차이 나는데 저희 집에서 같이 지내기보다는 거의 외할머니가 키우셨죠. 오빠가 공부를 잘해서 외할머니의 엄청난 사랑거리였어요. 방학 때나 볼 수 있었던 오빠는 가까우면서도 먼 사람이었어요. 여동생은 지적장애가 있었는데 엄마는 그 사실을 꽤 오랫동안 인정하길 싫어하셨던 것 같아요. 좀 더 일찍 인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을 시켰다면 어땠을까 싶죠. 엄마는 평생 동생을 돌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했고 엄청나게 알뜰한 사람이었죠. 그러면서도 아빠 눈치 보랴 동생 보랴. 실상 저는 중간에 끼었다고 해야 하나..... 관심을 받고 그러기가 힘들었죠. 어릴 때부터 부모님 눈치를 되게 많이 봤고 아직 어리니까 장애인 동생, 이복오빠 이런 거를 잘 이해를 못했고, '좀 벗어나고 싶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집은 보통 다른 집처럼 평범해 보였지만, 남들 앞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인 그런 슬픈 요인들은 작용했던 것 같아요.



엄마와 함께 찍은 사진
등에는 동생이 업혀 있다.

7살 유치원 소풍때
오른쪽이 김은경

바이올린에 빠진 소녀의 좌절

때가 되니 초등학교 가고 남들 가듯 나주중학교 가고 그랬는데 고등학교는 딱히 공부를 잘하지도 않았고 '뭔가 집에 보탬이 되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상고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근데 상고 공부가 재미도 없고 흥미도 안 맞고 그랬어요. 그때 교내에 관현악단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선후배 간에 분위기도 좋지, 수업 많이 빼먹어도 된다 하지, 대회 같은 거 있을 때는 연습한다고 모여서 재밌게 지내는 게 좋아 보여서 들어갔는데, 거기서 바이올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무슨 대회 나간다고 외부에서 다른 선생님이 한 분 오셨어요. 같이 준비를 하는데 선후배 분위기 하며 선생님과 같이 하는 것이 너무너무 즐겁고 좋은 거예요. 거기서 첼프로 칭찬이란 걸 받아봤는데 인정받는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좋고. 다른 거 다 잊고 바이올린 켜면 너무 좋았어요.



유치원 시절 포도밭 견학 때 찍은 사진
오른쪽에서 두 번째

고등학교 이학년 때부터 이제 제가 벌어서 광주까지 레슨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얼마나 더 잘 할 수 있는지 보고 싶었고 '나, 이 길 가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근데 돈이 없으니까 집에서는 당연히 안 줄 게 뻔하니까 새벽에 신문을 돌렸어요. 그런데 이게 남자애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이백오십부씩 돌리는데 나는 자전거로 하니까 그만큼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언치(기어코) 나도 오토바이를 배워서 결국은 내 힘으로, 그걸 다 실어서 운전할 수가 없어서 이백부 돌리고 와서 오십부 더 받아가지고 이백오십부를 다 돌렸죠. 그 돈으로 레슨비를 냈죠. 그때 돈이 이십만 원인가 했는데 선생님이 제 상황을 보시곤 좀 깎아 주셨어요. 그렇게 배우고 다녔는데 한번은 광주로 가야 하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거예요. 아빠한테 "딱 한 번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데려다 달라"고 했는데 아빠 말이 "니가 그쪽으로 나가면 그 비용을 누가 다 감당을 하느냐?" 그래서, "내가 벌어서 하면 되지" 했더니 "그게 아니다. 나는 너를 케어할 수가 없다, 안 된다" 그러고 반대를 하셨어요. 그 날 이후로 딱 접었어요. 그냥 탁! 놔버렸어요. 삼년을 이어가던 것을. 그게 지금도 너무너무 아까워요. 진짜 내

나이 육십이 되어서도 내가 여유돼서 할 수만 있다면 다시 하고 싶어요. 내가 유일하게 칭찬도 많이 받았고 잘한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았거든요. 행복했죠.

한번은 한창 멋 부리고 싶을 나이인데 친구가 산 통굽 신발이 사이즈가 안 맞다고 나보고 “만 원에 사라”는 거예요. 그게 신고 싶은데 만 원이 없어가지고 아빠한테 “나, 이거 신발 사게 만 원만.” 이랬다가 그 신발로 맞은 거죠. 그 날 아빠는 회식하다가 ‘뉘 집 자식은 공부를 잘하네, 뉘 집 애는 뭐가 잘 되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오셨나 봐요. 그런 상황에서 신발 사게 돈 달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신 거죠. 그때 호되게 혼나고 몇 마디 반항하고선 완전히 접었어요. 사춘기에 접어들었던 것 같아요. 저의 집이 처한 상황,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가질 수 있는 것, 가질 수 없는 것을 일찍 알아버렸죠. 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어요.

고3 때 한 오개월 정도 SK하이닉스로 현장실습을 갔어요. 근데 거기서 받은 인상이 너무 안 좋았죠. 돈을 버는 것은 너무 좋아. 그런데 텃세도 너무 심했고 혼자 가서 견디기에는 너무 힘든 직업이라고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정도 없고. 나이 비슷한 사람들하고 기본교육 없이 바로 현장 들어갔는데 너무 공장이 뻑뻑하게 있으니깐 그 안에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무섭기도 하고 인간미가 없더라고요. ‘내가 이 텃세를 견디면서 버텨야 되구나’ 그게 싫었던 것 같아요. 돈은 많이 줬고 주식도 준다고 해서 좋았지만 그 환경과 분위기가 너무 싫더라고요. 그랬는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일신방직은 들어갔는가 모르겠어요.

해서 ‘대학을 가야겠다. 내가 뭐라도 스펙이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뒤늦게 원서 넣고 광주서영대학 회계학과를 간 거죠. 그때 처음으로 선후배, 타 지역에서 온 동기들 이야기도 들으면서 사람들끼리 인간적으로 어울리는 게 재밌었어요. 그런데 나는 집에서 딱 학비만 주셨기 때문에 나주에서 오가는 통학비, 교재비, 식대 그리고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 그런 거는 내 스스로 충족을 시켜야 되니까 알바를 했어요. 애들이랑 노는 걸 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첫째가 아니라 알바가 우선이 되는 거죠. 어쩔 때는 친구들이 “아, 뭐냐. 같이 좀 있자” 해도, 나는 알바를 해야 그 담도 있는 거니까 가는 거죠. 어울리는 그룹에서는 그래도 제가 분위기도 이끌고 했기 때문에 원망을 듣기도 했죠.

그 당시에 오랫동안 엄마는 동생 돌보라 살림하라, 오빠는 공부를 잘했으니깐 그 뒷바라지 하라, 너무너무 아끼고 살았어요. 비닐봉지 한 장, 휴지 한 조각도 허투루 쓰질 않았죠. 그래서 그런가 저는 항상 현실을 인정하려고 했고 지금 현재의 나보다는 내가 앞으로 해야 될 거를 생각을 더 많이 했던 거 같기는 해요. 그럴려면 가장 기초적인 것이 돈이었고, 그게

있어야지만 ‘내가 뭘 하더라도 할 수 있겠다, 내가 살아남을 수 있겠다, 내가 아프더라도 약값을 내고 병원비를 대고 할 수 있겠다’ 싶었어요. 부모님한테 의지하려고도 안 했고 의지하지도 않았어요. 부모님한테는 나는 자식이긴 한데, 뭔가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모님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일신방직에 간 거죠.



대학 졸업식때의 모습



가장 친한 친구와 함께 (오른쪽이 김은경)

일신방직을 만났다, 포기하고 싶었다

대학을 졸업하고 나오는데 그때가 IMF가 터진 지 얼마 안 돼서 난리일 때예요. 어디 갈 데가 없더라고요. 돈은 벌어야 되는데 취업은 안 되고, 그렇다고 집에 들어가기 싫고. 이미 바깥 맛을 봐버렸으니깐.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집을 구하자니 집값이 너무 비싸고, 어떻게 하지?’ 하던 차에 일신방직 채용공고 포스터를 봤어요. 엠코⁵⁹ 같은 데를 들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건 또 나주 우리집에서 거리가 멀어서 무섭더라고요. 엠코는 첨단이었는데 일신방직은 조금만 걸어가면 증장로 가는 길에 수창초교가 있고 그 앞에 백육십번이 다녔어요. ‘백육십번 타면 집에 가기 제일 가깝네’ 그런 생각을 했죠, 세상에. 그것도 지금 생각하면 우물

59 엠코코리아(전 아남산업) 광주공장(광주광역시 북구 대촌동 소재).

안 개구리였죠. 침단이 뿔이 멀다고 엠코 말고 일신을 갔으니까요. 알아보니 일신방직은 기숙사도 저렴하고 모든 조건이 다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교대근무라는 것도 그때는 좋아 보였고, 공장 생활을 본격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어떻게든 할 수가 있겠지, 알바 같은 거 많이 해 봤으니까’ 이런 생각에 들어갔죠.

회사가 커서 처음에는 대기업인 줄 알았어요. 생산적인 거는 알았지만 일단 모든 조건이 나랑 맞아 떨어지니까 ‘여기로 입사해야 되겠다’ 하고 면접을 봤죠. 처음에는 사람들 말이 “야, 일신방직 다니면 부자야, 그 동네에서 부자야” 이려고, “거기 기아타이어랑 금호타이어랑 맞먹는다”고 하고, “거기 여자애들 진짜 돈 많아, 돈 많이 벌고. 그 여자들 꼬실려고 남자애들도 막 달려든다드라” 이런 이야기도 들어요. 가서 한 이주간 교육을 받는데 회사가 겹보기에 번듯하고 사무실이 굉장히 깔끔하고 교육실도 딱, 딱, 따로 있고 식당도 중앙식당이 딱 있고, 기숙사 되어 있지, 기숙사 가는 길에 왼쪽 옆에 수영장, 어린이집, 사택, 이런 게 있었어요. 뭔가 체계 있고 좋아 보이더라고요. 되게 각자 업무가 있어 보이고 괜찮아 보인 거예요. 교육할 때는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직업적인 부분들 말고도 인성교육, 자아 찾기, 정신교육, 이런 교육이었는데 재밌고 좋더라고요. 교육 선생님이 굉장히 친절하셨어요. ‘이 회사에 오면 정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 거죠. 회사 첫인상이 좋았죠.

근데 막상 제 작업 배치를 받고 배우는데 그 겹보기와는 다르게 작업 환경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어요. 제가 생각한 거에 비해서. ‘모든 생산직이 이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열악했어요. 화장실도 거기가 수세식이긴 했어요, 타일이 깔렸으니까. 근데 진짜 간이 화장실보다 못해요, 진짜. 화장실 가면 막 진짜 지금도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너무너무 지저분하고 관리가 안 돼 있고요. 작업장은 온도가 삼십팔 도에서 사십이 도 정도 되었어요. 그 안에서 뛰어다니면서 실을 잇고 기계 점검하는 일을 해야 돼가지고 적응하는 데 시간이 꽤나 걸렸던 것 같아요. 한 사흘 일했나? 진짜 집에 가고 싶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일하고 돌아와서 열두 시간을 내리 잔 거 같아요. 그 정도로 되게 일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또 그만두면 집을 구해야 되고, 내 생계를 위해서는 쉽게 포기는 안 되더라고요. 당장 먹고살아야 되니까요. 그 당시 제 상황에서는 싼 방값에 싼 식비에 월급 따박따박 나오니까 ‘나만 잘 버티면 여기가 제일, 내 입장에서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저는 정방이라 해가지고, 두꺼운 실이 나오면 그거를 조금 더 얇게 이렇게 펴지고 중간에

실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게 끊어지거나 하면 무릎으로 브레이크를 잡고 실을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큰 두꺼운 실이 돌면서 실이 이렇게 내려오면 나무 기둥이 있어요. 그 나무 기둥에 얇은 실이 내려와서 막 감겨요. 우리 그 옛날에 실타래 감듯이. 그래서 막 감겨 돌아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거를 무릎으로 멈춰서 브레이크 잡고 그 실의 기둥을 빼가지고 실을 빼서 넣고 다시 실을 잇고 해주는 거죠. 그런데 실이 내려오면서 잘, 부드럽게 그 이음새가 티가 안 나게 잘 이어져야지, 이게 실이 잘 뽑아지니까 중간에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롤 베이너에 실이 안 감겨야 돼요. 근데 그게 자주 감겨요, 날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칼 같은 것으로 제거도 해주고. 또 어느 순간 힘이 빠지면 돌아가버리니까 살 그냥 끊기는 건 기본이에요. 그 안에 거 손 보다가 갑자기 브레이크 잡던 허벅지에 힘이 빠지거나 해서 돌아가버리면 손가락 잘려 들어가죠. 한 줄에 기계가 여덟 대에서 열두 대까지 있는데 한 사람이 그런 라인을 세 줄 정도 맡았어요. 그거를 계속 뛰어다니면서 돌리고 돌리고 하는 거라 그만큼 몸이 썩어야 돼요. 중간에 실털이 막 날리는데 그거를 정리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반복 작업을 하는 거죠, 막 뛰어다니면서. 실이 감기거나 하면 풀어주고 다시 이어주고 풀어주고 다시 이어주고 이런 작업도 하면서요. 어찌 됐든 사람 몸이 들어가야 작업이 완성되는 거죠.

이게 확실히 다 나오면 이만한 실뭉탱이가 돼요. 이게 한 개 무게가 한 3.2kg 되거든요. 그거를 세 개씩 해가지고 흰 비닐에 싸요. 그렇게 싼 것을 또 세 개씩 해서 한 박스에 포장해서 담거든요. 맨 마지막에 포장하는 데를 하조장이라고 하는데 저는 거기서 일하는 언니랑 친해가지고 거기서도 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거를 포장하기 전에 나온 실을 사십도가 넘는 사우나통 같은 데다가 3kg 여섯 개씩, 18kg를 손으로 이렇게 들어가지고 박스에 가지런히 담아야 됐어요. 뜨거운 열기가 있는 사우나통 같은 데다 넣고, 끌어올려 빼는 거는 기계가 하지만, 그거 빼고 사우나에 들어갈 통에 또 넣고 빼고 넣고 빼고 그게 진짜 힘들죠. 담고 박스 포장해서 테이프 칠까지 사람이 하는 거죠. 진짜 힘들어 죽어요. 진짜 죽어.

실이나 솜뭉치가 있다 보니 사건 사고도 굉장히 많았어요. 화재도 많이 났고 남자분들은 담배를 피기 때문에 그 작은 불씨 때문에 숨이라서 금방 번지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공장 몇 개가 난리 난 적도 있었고. 안전교육도 미비하지, 비상대책 이런 것도 좀 더 만들어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부분이 미흡했어요. 야근하는 사람들은 날 새고 근무를 하잖아요. 피곤하면 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까딱하면 진짜 손가락 부러지고 하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진짜 팔이 막 찢어져도 그냥 이거는 단순히 타박상인 거야. 내가 팔이 찢어져서 열두 바늘

을 꼬맸는데 이거는 그냥 타박상인 거예요. 손가락이 잘려도 그거 들고 가서 병원 가서 이어서 다시 돌아와 일하는 거죠.

기계가 나인지 내가 기계인지

말이 여덟 시간 근무지 실상 근무시간은 한 열두 시간은 된 거 같아요. 일곱시에 시작이면 여섯시까지야 와야 돼요. 여섯 시 십 분, 삼십 분에 오면 지각생이 되는 거야. 인수인계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는 업무로 쳐주질 않았어요. 일 끝나고 시간이 끝났어도 청소를 하래요. 한두 시간 정도. 그것도 업무가 아닌 거죠.

여덟 시간 일하는 중에도 우리는 뛰어다니듯 기계 보러 다니고 화장실 갈 틈도 없죠. 여름이면 캠핑 다닐 때 쓰는 그 수도꼭지 달린 커다란 물통을 각자 한 개씩 달고 살았어요. 먼지가 많이 들어가니까 비닐로 대충 덮어두고. 언제 갈았는지 모를 정수기에서 물 받아다 벌컥 벌컥 마시면서 일하는 거죠. 그때는 그게 당연한 나의 일상이고 삶이고 그런 거예요. 그때 그렇게 빨리빨리 기계가 나인지 내가 기계인지 모르게 뛰어다니던 게 습관이 돼서 그랬는지 나와서도 뭐든 빨리빨리 하는 게 몸에 배어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거기서 일할 때 우리는 술도 빨리 먹는 거예요. 남들은 안주 먹으면서 천천히 마시는데 우리는 뗏이 급한지 후루룩 마셔 버려요. 우리가 가면 술집에서 좋아했죠.

회사에서 단체로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 업무 자체가 굉장히 몸을 많이 움직이는 거라서 혈액순환은 아주 잘 되는지 콜레스테롤? 염증 수치? 그런 거 없고, “어우, 근육질이 튼튼하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전부터 그런 말이 있었어요. ‘일신방직 가면 살 쪽쪽 빠진다’고. 저도 거기서 한 15kg 이상 빠지더라고요. 하도 땀을 내고 뛰어다니니까 기본적으로 다들 체력도 좋고 혈관질환 이런 게 없어요. 많이 뛰지, 기름진 음식은 한 달에 한 번 회식 때나 먹지, 그래서 그런가, 거기는 아프면 일 못 하는 곳이었어요. 아프면 안 돼.

밥 먹는 시간은 중간에 삼십 분이 있어요. 그 삼십 분 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 휴게실 겸 식당 겸 옷 갈아입는 탈의실 겸, 딱 한 곳에 컨테이너처럼 조그만 게 하나 있어요, 옷에 묻은 먼지가 식판에 떨어지는지 어쩐지 모르고 국이랑 반찬 떠가지고 얼른 후루룩 먹는 거예요. 빨리 먹어야지 빨리 교대해주시니까. 그 삼십 분에 밥 먹고 커피도 마시고 수다도 떨고 지금

같았으면 ‘진짜 그걸 어떻게 했지’ 그런 생각은 해요. 밥도 중앙식당에서 음식을 가지고 와서 보온 살짝 켜놓고 간이 식당에서 먹는 건데 메뉴는 특별한 거는 없었어요. 뭐 어찌다 돌아가면서 돈가스나 특식 나온다 이런 거는 없었고 국도 김치국 같은 게 자주 나오는데, 우리끼리 어찌나 김치찌개가 먹고 싶었는지 설 때 김치 가져와서 기숙사에서 찌개를 끓여 먹었던 기억이 나요. 아주머니들은 집에서 김치 같은 거 가져와서 드시곤 했어요.

한여름이면 기숙사에 에어컨이 없으니 낮에도 밤에도 더워 죽는 거죠. 그래가지고 강당 같은 데서 에어컨 한 대 틀어놓으면, 밤에 다들 개인 이불 갖고 와서 맨바닥에 깔고 자고 일어나서 일 가고 그랬어요. 그 짓거리를 지금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그런 생활 당연시했고 진짜 막 옛날에 시골에서 물 길러다 생활하는 사람들처럼 그때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생활했으니까. 그렇게 힘들게 일한 자부심은 있는 것 같아요. 회사에 대한 자부심보다.

우리가 일하는 근무환경은 왜 그렇게 하는 건지, 진짜 온몸에 먼지 다 묻고 막 숨이랑 코에 귀에 다 들어가고 하거든요. 머리를 안 감으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근데 먼지 터는 것이 자동으로 되는 게 없고 말털 같은 재질로 된 걸로 빗질하듯 털어야 돼요. 일일이 손으로. 공장 건물 자체가 시멘트 바닥에 콘크리트여가지고 열기도 그렇지만은 환경이 깨끗하지가 않았고 화장실 위생은 지금 생각해도 진절머리가 나요. 옷 먼지 터는 기계라도 있었으면, 잠시 잠깐 쉬더라도 휴게실에 에어컨이나 하나 달아줬으면, 샤워를 좀 여유있게 했으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좀 교대해가면서 화장실 가는 시간 그 텀, 그래요, 그거는 인원 확충이 안 됐다 쳐요, 일이 워낙 급하게 돌아갔으니까. 근데 화장실도 좀 개조를 해주고 휴지도 좀 좋은 거 넣어주고 일하고 나와서 옷 좀 털 수 있게 그 바람 부는 기계도 좀 꽃아가지고 설치도 해주고 부스도 설치해주고 했다면 얼마나 좋아.

노조가 있긴 했어도 월급에서 노조활동비가 만 원씩 빠져나가는데 그냥 기념일에 선물 하나씩 주는 거 정도? 가끔 직원들이랑 고기 귀먹고 하는데, 회사에서 이런 걸 지원하는 게 아니라 노조에서 고기를 사줬죠. 상비약도 많이 없었고 일하다 체한 거 같아서 가스활명수 하나 먹고 싶어도 그거조차도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다치거나 해도 웬만해서는 대일밴드가 고작이었고 연고 같은 것도 별로 없었어요. 일 끝나고 한 번씩 회의하는데 윗분들이 오셔서 품질 개선을 위해 이런 거는 이렇게 좀 해주고 당부 사항 이야기할 때 건의를 해보기는 하는데, 말은 “알았다, 알았다” 했는데 많이 지켜지지는 않았어.

일 끝내고 동료와 함께 술 한 잔

당시에는 연령대가 다양했어요. 다들 목적이 달랐죠. 나잇대도 좀 있고 정말 연륜이 많은 육십대 위 분들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하고 자식들한테 조금 보탬이 되고 죽어야지’ 그런 분들은, 완전 베테랑이시죠. 그런 분들은 회사에 불만이 없고 옛날과 비교하면 지금이 훨 낫다, 회사가 있어서 내가 집안 일구고 살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가정을 일구고 사는 사십대, 이분들은 ‘내가 여기서 모아서 자식 결혼시켜야지’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고, 그 밑에 결혼해서 이제 막 어린이집 보내고 하는 애들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 진짜 돈이 필요한 사람들, 당장 써야 될 돈 벌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버티는 거고, 그게 아니면 삼사십대에 ‘그냥 회사 일 좀 해볼까’ 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했어요. 그리고 이십대들은 초반에는 뭣 모르고 들어와 며칠 일하고 나가는 애들도 있었지만, 저처럼 조금 건디는 애들은, 이십대 중반에 들어서 좀 건디는 애들은 꾸준히 건넸어요. 이십대도 저 같은 케이스는 많이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고등학교 때부터 여기 다녔던 애들, 그래서 제 또래 애들 중에 조장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대학을 나온 사람은 제가 유일했는데 나는 나만 힘들게 산 줄 알았더니 거기서 만난 애들 이야기 들어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한 거예요. ‘이런 게 말로만 듣던 게 있구나’ 개네들이 “야, 넌 대학까지 나왔는데 왜 이런 데 오냐?” 물어 보면, 나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으니까 “응, 그냥 그렇게 됐어” 그러고 말았어요. 일할 때는 그 친구들이 나보다 월등하고 기계 결합이라든가 이런 부분 나한테 조언해주고 가르쳐주고 내가 도움받을 때가 더 많으니까 내가 대학 나와서 뭐 더 대단할 것도 없었고 되려 위축되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우리들은 다 기도 세고 생활력이 엄청 강했죠. 그런데도 회사 일에 대해서는 위에서 뭐라고 하든 “예 알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특히 나잇대가 있으신 분들은 대부분 옛날보다 나오니까 이러나저러나 대꾸 자체를 안했고. 저 포함해서 젊고 몇 년 안 다닌 친구들은 “뭐가 불편하다, 좀 바꿔주라” 이런 이야기도 좀 해보긴 했는데, 위에서 전혀 개선을 안 해주니까 ‘안 해주는데 어쩔 거야’ 이런 식으로 되고. 위에 뭔가를 요구하기보다는 팀원들끼리 “너, 이것 좀 잘 해” 이런 말이 더 많이 오갔던 것 같아요. 어차피 말을 올려도 위에 아예 올라가질 않았던 것 같으니 몇 번 해보다가 포기하는 거죠.

작업할 때는 다들 자기 일 하기 바쁘고 조금 시간 나면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서 사는 거

죠. 그때 저한테는 회사 생활이 그냥 내 삶의 전부죠. 교대근무 자체가 개인적인 일을 딱 정해서 할 수가 없는 구조고 회사 사람들이랑 친목 이런 것도 다 회사 일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요. 바깥 친구들 만나는 것도 생활 패턴이 다르니까 계속해서 만나기 힘들고. 취미 생활 이런 것도 조금씩 하기는 해도 길지 못했구요. 어디 나다닐 시간도 애매하고 성가시니까 근처에서 머리하고 화장품 사고, 회사 안에서, 근처에서 놀고 그런 거죠. 회사 근처 미용실, 화장품 가게, 치킨집 등 규모는 작았어도 서로서로 채워주고 먹여 살리는 동지가 되더라고요. 저 다닐 때도 임동 자체가 변화가는 아니에요. 건물도 오래되고 지금도 그렇고요. 그런데도 그 작은 가게들을 서로 들어오려고 난리였죠. 왜냐? 장사가 잘되니까요. 일신방식이 먹여 살리니까요. 진짜 허름한 치킨집이 있었어요. 페리카나라고. 진짜 오래, 한 삼십년은 됐겠네요. 거기 이모님이 회사 언니 결혼할 때도 오고, 애기 돌잔치도 오고 그랬어요. 그 테두리 안에서 서로 간에 의지하고 도움 주고, 그렇게 어울려 살았던 것 같아요.

그냥 회사 안에서 회사 일을 하면서 회사 식구들과 함께 더 어울리고. 가족보다 더 같이 지내게 되는 거죠. 제가 조장할 때 같은 조장 중에 오십대 아주머니가 있었어요. 아이들도 다 키우고 그 애들이 이제 결혼을 앞둔 그분이 술을 좋아하셨는데 일은 힘들고 하니까 우리 둘이 일 이야기 하면서 종종 술을 먹는 거예요, 날마다. 회사 앞에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수퍼가 하나 있는데 일 끝나면 십분 만에 씻고 거기 가는 거야. 거기 장부 달듯이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하나 집어서 술 한 병 딱 집어가지고 먹고. 수퍼 아줌마 아저씨랑도 이제 친해져가지고 아줌마가 수퍼 방에서 뭐 이렇게 김치찌개 하나 해갖고 나오면 거기다가 술 한 잔 하면서 얘기도 하고. 그게 대부분의 생활의 낙이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구멍가게 평상이 두세 개로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또 관리자들이 오고 같이 합쳐서 놀기도 하고 우리들의 뒷풀이지요. 그게 또 그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있는 힘이었고.

남자만 관리자가 되는 회사

그때 우리 공장에 여자들이 수백 명 있었어요. 직원 대부분은 여자들이었고 남자들은 관리자들이나 수리하시는 분들, 엔지니어분들, 그런 분들이 전부죠. 관리직들은 사택도 받고 여공들을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여성들은 처음부터 인성검사, 적성검사 이런 거만 하고 들어

와서 그런지 위로 올라간다? 그런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나는 그게 좀 그랬던 거 같아. 이 회사에 들어와 기초를 닦으면서 열심히 일하고 평생을 바쳐 일하면 단계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도 있지 않나? 여기서 일하는 여성들 보면 되게 야무지고 뭘 맡겨도 똑 부러지게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중 단 한 명도 팔년을 성실히 일해도 조장, 팀장하고 끝이니까요. 팀장 위에 품질관리 하는 검수 단계가 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힘든 게 현실이었어요. 조장, 팀장,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어떤 절차에 의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리 비면 위에 관리자들끼리 알음알음해서 누구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올라가면 대무조는 오만 원 더 주고, 조장은 칠만 원, 팀장은 십만 원 더 주고. 근소한 차이죠. 오, 칠, 구, 이런 식으로.

그때는 그런 인식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직원들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관이 여자보다는 남자가 했을 때 더 잘된다, 그런 거 있잖아요. 관리자 남자는 수가 적고 여자 생산직들은 엄청 많지만 그 몇몇이 이 많은 여성을 다 관리할 수 있고, 지시한 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관리만 잘 하면 애네들은 금방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그런 분위기가 깔려있었던 것 같아요.

여자 조장들 중에는 윗사람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 하는 경우도 많았어요. 여자들끼리는 사소하지만 그 관리자분들 눈에 들고 싶어 하기도 했고, 회식이며 술자리며 인간적으로 어울리는 자리 같았지만 ‘누가 있는데 너도 좀 나와서 같이 어울리자’ 하면 싫어도 나가야 되고, 그런 게 서로 좋은 인간관계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런 분위기도 있었죠. 관리직 남자 직원들이랑 같이 회식할 때 반찬으로 고추가 나오면 그걸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이 고추가 실하네, 작은 고추가 맵네, 우리집 거보다 낫네, 요런 이야기를 농담 삼아 반찬 삼아 별 불편함 없이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게 한두 번 기분 이상하고 ‘뭘 이래?’ 하다가 반복되면 그냥 ‘그런 갑다’ 하고 같이 웃고 말고 그렇게 분위기가 되어 가요. 요새 같으면 성희롱이다 미투다 이런 것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그 정도는 그냥 농담인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기는 일이에요. 그래서 안 되었지만, 누구 하나 그걸 가지고 문제 삼거나 “이건 아니다”고 말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회사가 주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던 시절

그때 우리는 복지가 좋다고 느꼈어요. 일단 기숙사비가 엄청 싸어요. 만 원도 안 되는 돈으

로 먹여주고 재워주는 곳이 밖에는 없잖아요. 거기서 월급 꼬박꼬박 나오는 거 저축하면 다른 돈은 들어갈 데가 없으니까. 그리고 엄마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 안에 있는 어린이 집에서 이십사시간 다 돌봐줬어, 아이를. 어린이집 보육료가 한 달에 만 원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중간에 간식 같은 게 잘 나왔어요. 노조에서 한 달에 한두 번? 고기를 줬는데 그걸 모여서 같이 구워 먹고 술도 먹고.

여름이면 사택 안에 수영장 옆에서 놀고 그런 단합대회가 종종 있었어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단합을 굉장히 중요시해가지고 배구대회, 체육대회 같은 것도 좀 있었고, 친구들 회사 물어보면 그런 거는 별로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재밌고 정도 느끼고 그랬어요. 생산량 달성 경쟁을 하기도 했고 잘하면 고기도 한 번씩 내려오곤 했어요. 회사가 시설적인 업무와 관련된 그런 거는 열악한데 사람들 멍치게 하고 인간적인 관리는 잘했던 것 같아요. 이탈을 막으려고 머리를 잘 썼죠. 회사에만 있는 젊은 애들이 대부분이다 보니 단합대회를 많이 하고요.

월급은 늦게 주거나 그런 거 없이 내가 일한 만큼 이제 딱 그만큼 나왔고 상여금이 두 달에 한 번 나왔어요. 많지는 않았어요. 두 달에 한 번씩 이십에서 삼십 정도. 법에서 정한 딱 그대로 주지, 일이 힘들고 고되다고 더 주고 그런 거는 없었어요. 퇴직금도 퇴사할 때 주는 게 아니라 일년에 한 번씩 지급됐어요. 그렇게 하면 더 적게 나온다는데 거의 반강제적으로 퇴직금 동의를 돌리더라고요.

생산이 너무 안 나온다고 외부업체를 불러가지고 우리들을 교육시키고 피드백 받고 그러는데, 일 시작하기 십분 전에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지, 우리가 이렇게 단합을 잘 해서 서로 간에 정신을 차려서 일하면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런 얘기들을 했어요. 우리한테 생산성이나 품질에 대해서 문제점을 인식해라, 왜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발표를 시키고 되짚어 생각하게 하고 그랬어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준비해서 발표를 하라는데 그거 누가 하고 싶어요, 피곤하고 바쁜데. 그나마 젊고 그런 애들이 하는 거죠. 무슨 표도 작성해라, 그림으로 나타내서 보여라, 그랬죠 직원들은 싫어했어요. 사장님이 원하는 효과가 나온 것 같지도 않아요. 예를 들어, 불량이 왜 나오냐, 개선해야 될 점이 뭐냐 이래가지고 우리들이 몇 가지 이야기하면, 구조적인 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닥에 껌 같은 이물질 때문에 끌차가 미끄러지는 것 같다고 하면 그 굵은 도구를 사주면서 일 끝나고 삼십분씩 그거 제거하고 가라는 거죠. 생산직 직원들이 회사를 잘 가꿔야 애사심이 생기고 자부심이 생긴다 하여 막 벽도 닦고

구 기계들 녹슨 것도 닦고 칫솔로 액체나 크림 문혀서 닦으라고 하고요. 압튼 그런 크림이나 제거하는 기구 같은 것은 아주 잘 사다 줬어요.

내가 만든 실이 뱅뱅에 들어가고

회사는 우리에게 애사심을 키워주려고 애를 썼지만 그게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통해도 젊은 층한테는 교육받을 때 그때 잠깐뿐이고 다 먹고살려고 그냥 일하는 거죠. 교육받을 때는 윗분들이 “당신네들이 지금 이 일하는 게 이 옷에 들어가고 우리 회사에서 좋은 브랜드를 만들고 있다, 여기서 바닥부터 잘 깔아줘야 그 다음 다음이 잘 넘어갈 수가 있다, 여러분이 메인 이시다”, 이런 강조를 하곤 했어요. 우리가 만든 실로 만든 제품이 품질이 좋고, 그것이 당시에 지오다노, 베이직하우스, 뱅뱅 같은 데 들어갔고, 그런 자긍심도 심어줬어요. 크로커다일 양말은 다 일신방식이었어요. 단독이었어요. 우리가 만든 원사로 만든 양말이 우리가 아는 메이커에 들어가 옷이 되고 양말이 되고, 신어보면 질도 좋았어요.

회사에서는 조회 때마다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제품 어디 내놔도 자신 있다, 그러니 너희는 절대 자존심 무너지지 마라, 너희는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매년 생산량, 판매량 발표하고 전월대비 그래프 보여주고 미흡한 부분들 개선해나가자”고 강조했구요. 게 중에 특출나게 일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많이는 아니고 한 사람씩 서울에 있는 본사 구경을 시켜주기도 했어요. 회사 본사 건물을 사장님이 샀다는데, 좀 웃긴 게, 지금 회사가 자금이 부족해서 건물 전체를 다 못 쓰고 임대를 주고 있다, 그런데 생산량이 안 좋아지면 층을 나눠서 팔아야 될 상황이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회사를 살려내야 한다, 그런 강조를 하기도 했죠. 그런데 몇 년 동안 일해오면서 ‘와, 우리 회사 정말 좋다, 내가 이런 일을 한다’, 그런 스스로 느끼는 자부심과 만족감을 심어주기에는 그 소재로는 약했죠. 우리들은 그 짧은 시간에 그 많은 기계들을 다 다뤄야 했기 때문에 기계 결합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야기를 했지만, 품질을 위한 생산성 그런 거는 그냥 자기만의 노하우인 거지 서로 말하지도 않았어요. 뭘 국가 기밀이야. 왜냐면 그런 이야기를 할 틈도 없는 거죠. 다들 너무 바빠, 뛰어댕겨야 했으니까.

사람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열악한 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딱 침부터 죽어도 안 받아

들어지면 그만두는 것이지만, 차츰차츰 내가 거기서 그 힘든 거를 참고 견디다 보면, ‘애가 이것도 하네, 이런 것까지 해내네’ 해가지고 오히려 더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매를 맞은 사람이 더 매도 잘 맞는다고 ‘그 열악한 환경에서 내가, 그래 나도 이걸 버텼어’ 하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거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힘든 일을 하고, 그 힘든 돈을 벌면서 동료들하고 조금 이렇게 저렇게 어울리면서 술 먹고 단합대회 하고 했던 것들이 어느 순간 내 스스로 익숙해지고. 그 익숙이 빨라지는 거죠. 그 익숙도 그래서 ‘거기에 안주해버리는 경우가 많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신이 나쁜 회사는 아니었지만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고 겪었던 고충은 이후 시대에서는 절대 나오지 말아야 되겠죠.

일신방식을 나오다

일신방식에 있을 때 어느 정도 적응을 하고 매일 반복되는 빠른 일거리에 파묻혀 살다 보니 어느 순간 그냥 돈 버는 기계 같은 거예요. 여기서 오랫동안 일했는데 누구 하나 인정해주지도 않고 대우받는 것 같지도 않고 딱 여자가 할 수 있는 그 부분까지만, 그 선에서 더 넘어가서도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없는 그 회사에서 한계가 오더라고요. 회사에 그만둔다고 했을 때 “꼭 퇴사해야 되겠냐”, “앞으로 무슨 일을 할 거냐” 하면서 개인 사정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도 “나간다” 하니 “여기서 있던 일이랑 배운 것 등을 밖에 나가서 발설하지 말 것을 서약서를 쓰고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뭐, 그리 대단한 것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때 일신방식이 다른 회사에 비해 규모가 제일 크고 제일 빠르고 힘들다고 들었어요. 물레방적 다니다가 들어온 사람들도 힘들다고 나가는 사람도 있었고 ‘왕년에 전남방직에서 일해 봤어’ 그런 사람들도 일 년도 안 돼서 그만두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힘들다고. 저는 조장까지 하고 그만둔다 하니까 회사에서는 잡고 싶었을 거예요.

아버지랑은 고3 바이올린 레슨 사건 이후로 서로 말이 없어지기도 해서 그 당시에 조언을 들을 상황이 아니었고, 나도 ‘공장이 아니라 어디 사무직으로 내 일을 좀 찾았으면 좀 나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솔직히 일신에서 일이 나의 원동력이 되었고 다른 일을 할 때도 기본 힘이 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좀 더 빨리 그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않고 전공을 살려서 나

갔다던, 여러 군데 방황하지 않고 한 곳에 좀 더 정착하지 않았을까,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를 그렇게 데려갔다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방직 일도 했는데 이걸 못하랴

2009년에 나와가지고 사회생활을 하고 싶어가지고 친구 추천을 받아서 어디 회계사무실 사무직으로 바로 들어갔어요. 거기가 일신방직보다 훨씬 더 박봉이었는데 '나도 사회 경험을 해보자' 하고 간 거죠. 근데 진짜 거기서 멘탈 붕괴가 온 거예요. 육년 동안 계속 교대근무하고 빨리빨리 하려는 게 몸에 익숙해져가지고 마음은 급한데 문서 하나 팩스 하나 제대로 보낼 줄 모르고 복사기 하나 만질 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아주 멘붕이 제대로 왔어요. 남들 다 하는 건데 팩스 앞면 뒷면도 구별을 못해가지고 막 더 긴장이 되고. 그런 간단한 업무를 물어보면 '재 뭐야?' 이런 식으로 쳐다보는 것 같고. 많이 위축이 되었어요. 소개로 들어가서 진짜 초보인 내가 남들보다 몇만 원 더 받았는데 '진짜 재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왜 더 주지?' 사소한 일이만 원 때문에 시기 질투가 느껴지고 너무 자존심 상해서 '다시, 나, 일신방직으로 돌아야 되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나 거기서 일 좀 한다' 했는데 여기서는 전혀 뭐가 안되고 해서 얼마 못 버티고 나왔어요. 일신 나오고 첫 직장에서는 멘붕 오고 탈탈 털려서 나왔죠.

그 후에 시에서 운영하는 체육문화센터에 들어갔어요. 하남빛고을센터요. 처음에 안내 데스크에서 일했는데 회원들한테 락커 키 주고 입장 받고 회원권 만들어주고. 좀 빨리 해야 되는 일이지 않아요. 일신방직에서 하던 빨리 하던 습관이 거기서는 맞는 거예요. 거기서는 사람들이 '어, 재, 일 좀 하네' 하는 거죠. 회계사무실에서 팍 죽었던 기가 거기서 살아난 거지.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다 젊으니까 일도 재미도 있고 아주 적응을 했죠. 육개월 만에 안내 데스크에서 윗층 총무부로 픽업이 됐어요. 거기서는 언니가 차근차근 잘 가르쳐줬고 일년 넘으니까 이제 문서도 작성할 줄 알게 되고 기본적인 사무실 스타일에 적응을 했어요. 좋았는데 이년 되갈 때 쯤 광주시에서 인수를 해가지고 직영을 하게 돼가지고 저는 나오게 됐어요.

2011년에 인력 위탁 받아서 회사로 파견인력을 보내주는 회사에 취직을 했어요. 그 업체 소속으로 LH공사로 파견을 나가서 거기서 팔년을 있었어요. 일이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

서 이 부서 저 부서 옮겨 다니면서 일했어요. 일신에서 나와서 한 회사에 정착하는 기간이 점점 길어졌죠. 코로나 바로 직전까지 다녔고 거기 다니면서 아이를 갖고 결혼도 했죠. 계속 다녔으면 더 좋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으로 바뀌고 나서 시험 볼 기회도 있고 했는데 결혼하고서 육아랑 병행을 하다 보니까 여러가지로 힘이 들더라고요. 거기 직원들이 의지가 많이 되어줬고 "이 직원 진짜 일 잘한다"고 위엿분들한테 말도 잘해주고 그랬는데 시험을 떨어지니까 못 있겠더라고요.

그렇게 나와서 실업급여 타고 조기 취업 수당 타고 암튼 안 쉬고 바로바로 이어서 급여 탈수 있는 거 다 타고 또 취업하고 그랬네요. 지금은 계약직인데 사무직이고 자동차부품 수출하는 회사에 다녀요. 직원들 작업 시간 체크해서 급여 맞춰주고 자재 부품 이런 거 주문 넣고 이런 일을 해요. 공사에 있을 때 전문직처럼 일하다가 여기 와서 영수증 처리하고 전표 업무 보고 하다못해 쓰레기통 청소까지 하려니 처음엔 좀 버벅했는데 또 옛날 생각 떠올리고 하니깐 괜찮아지더라고요. 괜찮아요. 이 일 하면서 나중에 경매업 하고 싶어서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하고 있어요. 컴활 시험도 독학으로 자격증 땀고요. 예전에 하이닉스 잠깐 다닐 때 독학으로 워드 자격증 땀고 LH 다닐 때 사회복지사도 땀고요. 주거복지사도 딸까 했었는데 그때는 그게 혜택이 별로인 것 같아서 관뒀어요. 살면서 늘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걸 해야 돼', 혹은 '필요해' 하면 그걸 하기 위해서 안 가리고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고요.

일신에서 나왔을 때 저한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된 거죠. 중간중간에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일신방직 때 일을 떠올리면서 힘을 많이 얻었어요. '내가 그것도 했는데 이걸 못하랴' 아무튼 인생에 대한 생활력은 그때 다 길러졌어요. 일신방직 이전 삶도 그랬지만 그 이후 삶도 제가 남들과 비교했을 때 이런 환경이 그렇게 흔할까? 흔하지 않은 환경이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그랬고. 그런 거를 버틸 수 있는 힘이 됐던 거 같아. 거기를 다녀와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고 많이 바뀌었죠.

일신방직에서 일한 게 있어서 그런가 저는 다른 일 하면서도 힘들 때는 투잡으로 택배도 한 번씩 뛰고 그랬거든요. 안 될 것 같죠? 그게 되더라고요. 거기서 일을 해봤기 때문에 진짜 내가 다른 삶을 살기 위한 원동력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이 힘들어도 '나 별면 할 수 있어. 나 별 수 있어.' 일이 힘들고 피곤해, 근데 '나 일신에서도 일했는데? 내가 하면 돼. 일이 무섭지 않아.'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정말 절박하면 누구나

거기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들은 가장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한테 일신방직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던 것 같아요. 내가 가진 헤쳐나가는 그 힘, '내가 하면 된다'는 그 자신감은 요즘 사람들이 쉽게 가질 수 없는 것들이에요. 워낙에 우리들이 절박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기도 했지만 저같은 사람이 제 주변에 보면 많지는 않아요. 진짜 귀해. 그래서 더 일신방직이 없어져서도 안 되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세상에는 다양한 상황과 처지의 사람들이 있고 누군가는 삶의 밑천을 만들고 내 삶을 꾸려갈 힘을 얻어야 하니까요.

나와 연결된 또 다른 생명

LH에 근무할 때 결혼하고 아이를 둘 낳았는데 제 기대와 달리 결혼생활이 녹록지 않았어요. 남편한테 첫눈에 반해서 빠져들 듯 연애하고 엄청 좋아했고 아기를 갖게 되어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시댁과 갈등, 남편과 좁혀지지 않는 차이 때문에 자주 싸우게 되었고, 당시에 애들이 아주 어렸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었죠. 몸과 마음이 피폐해지다 보니 나도 모르게 거친 말과 행동을 쏟아내는 것을 내 애들이 보고 있고 그게 영향을 미치면서 클 것 같더라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나도 살고 우리 애들도 살려면 내가 이혼을 해야겠구나' 독한 맘을 먹고 결혼생활을 정리했어요. 그러는 와중에도 일을 쉬어본 적은 없었어요. 짧은 결혼생활이었지만 나한테는 애들이 두 명 있고 나가서 혼자 살아가려면 더 강하게 버텨야 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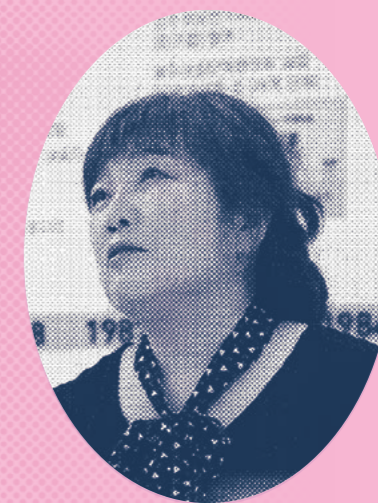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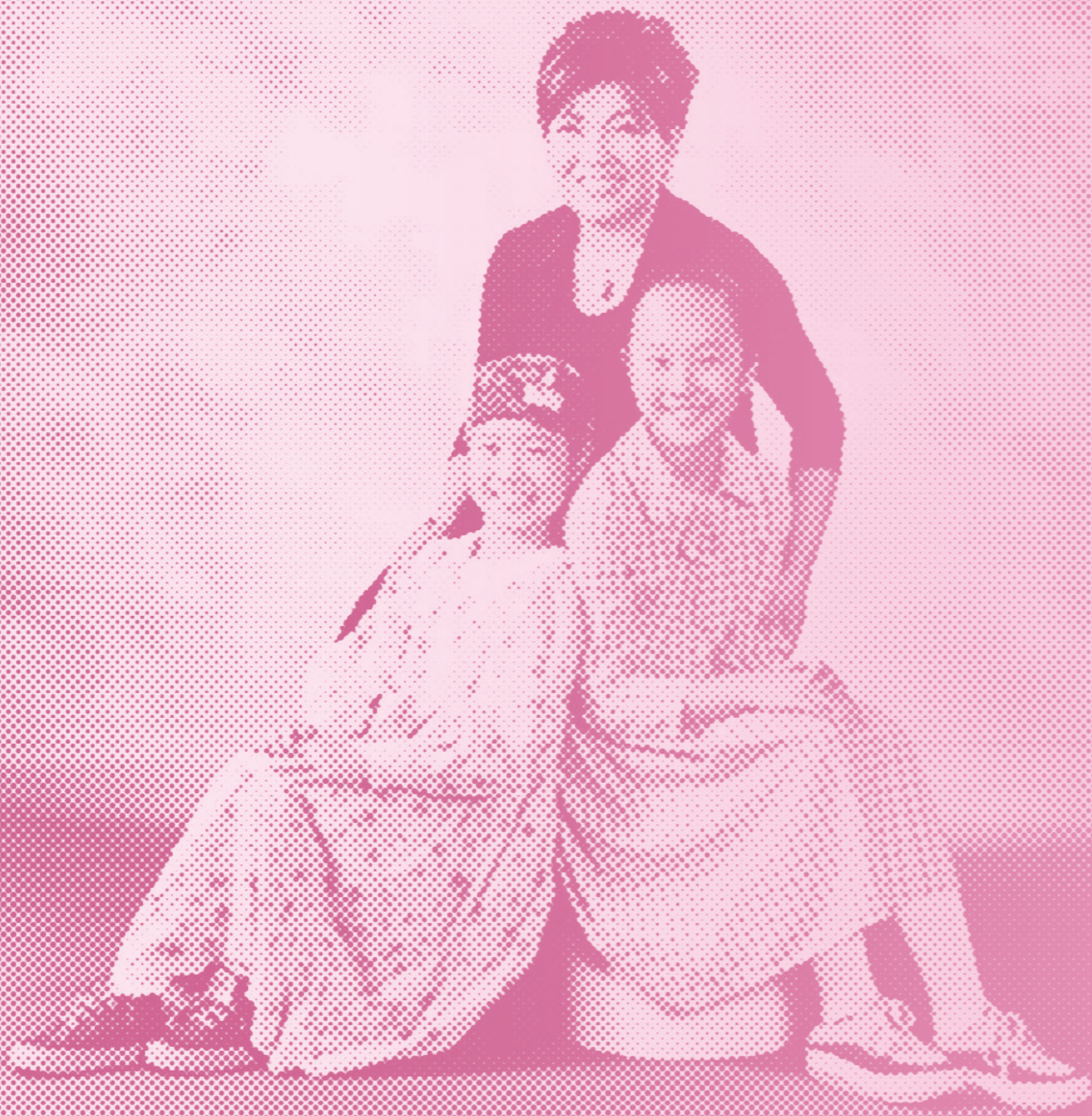
저한테는 우리 애들이 인생 최고 선물이고 전부예요. 우리 딸이 이제 아홉 살인데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커서 엄마 호강하게 해주고 선물도 사주고 비싼 가방도 사줄 거라고요. (웃음)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백화점으로 갔어요. 가서 내가 갖고 싶은 가방을 직접 보여주고 핸드폰 사진도 찍고요. "엄마가 갖고 싶은 거는 이거야. 이것을 가지려면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고 좋은 직장도 가져야 돼. 그러면 언젠가 엄마한테 이거 사줄 수 있어"라고 말해주고 돌아왔어요. 저는 우리 애들 건강하게 잘 크고 공부 잘하고 나는 그 뒷바라지 잘하고 그러면 돼요.



광주여성구술채록단과 인터뷰 하면서 방직공장 생활에 대해 설명하는 김은경

생애연보

- 1982년(1세) 전남 나주에서 1남 2녀 중 장녀로 태어남
- 1989년(8세) 나주초등학교 입학
- 1995년(14세) 나주중학교 입학
- 1998년(17세) 나주여상 진학
교내 관현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접함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바이올린에 심취함
- 2000년(19세) 하이닉스 단기 취업
졸업 전 여름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 하이닉스에서 현장 경험
- 2001년(20세) 광주 서강전문대학 회계학과 입학
기본 학비 외에는 스스로 벌어서 생활함
- 2003년(22세) 일신방직 입사
7년 후 퇴사
- 2009년(28세) 회계사무소에서 사무직으로 육개월 근무 후 퇴사
- 2010년(29세)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에서 근무
능력을 인정받아 사무직으로 전환됨
- 2011년(30세) 인력위탁회사 취업
위탁 사원으로 LH공사에서 팔년 간 근무
- 2012년(31세) 첫눈에 반한 남편과 결혼
두 아이를 낳음
남편의 불성실한 결혼생활로 인해 둘째 뉘 즈음 협의 이혼
- 2019년(38세) LH 퇴사
- 2021년(현재) 자동차부품회사 사무직 근무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중



정미숙

세상에 보이지 않은 통증,
모두 다 등에 핀 꽃이다

김유정 · 윤혜경



세상에 보이지 않은 통증, 모두 다 등에 핀 꽃이다

생애 개요

정미숙은 1963년 전남 고흥에서 육남매 중 둘째이자 장녀로 태어났다. 어머니가 고흥 읍내에서 큰 요릿집을 해서 유복했고, 아버지는 딸을 업고 밤낮으로 극장에 다니며 문화적 감수성을 길러주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가세가 급격하게 기울어 셋방살이를 전전하다 열너다섯 살 즈음 이모들이 있던 서울로 올라갔다.

스물셋에 남편을 만나 연애하다 스물여섯에 결혼해 나주 시댁에서 신접살림을 차렸다. 같은 해에 장녀를 출산하고, 사년 뒤인 서른 살에는 차녀를 출산했다. 서른두 살에 광주 두암동으로 이사했는데, 가난으로 인해 자주 옮겨다녀야 했던 경험을 자녀가 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그 집에서만 이십칠 년을 살았다.

서른여덟에 독학으로 시를 배워 첫 시집 『이카루스의 날개』를 출간했다. 마흔세 살에 인력파견업체를 통해 하남공단에 서 하도급 업체 비정규직으로 이 년 동안 이곳저곳에서 일했다.

2008년, 버스에서 일신방직 구인광고를 보고 지원하면서 일신방직에서 일하게 되었다. 처음 갔던 곳은 공무원이었다. 남초(男超) 부서에 들어온 첫 여성노동자인데다 관련 분야 자격증이나 경력도 없었던 터라 많은 차별과 편견에 시달렸다. 이후로도 포장팀에서 삼개월, 생산1팀에서 지원업무 이년, 생산3팀에서 지원업무 등 부서와 담당 업무가 자주 바뀌며 겹고고 어울리지 못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포장3팀에서 실타래의 옷을 벗기는 스트리퍼 업무를 맡게 되고, 이 업무를 일신방직을 나올 때까지 계속했다. 일신방직에서 십년을 일했던 2018년에 일신방직 노동 경험을 담은 시집 『등에 핀 꽃』을 출간했다. 2019년에는 정년이 지나 정규직에서 비정규직으로 계약서를 썼는데, 몇 달 되지 않아 제2공장이 있는 평동으로 근무지가 변경되었다. 평동공장으로 가겠다고 했으나 위로금 등을 제시하며 사직을 권유하는 회사측 요구대로 퇴사했다.

이후 큰딸이 있는 세종으로 이주해 시를 쓰고 유화를 그리며 살고 있다.

문화적 감성을 키우던 유복한 유년

고흥군 풍양면에서 태어나고 읍내에서 유년을 보냈어요. 어머니는 고흥 읍내에서 ‘월송옥’이라는 큰 요릿집을 했어요. 고흥 읍내에선 최초로 타일이 박힌 집이었어요. 현관문 유리창에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박혀 있었어요. 방이 대여섯 개 정도 되는 큰 요릿집이어서 어려서는 풍족했죠. 아버지는 당시 여수고를 나오신 상당한 지식인이셨거든요. 동네에서 신문의 한자를 읽어주는 그런 분이셨어요. 엄마가 낮에도 밤에도 장사하셔야 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업고 극장에 자주 다녔어요. 저 어릴 때는 읍내에 극장이 ‘세계극장’이랑 ‘고흥극장’이라고 두 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낮에는 고흥극장을 가고 저녁에는 세계극장을 가고 그런 아이로 성장해요. 극장에서 남진이 나팔바지 입은 사진도 보고 ‘닥터 지바고’ 영화 보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극장 다녔던 경험 때문에 시적인 감각이나 그림 그리는 영감이나 그런 게 많이 생겼을 거예요, 정서적으로.

저희 큰아버지께서 집안 장남이고 그러니까 동생인 아버지가 형님 대신 군대에 가신 거예요. 형님 이름으로 군대를 한 번 간 거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아버지가 다녀오시는 당신이 갈 차례가 되니까 죽어도 안 간다고 한 거예요. 그렇게 군필 거부자가 돼서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경제적 활동을 하시진 않으셨어요. 엄마가 사십년을 식당일 해서 육남매를 다 키우시다시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 일학년 때 쯤 엄청 몰락했거든요. 오빠 수학 가르쳐주는 입주 가정교사까지 있다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면서 엄마가 생선 장사도 하고 채소 장사도 하고 그랬죠. 셋방살이로 이사만 열 번을 다니고 신발이 찢어지고 없는데 신발 살 돈도 없었어요. 꽃신만 신고 다니다가 코고무신, 까만 고무신 있잖아요, 그 고무신도 떨어졌는데 까만 실도 없었나 봐요. 엄마가 하얀 실로 꿰매신 적도 있어요.

시대로 일하며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중학교 가기 전에 (가세가) 많이 기울었어요. 그러면서 오빠가 먼저 서울에 올라갔고 저 가면서 자취를 했죠. 제가 열네 살, 열다섯 그때였던 것 같아요. 나중에 남동생도 올라와서 오

빠까지 셋이서 자취했어요. 그러다 오빠가 많이 아파서 내려가게 됐어요. 저는 저대로 이모 셋이 서울에 살아서 이모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뭐 회사 기숙사 같은 데서 지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너무 외롭더라고요.

일했던 곳은 경기도에 있는 삼구통산이라고 일본에 수출도 하는 큰 의류회사였어요. 제가 하는 일은 보조였는데, 일본말로 시다라고 하죠. 일하면서 야간 중고등학교를 다녔어요. 그때부터 전 뺏속까지 노동자가 된 거예요. 예전에는 여공이라는 게 창피해서 어디 가서 말도 못했고, 그래서 이 노동에서 탈출하고 싶었죠. 그래서지 일을 일 년을 못 채우고 떠돌아다녔는데 그래도 학교는 계속 다녔어요. 그때는 그만뒀다가 재입사를 하고 쉬었다가 또 재입사하고 그게 반복됐어요. 그래서 기능도 늘지 않았어요. 그런 게 중요한지 어쩐지 몰랐어요. 왜냐면 누가 알려준 사람도 없었을 뿐더러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주말이면 미술전 관람 가고 영화관 가고 도서관 가고 그런 학구열이 너무 셋거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았고……. 딴 세계에 살고 있었던 거죠. 그건 후회 안해요. 지금 나의 자양분이 돼 준 거니까.



20대 1980년대 즈음
활달한 성품이 드러난다.

스물세 살에 제가 처음 연애를 시작했어요. 스물여섯 살에 남편과 결혼하고 큰아이가 태어나요. 결혼하면서 바로 나주에서 시댁살이를 일년 칠개월을 하고 삼십칠만 원 가지고 분가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오개년 계획을 세웠어요. 진짜 딱 오년 만에 아파트로 왔어요. 남편 월

급 같은 거 꼬박꼬박 모아서 두암동 주공아파트 삼단지로 입주했거든요. 제가 어려서 집이 가난해지니까 이사를 너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제 큰아이만큼은 이사 안 다니고 전학 안 시키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애 일곱 살에 이사 와서 그 집에서만 이십칠 년을 살았어요. 저랑 아이들 아무 이상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건재하게 된 버팀목이 된 집이에요.

시를 쓰기 시작하다



정미숙은 2000년에 첫 시집 『이카루스의 날개』를 펴냈다. 이듬해 정미숙의 시에 노의웅 화백의 그림을 더한 시화전을 개최했다.

2000년에 첫 시집을 내고 등단을 해요. 『이카루스의 날개』라고, 이게 좀 이슈가 됐어요. 신인인데도 발문을 문병란 조선대학교 교수님이 써주시기도 했고. 시집 나오고 일곡도서관하고 서구문화센터 초당대학교에서 강의했어요. 2001년도에 호남대 예술학장 하신 노의웅⁶⁰ 교수님이 그림을 그려주셔서 시화전을 하게 돼요. 제가 이슈가 됐던 건 저하고 제 딸이 함께 출간했던 이유도 있는 것 같아요. 큰아이한테 오년 동안 일기를 쓰면 엄마가 일기집을 내주겠다고 그래서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에 제 첫 시집하고 같이 동시에 모녀 출판을 했어요.

⁶⁰ 전 호남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광주지역 중견 서양화가로 '노의웅 미술관'을 운영하고 있다.



첫 시집 『이카루스의 날개』 출판 이후 일곡도서관, 초당대학교에서 강의하는 모습

저는 시 이론부터 시작해서 독학으로 시를 공부 했어요. 그림도 시도. 하루에 열세 시간씩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눈이 빛나면서 엉덩이 아픈지도 모르고 화장실 가는 거 외에는 무조건 시. 그렇게 파고들었죠. 그렇게 습작해놓은 걸 모아서 출간한 거예요. 근데 감성만 가지고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문흥지구에서 블루마운틴이라는 레스토랑을 인수해서 운영했어요. 레스토랑은 오년간 운영했는데 망했어요.



2000년, 광주 두암동 거주 시절 장녀 차녀와 함께 장녀와 함께 모녀 출판한 것도 이 시기이다.

서류에는 일한 흔적도 없는 파견 노동자

일신방직 들어가기 전에 이년 정도 하남공단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했어요. 용역업체에서 소개해주는 대로 전자회사 하청업체 여기저기에서 일했어요. 플라스틱 성형되어 나왔을 때 그걸 박스에 싸는 일도 하고 삼성에 납품하는 에어컨 하도급 업체에서 드릴 박는 일도 하고, 뭐 이런 단순 반복 노동이었죠. 이 작은 손으로 이렇게 커다란 드릴로 계속 박아야 해요. 근데 그거를 빨리 못 한다고 뭐라고 하고 그랬어요. 용역에서 비정규직을 어떻게 대하냐면 모집 광고가 떠오. 그러면 가잖아요? 가서 일할 만하면은 언제든지 거기서 “이제 필요 없다. 나가라” 하면 하루아침에 잘려요. 저는 어제까지 웃으며 지냈던 분이 일요일 밤에 전화해서 나오지 말라고 전화한 적도 있어요. 정말 황당해요. 단두대 위에 세워놓고 딱 자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매몰차게 잘라버려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용역업체에서도 수시로 ‘어디로 가라’고 연락해요. 그 얘기는 자르는 거예요. 그야말로 기계적으로 없어져 사라지는 거예요.

환경이 정말 열악했어요. 옷 갈아입는 겸 쉬는 공간이 있었는데, 오래 실까 봐 그랬는지 스티로폼 그런 거, 의자도 아니에요. 발판 같은 거를 쉬라고 놔두고 캐비닛 놔두고. 거기 사람들이 오분밖에 안 쉬는 거예요. 앉자마자 물 좀 마시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저는 ‘아, 한

사람당 오분 쉬는데 이 오분을 더 쉬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정말 월급도 적었어요. 그리고 진짜 말로 다할 수 없이 부러먹어요. 거기다 연말정산 하려고 서류 떼려고 하니까 저는 일한 흔적이 없었어요. 소득세 낸 적도 없고 사대보험 다 넣어준다고 했는데 하나도 가입 안 됐더라고요. 어디에도 제가 일한 흔적이 없는 거예요. 유명인 거예요. 일을 다녔는데 (통근)버스 타고 다니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모르긴 몰라도 지금도 아마 많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마흔일곱 살 방직공장 신입사원

일신방직 들어갔던 때, 제 나이가 마흔일곱인가 그랬을 거예요. 사십 대 중반이었는데 아들이 대학을 다녀야 하고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입사하게 됐어요. 그때는 버스에 항상 일신방직 사원 홍보, 그게 맨날 붙어 있는 거예요. ‘저기 가면 내가 혹시 취업하지 않을까’ 하고 이력서를 써서 넣었죠. 면접 갔는데 그때 한 열 명 정도 모였었는데 제가 그 나이에 초 롱초롱했었나 봐요. 이십 대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 열 명 중에 우연히 그 경쟁을 뚫고 제가 선택된 거예요.

처음 간 곳은 공무팀이라고, 전기팀예요. 거기는 다 남자들밖에 없었어요. 제가 남자 사수들 따라 다니면서 처음 한 게 삼킬로짜리 연장통 차고 현장 돌면서 변전소를 눈으로 보는 거예요. 약 구십만 평에 여덟 군데에 있어요. 고압선이 흐르는 변전소에 번호 열쇠로 수십 군데를 열고 들어가 매일 아침 전기용량을 기록하고 계산하라고 지시를 받으면서, 너무나 어려운 근무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일신방직이 엄청 넓었어요. 자전거가 없으면 밥도 못 먹을 정도였으니까요. 그걸 매일 돌려니 정신이 없었죠. 그리고 현장 판넬에 들어가는 부속품이 아주 작고 또 글자도 작아요. 제가 시력이 1.2, 1.5 이랬는데 육개월만에 0.8이 돼버리더라고요.

사수들은 이십대, 삼십대 남자들이에요. 그들은 전공도 했고 산업기사 자격증도 있고 저하고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그들을 따라가겠어요. 근데 자기들처럼 따라와 달래요. 이게 참……. 말도 못할 일들이 많았죠. 어느 날은 도면을 보래요. 내가 언제 도면을 봤겠어요. 그런데 그냥 외우래요, 공부해서. 그리고 어느 날은 소문자 비(b)하고 디(d)하고 약간 헷갈리니까 얼마나 호통을 치는지. 한겨울인데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가르치는 거

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 말이었냐면 “우리가 배울 때는 수시로 펜치를 집어 던져서 펜치가 눈앞에 날아다니고 그랬다. 이걸 아무것도 아니다” 그때 그 사수가 저보다 엄청 어린데 “미숙씨”라고 부르더라고요. 자기들이 밑엿사람 편안하게 대한다고 “미숙씨”,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뭐 이런 식이고. 쫓아내기로 작정한 거였죠. 그런데 눈치 없이 난 배우려고 막 한 거야. 그때가 2008년에 있었던 일이에요. 또 어느 날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계가 고장이 났는데 무조건 가서 나보고 고치래요. 비 오는 날에 목장갑 하나 끼고 기계를 고치라는 거예요. 저는 기술자가 아니니까 가르쳐준 걸 기억해서 연결해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가 왔으니까 전기가 막 온 거예요. 전기가 온몸을 막 진동하고 머리가 삐죽삐죽 서고. 그걸 아무런 사전 지식도 안 가르쳐주고……. 자기들은 어디서 숨어서 날 지켜봤겠죠? 난 그랬을 거라고 생각해요.

밤에 사수하고 근무한 적이 있어요. 공장 천장이 한 사미터 정도 돼요. 거기 사다리를 타고 사미터 천장에 매달려서 형광등을 바꾸라는 거예요. 자기는 다른 거 한다고 하면서. 밑에서 잡아주든지 지도해주든지 해야 하잖아요. 뉴마브르⁶¹라는 문어 다리처럼 생긴 애가 지나 다니면서 풍면⁶²을 싹 흡수해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기계가 돌아요. 그게 약 사미터 천장 아래 기계가 부착되어 문어 다리처럼 두 개씩 붙어 빠른 속도로 다녀요. 그 기계 사이로 밤새도록 전구를 바꾸라는 거예요. 삼미터 위에서 연장 삼킬로짜리를 매고. 여기 전구 바꾸면 저기서 뉴마브르가 올 거 아니에요. 오만 볼트인가 되는 알피엠(rpm)으로. 그럼 또 내려가는 거야. 발바닥 엄청 아파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무섭기도 하고. 노동법에는 이인일조로 움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자기는 안 가고 나 혼자 가서 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게 스위치가 있어요. 버튼 하나만 누르면 그게 멈추거든요. 그걸 안 가르쳐준 거야. 이걸 누르라는 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게 얼마나 빠른데 그걸 혼자서 하라고……. 제 두 번째 시집이 『등에 핀 꽃』인데 거기에 수록된 시가 이걸 바탕으로 한 거예요.

61 뉴마브르. D 형태로 된 트래블링 클리너.

62 風綿. 천을 짜는 과정에서 주변 먼지가 실에 붙거나 같이 얽혀 짜인 것.

등에 핀 꽃

애기 낳으러 들어가기 전

뒤돌아보게 한

땀물에 놓인 신발 내려다본

옛 어미들처럼

육중한 맨홀 뚜껑 열리며

맨홀 뚜껑 다시 쳐다보면서

계단으로 내려갔었지

허리에 3kg 무게의 연장통 차고서

사다리 타고 올라가

4m의 천장에 매달려

형광등 40개 바꾸던 시절

지금처럼 동작 스위치 버튼

한 번만 누를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서럽지 않았으리요

그 무시무시한 뉴마브르

제 할 일을 위해 거대한

문어 다리 이끌고

기계 사이사이 다니다가 사다리 덮쳐버리면

1분당 2만 6천 rpm 속도 기계 위에 낙상하여

백다섯 조각의 처형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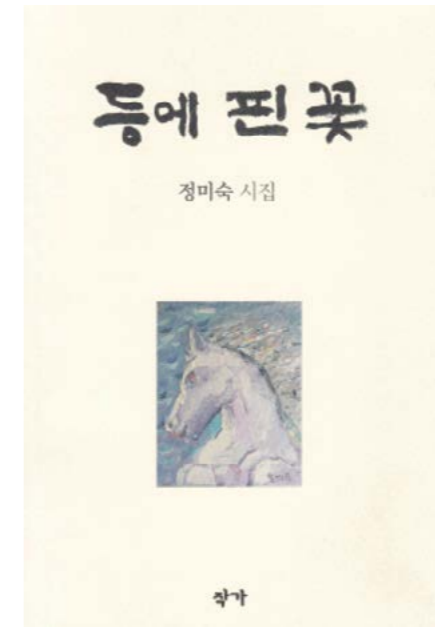
뽕뽕이 흩어진 육신
수습이나 할 수 있었을까
등에 핀 꽃
지옥문 넘나들기도 했었지

고장난 자전거 타고 달리다
어두운 빙판길 위에
나뒹굴며
더듬더듬
흩어진 부품들 찾을 때
자라지 못한 손톱마저
뺏고 닳아져 시린 그 애처로움에
구름에 가려진 초승달마저
글썽이든 눈망을 되어
내려다보았지

여러 해 보내고 보니
귀신보다 무서운 게 졸음이요
뼈 마디마디에 전기 고문 같은 통증 남아

지금도
등에 꽃이 피고 있다

세상에 보이지 않은 통증
모두 다
등에 핀 꽃이다



정미숙의 두번째 시집 『등에 핀 꽃』(2018)
일신방직의 노동경험을 담은 총 칠십여 편의 시가 담겨 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아, 내가 미꾸라지 어항 속의 장어구나’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어항 속에 왜, 미꾸라지가 엄청 많아요. 미꾸라지들이 느슨해지잖아요, 그럴 때 뭐 이렇게 생산성을 목표로 장어 한 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장어한테 안 먹히려고 미꾸라지들이 몸부림을 칠 거 아니에요, 그 수많은 미꾸라지가. ‘아, 그래서 나를 선택했구나’ 했죠. 처음에는 모르고 좋아했는데 한 일주일 지나고 안 거예요. 회사에서는 시도한 거죠. 여성인 저를 하나 실험적으로 던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엄청 반대했죠. 자기들 보기엔 여자가 자리를 뺏은 거니까요. 그래도 처음엔 엄청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근사한 말로 엔지니어라고 하잖아요? 아이들이 저한테 “엄만 엔지니어가 됐다, 기계를 만진다” 하니까, 그게 자랑스럽고 행복하더라고요. 저는 ‘제2의 도전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기술 배워보려고 하고 연마를 하는데 점점 그게 아닌 거야. 주변에서 압박이 오고. 나중에 안 사실인데 주변에서 “오늘도 출근했대?”, “아직도 안 그만뒀대?” 그랬더라고요. 제가 무뎠어서 그런 걸 뒤늦게 알았어요. 차츰 그런 게 느껴지는데 저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도 이 나이에 (이직이) 쉽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버티보자’ 했어요. 왜냐하면 회사 앞 사원 아파트를 여

사원에게 줄 수도 있대서 그럼 언제든지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독립할 수 있고 사대보험이 되니까. 특히 의료보험 혜택이 있고. 그래서 버티면서 팔개월쯤 일했는데 안 나가니까 저를 정말 최악의,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런 곳으로 보내더라고요. 말도 하지 않고 월요일에 출근했는데 그리 가라는 거야.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공장 떠돌이 인생

그렇게 간 곳이 포장팀이라고, 거기서는 개당 육킬로가 넘는 실을 하루에 몇천 개씩 포장하는 그런 데였어요. 하루아침에 거기로 저를 쫓아 보내더라고요. 그래도 나는 아무래도 일귀낸 게 없고 돈이 필요했으니까, 아이 키워야 하고 또 큰 아이는 대학원을 가고 싶다 하고. 우리는 연속으로 네 살 터울이라 동시에 돈이 들어가는 짬이었고. 그때 당시에 남편과 이혼 단계여서 혼자 책임지고 가야 하니까 그만두지 않았는데, 그 포장하는 데서 제가 일을 못 한다고 다른 데로 보냈어요. ‘일 못한다’고 자르면 실업급여 줘야 하니까 다른 데로 보낸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생산1팀인데 거기서는 이것저것 지원하는 일을 했어요. 보수 일도 했는데 일신방식이 일 년에 한두 번씩 보수공사를 해요. 헌 기계를 가지고 개조도 하기도 하고 땅을 파갖고 시설을 만들고 그러면 따라다니면서, 외부에서 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조를 하라고. 아니면 회사 사람들 몇을 남자 둘에 여자 한 명 해서 보조 일을 하게끔 하더라고요. 실잇기도 했는데, 방직공장은 실을 잘 이어야 해요. 근데 그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 거만 했어도 그냥 삼교대에서 그것만 잇고 퇴근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거 할 때마다 다치고 안 되니까 이게 떠돌이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서 이년 정도 했죠.

그러다가 마지막으로 간 데가 생산3팀인데, 거기서도 처음엔 지원 일을 했어요. 현장에서 기계에 실이 떨어지면 가서 이어준다든가 또 어디에서 사람이 안 나와서 없으면 손을 넣어준다든가. 말하자면 포장실에 사람이 안 나왔다고 그럼 포장실 지원 가는 거예요. 포장실이 너무 힘들어서 제일 가기 싫었던 곳이에요. 그러다가 뭘 했냐면 스트리퍼라 해서, 숨에서 실이 만들어지잖아요, 이 실을 아주 가늘게, 등산복 같은 걸 만들기 위해 가는 실을 만들어야 하는데, 엄청난 속도 안에서 실이 만들어질 때 애를 감아요. 두껍게 만들어졌던 실의 옷을 벗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손톱이 안 자랐어요. 손톱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걸 한

칠팔년 했죠. 그래도 그 일은 혼자 하니까 옆에서 괴롭히는 것도 덜한 것 같고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오래 그걸 하면서 자리를 잡은 거나 다름없는데 너무 힘들었던 건 제 그 자리를 아무도 안 오고 안 하려고 하니까 제가 흑시나 쉬고 그러면 제 사수나 조장이 그렇게 저를 괴롭혔어요.

마스크를 쓰시오, 귀마개를 하시오

기본적으로 방직공장은 정말 힘들어요. 일단 옆에서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소음이 심해요. 엄청났어요.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청각장애 있는 분이 진짜 많아요. 목소리 큰 사람은 청각장애 있었을 정도로. 귀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현장병이죠. 눈도 항상 빨갛게 충혈돼 있어요. 이게 풍면이 많이 날리거든요. 여기저기 살이 물러터지고……. 그래도 기계가 계속 돌아가니까 일을 안 하면 안 돼요. 거기는 기본 온도가 삼십육도인가 될 거예요. 한여름 되면 사십이도까지 가요. 그걸 여덟시간을 버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 없이는 못 살아요. 하루 이리터 넘는 물을 먹어요. 현장에는 다 물병을 끼고 살아요. 군데군데 물도 놔두고 얼음 나오는 거, 제빙기인가? 그런 거 있어도 항상 땀이 줄줄 흘러서 팬티까지 다 젖어요. 이게 살이 짓물러서 상사화 꽃잎이 돼요. 시려요. 엄청 시려. 땀으로 시작해서 땀으로 끝나는 곳이 방직공장이에요. 그리고 먼지. 머리가 하얗게, 서리가 내리는 곳이 방직공장이에요.

사람들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공정에서 이탈을 못 해요. 이탈한 순간 이게 실들이 엉키고 난리가 나서 기계 전체가 엉망이 되니까 화장실 가는 것도 누구, 뭐 조장한테 부탁하고 가야 하고. 기계가 되는 거예요. 딱 밥 먹는 거 삼십 분. 근데 그 삼십 분도 만약에 기계 문제라든가 뭐 불량으로 인해서 풍면이 날아다니잖아요? 그럼 밥 먹는 시간도 없고 화장실도 못 갈 정도예요. 책임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풍면이 날아다니면 자기가 없는 사이에 얼마나 더 많은 파장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조장한테 흔한 말로 깨지기도 하고 막 닭달을 당하니까 밥을 못 먹는 사람들도 있었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거기 보면 벽에 ‘마스크를 쓰시오’ 딱 붙어 있어요. ‘귀마개를 하시오’ 마스크 쓰라고 하는데 더워서 도저히 마스크를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귀가 아파서, 그것만 끼면 귀가 아프대요. 그런 약조건이었어요, 정말로.

한번은 신종플루였나 메르스였나 그럴 때 제가 지원업무를 해서 밤 근무를 가봤어요.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그게 지옥이에요. 딱 네시에서 대여섯시 사이예요, 귀신처럼 졸음이 와요. 안 자려고 막 껌도 씹고 해요. 그래도 저절로 무릎이 꺾여요. 그런데 또 아침에 집에 가서 잠을 자잖아요. 머리가 빙 돌아요. 패턴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집에서 꺼먼 천으로 가려봐도 잠이 안 와. 자야 하는데 기계 소리가 막 들리는 거야. 양을 몇 마리를 세보고 술을 마셔보고 해도 잠이 안 와요. 안 오면 그대로 이제 출근을 해야 해요. 일곱시부터 들어가야 하는데 그럼 최소한 여섯시에는 집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출근하는 순간부터 심장이 뛰는 거예요. 밤에 출근해서 있으면 다 조용하고 기계 소리만 들리잖아요. 그게 너무 서글퍼요. 꼭 곡소리처럼. 그 기계 도는 소리가 통곡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수많은 여성 노동자들이 이런 아픔 속에서 지냈을까. 그게 무섭기도 하면서……. 한 삼개월을 해도 그랬는데 삼교대 했던 여성들은 항상 그걸 겪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삼교대 팔년을 한 사람이 있었는데 지긋지긋했대요. 가족들한테 명절에 가도 빨리 와야 한대요, 출근해야 하니까. 하루나 이틀 겨우 있다 와야 하고 친구들이 무슨 결혼을 한다, 뭐 좋은 일이 있어서 모임 있다 해도 갈 수가 없대요. 이게 언제 걸릴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모든 자유나 이런 게 박탈을 당하는 거야, 삼교대란 이유로. 물론 수당이야 있었겠지만. 그 구조가 그렇더라고요. 완전 착취 중에 그런 착취가 없어요, 진짜로.

손톱도 닳아지고 무릎도 아작 났어요. 발을 움직여야 기계가 올라가요. 그래야 실을 이을 수 있고 빨 수 있는데 이거 하는 사람들은 무릎 관절이 안 아픈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늘 바늘에 찔리고 피가 나고. 저하고 한 살 차이였던 입사 동기는 너무너무 지겹다고 퇴사했어요. 매일 업무일지에 오늘 내가 몇 킬로를 했고 뭘 했고 뭘 했다고 다 적어야 하거든요. 그 할당량이 있으니 숨쉴 틈이 없었겠죠. 동기가 힘들다고 일이년인가 채우고 나갔어요. 근데 아이가 셋이니까 못 하겠다고, 도저히 어려워서, 돈이 궁해서 못 살겠다고 한 삼개월 만에 돌아왔더라고요. 들어와서 음료수를 짹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재입사했다고. 근데 세상에 며칠 만에, 이틀 만인가? 기계에 손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다더라고요. 수술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런 걸 처음엔 전혀 몰랐죠. 그전에 하남공장에서 일했을 때는 소득세 낸 적도 없고 사대 보험 가입도 안 됐는데, 그나마 일신방직이 이런 거라도 정상적으로 받게 해주고 사원아파트도 있고. 일신방직 정문 쪽에 풀장도 있었잖아요? 저는 그게 있어서 참 멋있게 봤어요, 처음

에는. 어떻게 이런 일반 회사에서 풀장까지 해줬나 싶어서. 월급도 수습기간에 칠십만 원인가? 많이 준 편이었어요. 수습 끝나니까 백만 원이 넘어갔어요. 전기팀이라 누렸던 호봉도 꽤 됐고. 뭐 특별수당 같은 것도 있었고, 전기학원도 보내주더라고요. 제가 못하겠다 싶긴 했지만. 다른 팀 가고 나선 호봉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엔 월급이 그래도 좀 됐죠. 이 년 전에 거의 이백 가까이 됐으니까.⁶³

공장, 인내하는 공간

일신방직에서 일한 건 해본 적 없는 일을 하는 도전이었어요. 처음 일한 곳이 공무팀이었잖아요. 해본 적 없는 일이지만 도전해본 거죠. 도전 정신이에요. 제 첫시집인 『이카루스의 날개』의 이카루스도 저는 도전 정신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도전.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면서 살고 싶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 하면 또 다른 거, 또 다른 거, 끊임없이 새로운 걸 찾아갈 거예요.

그렇지만 반대로 일신방직은 제게 인내하게 하는 공간이었어요. 일단은 자식을 키워야 하니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머니로서 강하게 만들었던 곳 같아요, 여성은 아니고. 애들 둘을 키우는데 둘 다 대학을 동시에 가잖아요. 대학원도 다니고. 진짜 천만 원이 흘러넘쳐요. 대출받아요, 가게 대출 같은 거. 집 담보 대출 같은 걸 받아야 보내잖아요. 뭐 일주일이면 없어져요. 애들은 애들대로 장학금을 받고 생활자금이나 학교에서 주는 학자금 있잖아요? 그런 것도 받고. 애들도 노력을 해줬어요. 그래서 더 빚쟁이 안 되고 싶어서 빨리빨리 취업했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다 갚았어요. 다들 지금은 훌가분하겠죠.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몸이 다 망 가져도 다녔죠. 일신방직에서 저는 갱년기, 폐경기까지 맞이하면서 신체 리듬도 다 변해버렸어요.

일신방직 막 들어가서는 여성 노동시를 써야겠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걸 쓰면 난 잘릴 텐데’ 정확하고 일정한 수입원이 없어지니까 그게 무서웠어요. 그래도 일이 힘들다 보니 시

⁶³ 정미숙이 입사한 2009년 최저시급은 4천 원으로 주 40시간 노동자의 월급은 세전 836,000원이고 2019년 최저시급은 8,350 원으로 주 40시간 노동자의 월급은 1,745,150원이다.

를 갈망하게 되더라고요. ‘퇴사하기 전에 빨리 시집을 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일이 힘들 때 마다 시를 쓰게 되었어요. 제 시 속에 『소금꽃』이라는 시가 있어요.

소금꽃

날마다 무등산 바라본
높은 담장 안
우리의 텃밭에서
생의 노래
질퍽하게 이어지고 있어라

8시간 어서어서 지나가길 기다리며

앞만 보고

고개만 숙이고

다람쥐 쳃바퀴 돌고 돌아

굳은살 박인 발바닥으로

굳은살 박인 손바닥으로

끓은 땀방울 흐르고 흘러

겨드랑이마저 짓물리고 나서야

소금꽃으로 피어났네

사지육신 뼈마디 마디에서

진액까지 쏟아내고서야

담장 밖으로 밖으로

탈출한 우리들

이 땅의 자랑스러운 어머니네

어찌 생이 늘 아름답기만 하겠는가

이 수많은 어머니들

비슷비슷한 삶을 함께 노래하기에

어미에게

자식이 신이요 신앙이기에

온 몸으로

뼈 녹아 흘러 흘러 핀

소금꽃

노동자들과 잔치하고 그만둔 회사

평동에 2공장이 있어요. 여기로 차츰차츰 공장을 옮길 준비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계속 잘라나갔어요. 제가 당시에 오십오세가 넘어서 정규직에서 일년짜리 비정규직으로 새롭게 근로계약을 쓰고 일하고 있었거든요. 쓸 때는 일년 후에 재계약하자고 했어요. 그런데 그 계약서 쓰고 몇 개월 뒤에 2공장 가란 얘기를 하더라고요. 2공장 가는 건, 가는 데만 사십오 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그만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죠. 그래도 저는 간다 그랬어요. 예전에 정말 제 사수가 저를 심하게 괴롭히는데도 안 나가고 버텼으니까. ‘그것도 어디냐. 안 잘렸다’ 하면서 이번에도 또 가서 새로운 도전을 하자고 생각했거든요. 간다고 하니까 회사에서 깜짝 놀라더니 그다음 날 면담을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삼일이에요. 그러면서 저한테 “위로금도 주고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조건을 말하면서 저 같은 경우가 없다고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달래요. 그동안에 그냥 나갔던 사람들이 또 자기들도 해달라고 하면 복잡해지니까 누구에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일급비밀로 해달라고요. 조건을 듣고 바로 그만두게 됐죠. 이틀 만인 5일에 그만뒀어요. 그렇게 하했어요. 길어지면 말 나올까 무서웠나 봐.

실업급여 받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거 못 받고 나간 사람 너무 많았거든요. 한 팔십프로는 못 받고 자기가 못 견뎌서 나갔던 것 같아요. 회사에서 못 받게 괴롭혀요. 부대끼니까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도 저는 실업급여 받으니까 그게 너무 좋아서 그때 시집 이십권을 갖고 가서

다 나눠줬어요. 과일도 몇 상자 사 가고 케이크도 사 가서 생산 노동자들하고 나눠줬어요. 축복 받으면서 그만뒀죠. 나처럼 이렇게 잔치하고 간 사람이 없었대. 들어왔을 때나 한턱내는 거지. 근데 '그동안 내가 잘살았다' 싶어서 다 주고 왔어요.



2019년 일신방직을 퇴사할 때 받은 십년 장기근속 상장

다른 도시, 다른 노동, 여전한 노동 조건

퇴직금도 받고 위로금 받고 집 파니까 생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걸로 대출금 다 정리하고 세종시에 전셋집을 얻었어요. 2019년 6월 5일에 이사 갔어요. 큰애가 세종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제 건너편 아파트 살아요. 세종에서 팔개월인가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둔산음식나라'라고 직업훈련학원에 다녔어요. 제가 일신방직서 빨리하는 버릇이 들어서 남보다 손이 빨랐나 봐요. 거기서 (소개) 해주셔서 단체급식하는 구내식당에서 아침 아홉시부터 세시까지 근무하고 있어요. 2020년 2월 3일에 들어가서 근무한 지는 일년 팔개월 됐어요.

여기도 노동 조건이 나쁘더라고요. 왜냐면 점심시간 삼십분 말고는 정말 쉴 수 있는 시간이 단 일분도 없어요. 아주 진을 빼놔요. 화장실을 갔다 오는 것도 빨리, 그것도 갈 수 있는 때

가 있어요. 급식 준비 끝나고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끝나고 나서 한 번. 그리고 마무리하고 퇴근하는데 쉬는 시간이 없어요. 또 삼십분 먼저 출근해야 해요. 일찍 나와서 미팅해야지 작업 준비해야지..... 그러면 그 시간을, 그 노동을 착취하는 거죠. 근데 또 그게 구조상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급여도 적어요. 지금 한 달에 백삼십만 원밖에 못 받아요. 뜨거운 불 앞에서 오백 명분 튀김을 해내고 전을 지지고 밥을 하고 그러다 보면 하루 열두 번씩 그만두고 싶어요. 얼마나 힘든데요. 장화 신으면 다리에 물집 생기고 손에는 습진 생기고. 지금도 귀에 기름도 된 자국이 있어요. 수건으로 가렸어도 어느새 기름이 튀어요.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는 들여다보질 않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론 무인 가게들이 많아지잖아요. 옷 가게도 그렇고 커피점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 이거를 또 달라고 하기도 그래요.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 다 제 또래인데, 새롭게 노년에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일하는 제 느낌이 그래요.

노동은 지금의 나를 있게 한 투쟁

노동은 저에게 투쟁이에요. 그림도 노동이에요. 시도 마찬가지로. 하지 않는 것은 뇌세포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침에 출근하기 싫어도 버스 딱 타면, 특히 세종은 젊은 노동자가 많아서 그들과 같이 시내버스 타고 간다는 것 자체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젊은 생각을 해야 하고 깨어나야 하고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제 딸들한테도 일할 수만 있으면 일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너의 능력이고 네가 잘할 수 있는 거라고. 당연하죠. 일해야죠. 편안하게 사는 거요? 어떻게 편하게 살아요?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해요. 이 시대에 여성으로서 이렇게 안 살면 어떻게 여성의 자리가 바뀌고 그러겠어요. 정치가 어찌니 하지만 제 짧은 소견에는 그래요. 그래선지 (아이들이) 다 씩씩해요. 작은 아이는 상경해서 월세로 살다가 스물다섯 살에 전셋집 구하면서 제가 이천만 원 빌려줬더니 오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삼십칠만 원씩 보내서 올해 칠월에 다 갚았어요. 지금은 강아지 키우면서 멋있게 살아요. 연탄 배달도 하고 무료 급식소 봉사도 하고 유기견 봉사도 하면서요. 그 개도 안락사 앞둔 유기견을 데려다 가족으로 받아들여서

애지중지 키우는 거예요.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방글라데시아 아이와 결연 맺어서 후원하고 요즘은 오히려 제가 그런 영향을 받아요.

내가 이걸 한다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오늘 아침까지도 저희집에서 같이 아침 먹으면서 그래요. “해야 한다”고,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엄마가 안 하면 누가 하냐”고. “노동자로 살았고 노동시를 썼으니 당연히 참여해주고 어떤 정보가 되든 참여하는 건 너무 좋은 거”라고 계속 권장하더라고요. 저보다 더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창피하다고 생각했어요. 방직회사 다니는 노동자라는 게 사람들이 천하게 생각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못했어요. 창피했어요. 시로도 다 표현 못해봤어요. 그래서 아직 속 시원하지가 않아. 창피하기도 했고 안 잘리려고 썼어요. 그때는 감추려고만 하고 가면을 쓴 것처럼 사람들에게 애기를 안 했어요. 제가 지금같이 용감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렇게 구술하는 건 엄청 용기 낸 거예요. 지금은 십일년을 겪으면서 성숙한 것도 있고 애들도 이제는 다 크고 자리 잡고 하니깐 당당할 수 있는 거죠. 또 사는 곳도 세종으로 옮기면서 용감해진 거죠. 광주에선 움직이지 못했던 걸 세종 와서는 당당하게 나서서 할 수 있게 됐어요. 한 발 이렇게 떨어져서 보니 이게 되더라고요.



정미숙 개인 유화전 <푸른 세종>
2021년 세종 송담관리전시관

저이를 위해 어떻게 행복을 나눠줄까

저는 다시 태어나도 시인으로 살고 싶고,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고, 다시 태어나도 제 두 딸을 낳고 싶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건 이십년 전에도 그랬어요.

어려서는 정말 되고 싶은 게 서점 주인이었어요. 서점 여주인이면 늘 책과 가까이 있을 거고 자체적으로 책의 향기가 묻어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시를 쓸 줄은 몰랐죠.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고 문학지회지부장 역할도 하고 편집위원도 하고, 개인적인 사무실을 만들어서 서울도 많이 알고 싶고, 그리고 그 작업도 거기서 하면서, 그래서 거기서 준비해서 서울에, 만약에 어떤 갤러리 같은 걸 할 수 있으면, 그런 걸 차근차근 준비해보고 싶어요.

최근에는 유화 그림을 그리는데, 그러면서 제가 가장 자랑스러웠던 게 서울에 ‘꿀잠’⁶⁴이라는 노동자의 집에 제 첫 그림을 팔아 전액을 기부했던 거예요.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갈 곳 없는 사람들을 위한 노동자들 집이에요. 저는 그걸 기부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이 그림을 그려서 기부하는 게 제가 활동하는 원동력이 되었어요. 시집만 팔면 그렇게는 안 되지만 간혹 그림을 팔면 저는 다 써요. 밥도 사고 신세진 사람들에게 사고…….

얼마 전에는 『2월 그날의 나팔꽃』이라는 시집을 스무 권 사서 나눴어요. 후배⁶⁵가 기록 글 부문의 전태일 문학상도 받고 한 르포 작가예요. 작년 사월에 ‘앞으로 어떤 일 하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그해 유월 말인가에 병으로 죽었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이육사재단에서 유고시집을 낸 게 이 책이에요. 일주년 때 유고시집을 내줬다는 게 너무 고마워서 그 마음에 동참해야겠다 싶어서 구천 원석이길래 스무 권 샀는데 하나도 후회가 안 돼요. 이것도 그림 팔아서 한 거예요. 이렇게 베풀고 싶어요. 고맙잖아요. 관리자들은 꼭 일제 앞잡이처럼 나서서 바람잡이를 하고 녹록지 않게 하지만 노동자는 공동체가 중요하더라고요. 나 챙겨주고 늘 다정한 미소 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면 나는 또 ‘저 사람을 위해 어떻게 행복을 나눠줄까’ 생각하고. 그런 게 공동체라고 생각해요.

64 2017년 서울 영등포구에 설립된 비정규직 노동자 쉼터.

65 고 서분숙 르포작가. ‘노동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벗’(시집 머리말)이 되고자 했다.



광주여성구술채록단과 인터뷰하는 정미숙의 모습

생애연보

- 1963년(1세) 전남 고흥에서 육남매 중 둘째로 태어남
- 1970년(8세) 초등학교 일학년 무렵 가세가 기울어 여러 차례 이사 다님
- 1976년(14세) 서울로 이주. 먼저 상경한 오빠와 함께 생활
후에 상경한 남동생과 함께 자취
- 1980년(20세) 직장생활 시작
- 1988년(26세) 결혼과 장녀 출산
- 1992년(30세) 차녀 출산
- 1994년(32세) 광주광역시 두암동으로 이사
- 1997년(35세) 레스토랑 블루마운틴 창업. 오년 동안 운영
- 2000년(38세) 첫 시집 『이카루스의 날개』 출간
이후 일곡도서관 문화센터 등에서 강사 활동
- 2001년(39세) 노의웅 화백과 『이카루스』 시화전 개최
- 2005년(43세) 하남공단내 파견회사 비정규직으로 2년 동안 근무
- 2008년(46세) 일신방직 전기팀으로 입사
- 2009년(47세) 포장팀으로 전환 배치되어 삼개월 근무
이후 생산1팀에서 일이년간 지원업무
- 2012년(49세) 생산3팀으로 배치되어 지원업무. 이후 스트리퍼 전담
- 2018년(56세) 일신방직 노동 경험을 바탕으로 제2시집 『등에 핀 꽃』 출간
- 2019년(57세) 권고사직으로 일신방직 퇴사
큰딸이 있는 세종으로 이주, 현재까지 거주
- 2021년(59세) 세종시 구내식당 조리원으로 근무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창작준비금 지원사업 선정
- 2022년(현재) 세종시 구내식당 퇴사
제3시집 『수제튀김을 할 때마다 새를 생각해』 발간



광주여성구술채록단 활동일지

당신이 말하고 광주가 기록하다 204

이정선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광주여성구술채록단

후기

당신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212
나를 만났습니다

광주여성구술채록단

당신이 말하고 광주가 기록하다

이정선

조선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광주여성구술채록단

광주 시민으로 구술채록에 도전하다

2021년 5월 말, 학과 홈페이지를 훑어보다가 한 공지에 시선이 멈췄다. 광주여성가족재단에서 “광주 시민이 쓰는 광주 여성의 역사”라는 슬로건 아래 광주여성 구술채록학교 참여자를 모집한다는 소식이었다. 성·연령·직업 무관, 광주 공동체와 역사·여성·구술에 관심 있는 시민, 컴퓨터 활용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글쓰기 경험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했다.

반가운 마음에 당장 신청하고 싶었지만 한 칸에 망설임도 있었다. 역사를 쓰는 작업에 전문 역사학자가 일반 시민으로 참여해도 될까, 자칫 재단의 취지에 누를 끼치는 게 아닐까 등등. 그렇지만 구술사에 문외한인 것도 사실이었다. 그동안 역사학은 기본적으로 문자로 기록된 문헌 자료를 활용하여 과거 사실을 연구해왔다. 그런데 문헌 자료는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만 기록을 남길 수 있고, 사회통념상 가치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일수록 보존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층·중앙·남성의 시각을 내포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역사학계는 스스로 남긴 기록이 극히 적고 그나마 남아 있는 기록에도 권력자의 편견이 들어가 있는 하층·지방·여성의 역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를 고민해왔다. 구술사는 그를 위한 방법 중 하나로 주목받았다. 살아있는 당사자의 입을 통해 삶과 경험을 듣고 구술을 음성·영상·문자로 남기는 동



광주여성 구술채록학교 참여자 모집 포스터

시에, 문헌 자료와 함께 활용하여 역사를 서술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여전히 역사 계열 학과에서 구술사를 정규 교과과정에서 가르치는 경우는 드물다. 나 역시 구술사 이론서는 조금 읽었지만, 제대로 된 실전 경험은 없는 상태였다. 그래서 ‘성·연령·직업 무관’이라는 문구에 기대어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광주여성가족재단의 문을 두드렸다. 재단에서 너그럽게 받아주신 덕에 지금까지 활동을 함께 할 수 있었다.

구술·광주·여성이라는 키워드를 품고

구술채록학교는 2021년 6월 4일 예비모임을 가진 후, 6월 8일부터 7월 27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전 10~12시 교육과정을 운영하였다. 구술채록학교 교육을 받으면서, 교육과정이 알차고 참여자의 열의가 높은 점에 매우 놀랐다. 8회 교육과정은 일반 시민을 이론과 실전을 겸비한 전문채록자로 양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재단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구성과 윤택림·이경아 선생님의 열정적인 강의가 부족함을 메웠다. 특히 매주 교육이 끝난 후 부여되었던 과제들이 기억에 남는다. 윤택림 선생님이 1주차에 부여하신 ‘구술로 기록하고 싶은 광주 여성의 삶’ 과제를 통해서 ‘구술’, ‘광주’, ‘여성’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마음에 품을 수 있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소수자인 ‘여성’의 역사를 ‘구술’이라는 방법을 통해 서술하려는 생각은 갖고 있었지만, ‘광주’라는 공간의 특성을 그와 연결시켜서 ‘왜 광주인가’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앞으로 과제가 되었다. 이경아 선생님의 과제 중에는 충북여성재단이 2020년 편찬한 『대농방직 여성노동자의 삶 - 솜뭉치에서 일궈낸 배움의 꿈』을 읽고 면담 당시 채록자가 구술자에게 던진 질문지를 재구성하라는 5주차 과제가 인상적이었다. 구술자료는 구술자와 채록자의 상호작용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채록자의 질문과 개입 방식이 구술자의 구술 내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일반 시민을 독자로 상정해서 구술사를 출판하는 경우,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질문을 삭제하고 구술 내용을 편집·재구성해서 매끈한 글로 만들어버리는 사례가 많다. 충북여성재단의 책도 그런 경우였는데, 이경아 선생님의 과제는 글을 보고 숨어있는 질문을 추출해보는 것이었다. 이를 통해 면담에서 채록자의 위치와 바람직한 구술사 서술 방식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다.

광주여성 구술채록학교 교육과정

이론편 유택림 한국구술사연구소 소장			실전편 이경아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학술연구교수		
회차	날짜	내용	회차	날짜	내용
1강	6.8	구술사의 개념과 특징	5강	7.6	구술자 선정 및 면담 진행 방법
2강	6.15	구술생애사 인터뷰 방법	6강	7.13	시대적·역사적 배경과 개인의 삶
3강	6.22	여성구술생애사 사례	7강	7.20	질문지 작성과 면담의 실제
4강	6.29	구술생애사 해석과 글쓰기	8강	7.27	구술자료 정리 및 아카이빙

구술채록학교 참여자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과 배경을 가진 광주 여성 19명이었다. 모집 공고문에서 ‘교육생 10%는 남성 우선 배정’한다고 하였으나 남성 참여자는 없었다. 자신의 할머니, 어머니, 아내, 누이, 동생, 친구일 광주여성의 역사에 남성 시민의 관심이 적은 것이 안타깝다. 누락되기 쉬운 여성의 역사를 발굴·복원해야 역사의 전체상에 좀 더 다가갈 수 있음을 적극 알려야겠다.



2021년 6월~8월 진행된 광주여성 구술채록학교 수업 모습

구술채록학교에 참여한 여성들의 열의는 매우 높았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기도 해서 ZOOM을 처음 사용하는 분들은 어려우셨을 법도 한데, 재단 관계자의 도움을 받아 곧 능숙해지셨다. 교육과정 수준과 과제 난이도 역시 상당히 높았음에도 절대 다수의 참여자가 ‘전출’한 것으로 기억한다. 지각도 없었다. 여성이 인류의 절반을 차지함에도 역사 서술에 드러나지 않거나 주변적·부차적 존재로 묘사되는 데서 오는 답답함이랄까. 아마도 여성사가 답답함을 풀어주는 나와 너, 우리의 역사임을 느꼈던 것 같다. 대면수업(7월 27일) 때 정미경 성평등문화팀장님이 편안하게 각자의 이야기를 이끌어주신 덕분에 유대감도 생겼다. “광주지역의 방직공장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의 삶을 구술생애사로 기록한다는 것의 의미”, “방직공장 여성노동자들의 경험을 구술채록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라”는 필기시험까지 거친 후, 출석율 80%, 과제제출 80%, 필기시험 70점 이상이라는 기준을 충족한 14명이 제1기 광주여성 구술채록단으로 위촉되었다.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에서 일한 적이 있는 여성들을 찾아나섰다. 포스터에 적힌 “당신을 들려주세요. 당신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록하겠습니다. 광주가 기억하겠습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곧 광주의 역사이고 당신의 삶이 곧 광주여성의 역사입니다.” 의 문구들이 사업 취지와 의미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재단은 공개 모집과 함께 광주여성노동자회 서연우 대표님, 전남방직 여성노동자 구술 채록 경험이 있는 이희영 선생님 등의 도움을 얻어, 1930년대생부터 1980년대생까지 여섯 분을 구술자로 모셨다.

구술채록단은 8월 11일 위촉식에서 2인 1조를 이루어, 각기 한 분을 2회(1회 2시간) 인터뷰하기로 했다. 나는 김강현 작가님과 한 팀이 되어, 8월 25일과 9월 15일에 고인선님(가명)을 만났다. 김소영 영화감독님도 사진 촬영과 영상 기록을 위해 함께 하셨다. 구술채록 과정에서는 한 사람의 생애를 듣고 기록하기에 4시간은 너무 짧음을 절감했다. 구술자에게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정해진 시간 안에 소화하려다보니 채록자가 듣고 싶은 주제에 질문을 집중하게 되었고, 내용과 연보를 정확히 작성하기 위해서 사건이 일어난 시기와 사실 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는 시간도 부족했다. 회를 거듭해 만날수록 서먹했던 구술자도 채록자도 서로 편안해지면서 이야기가 풍부해지는 것 역시 느낄 수 있었다. 앞으로 가능하다면 2회 본 면담 이외에 사전·사후 모임을 추가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한편 가장 인상깊은 사건은 12월 10일에 구술자들을 모시고 방직공장을 탐방한 것이었다.

연세가 많아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멀리 타 지역에 거주하는 분도 모두 젊은 시절을 보냈던 방직공장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셔서 추진된 일정이었다. 팔순을 넘긴 어르신들이 설레서 전날 밤잠을 설쳤다고 이야기하실 때는 폐허가 되어버린 공간을 보고 도리어 쓸쓸해하실까 걱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즐거운 옛 기억을 떠올리면서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이 서로 노동 경험을 나누며 한 발 한 발 추억을 곱씹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가슴 한구석이 뭉클했다. 전남·일신 방직공장 부지가 재개발되면 다시 못 올 순간이었다. 여성들이 남긴 광주의 역사가 기억될 수 있도록 전남·일신 방직공장 부지와 시설이 현명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해본다.

2021년 7월 07일 (수) — 7월 28일 (수)

전남방직 일신방직 공장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을 기다립니다.

당신을 들려주세요.
당신이 있음을 보여주세요.
우리가 기록하겠습니다.
광주가 기억하겠습니다.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아카이빙

광주여성가족재단은 광주역사를 일구어 온 여성 활동과 기억을 체계함으로써 지역여성사 발굴 및 축적을 위한 아카이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광주공동체의 변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방직공장 여성노동자의 삶과 활동을 기록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곧 광주의 역사이고
당신의 삶이 곧 광주여성의 역사입니다.

- 기간 2021년 7월 7일 (수) - 7월 28일 (수)
- 대상 전남·일신방직공장 부지 소재 일신방직 공장 노동자로 일한 경험이 있는 여성 (연령 50세 이상에 제한 없음)
- 접수 및 문의 광주여성가족재단 선한문화지원팀 (문의: 010-010-0000)

광주여성가족재단
Gwangju Foundation for Women & Youth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아카이빙 구술자 모집 포스터



2021년 8월 전남방직공장 탐방



2021년 12월 전남방직공장 탐방
오래전 자신의 일터였던 곳을 둘러보며 설명하는 구술자 사진 임미숙

우리에게 남은 것과 남겨야 할 것

광주여성가족재단이 『광주여성사』 편찬을 마치고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아카이빙까지 시작한 것에 광주 시민 한 사람으로서 감사할 따름이다.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대치도 같이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광주여성가족재단과 구술채록단에게 남은 것 또는 남겨야 할 것 가운데 더 욕심을 내보았으면 싶은 점 두 가지만 이야기하려 한다.

첫째, 구술채록단 활동과 구술생애사 서술에 여성주의적 시각을 녹여낼 방법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물론 여성 생애구술사 편찬사업은 그 자체로 여성주의적 기획이지만 구술자와 채록자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를 더할 수는 없을까? 많은 여성이 사회 통념에 입각해 자신의 삶을 별 것 아닌 것, 남에게 보이기 부끄러운 것으로 생각할 때, 여성사는 그에 정당한 목소리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을 지향한다. 여성노동자, 그리고 2022년 구술채록 계획 중인 여성상인들이 구술 과정에서 자신의 삶을 긍정하고 자랑할 수 있길 바란다. 2021년에 시행된 방직공장 합동 답사와 단행본 출간 이후 계획된 집담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행사이다. 그룹 면담처럼 구술자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개별 면담 전후에 배치해도 좋겠고 구술자를 답사의 해설사로 모셔도 좋겠다. 구술자가 주체로 나설 수 있는 즐거운 자리가 많을수록 자기 해방의 기회도 늘어날 것이다.

또한 채록단에게는 자기 성찰의 기회가 많았으면 한다. 채록단이 질문을 구성하고 구술내용을 글로 작성하는 체제에서는 채록단의 인식이 생애구술사 서술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 이 과정에서 자칫 채록자가 구술자를 자신과 다른 불쌍한 존재로 대하거나 묘사하지 않도록, 또 국가주의나 산업화의 논리에 휩쓸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통해 채록자 역시 성장할 수 있다.

둘째, 구술채록단 활동에서 생산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일반에 제공함으로써, 광주여성사 서술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역사는 자료 없이 서술할 수 없기에 여성사 연구는 늘 자료 부족에 시달린다. 구술채록은 여성사 서술을 위해 자료를 스스로 생산하는 과정이며 음성, 영상, 사진, 문서, 녹취록 등 다양한 형태로 자료가 수집·생산된다. 이 소중한 자료들을 제대로 아카이빙하지 않으면 여성사 서술은 제자리 걸음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야심차게 사업을 시작한 김에, 여성 구술생애사 채록전문가 양성, 시민을 위한 여성 역사·문화콘텐츠 개발과 함께, 여성사 자료 아카이빙을 주요 사업으로 확립하였으면 한

다.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의 성평등아카이브(www.genderarchive.or.kr)도 참고가 된다. 이로써 광주여성사 연구가 활성화되면, 광주시사는 물론 주류 역사학의 상층·중앙·남성 편향적인 시각에 균열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성평등 광주 공동체’를 실현하려는 광주여성가족재단의 미션에 부합한다. 중장기 프로젝트겠지만, 그만큼 설렘도 가득할 것이다. 그 길에 함께 할 수 있어서 즐거웠고, 앞으로도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동참할 것을 약속드린다.

광주여성 구술채록학교 추진일정

○	2021. 4. 14.	광주여성 생애구술 아카이빙 사업계획안 수립
○	2021. 5. 6.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	2021. 6. 8 ~ 7. 27	광주여성 구술채록학교 운영
○	2021. 7. 7 ~ 7. 28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구술자 접수 홍보
○	2021. 8. 3	광주여성 구술생애 아카이빙 사업 용역 계약 체결
○	2021. 8. 11	광주여성 구술채록단 위촉식
○	2021. 8 ~ 9월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구술채록 작업
○	2021. 8. 20	전남일신방직 공장 탐방
○	2021. 10 ~ 11월	방직공장 여성노동자 생애구술 원고 집필
○	2021. 12. 21	광주여성 구술생애 아카이빙 사업 용역 완료 보고
○	2022. 7. 20	『뼈를 녹여 소금꽃을 피웠다』 광주여성 생애구술사 I 출간

당신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나를 만났습니다

김강현

먼저, 망설임 속에서도 구술을 결정하고 이야기를 들려주신 고인선님께 감사드립니다.

고인선님은 말씀을 하시면서도 “나쁘게 내지 마”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방직공장에 다니던 시절, ‘공순이’라며 안 좋은 시선을 받았던 기억과 ‘혹여 자식들에게 누가 될까’ 하는 마음 때문이었을 듯합니다. 그럼에도 구술할 용기를 낸 것은 어려울 때 가족을 먹여 살렸던 자신을 세상이 알아주길 바란 것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1950년대는 근로환경이 열악할 때라 내심 고생스러운 기억으로만 남았으려니 짐작한 것과는 달리 의외로 방직공장 근무 당시를 재미있고 행복했다며 추억하셨습니다.

방직공장 경험을 비롯하여 드라마 같은 삶이 참으로 다사다난했습니다. 마치 망망대해에서 거대한 폭풍우와 거센 파도를 만난 작은 통통배 같았습니다. 집어삼킬 것만 같은 고난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으려 버텼고, 결국에는 역경을 이겨내고 잔잔해진 물결 위로 유유히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모진 파도를 묵묵히 감수하며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고인선님이 받았던 사랑과 가족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고인선님께서 한 여성으로서 또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노동자로서 우리의 역사 속에 분명히 존재했음을 광주시민인 제 손으로 기록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습니다. 구술 내용이 육십여 년 전 일이라 자료가 부족하였지만 다양한 참고 자료를 찾아주신 이정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지금도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 나서지 못한 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김수진

“내 인생은 늘 새로움으로 채워간다” 채록자가 만난 구술자 김은경님은 자신을 늘 새로움으로 채워가는 긍정 에너지 여왕이었다.

인생에서 가장 즐겁고 신나는 20대 학창시절.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젊음이 풋풋한 시절, 김은경님에게 독립은 숙식이 해결되는 곳이면 족했다. 그래서 선택한 곳이 그 시대에 가장 억척스럽게 삶을 개척하고 가정 책임을 지어야만 했던 선구자들의 현장이었다.

일신방직에서 역센 선배들에게 밀리지 않으려고 누구보다 부지런히 일하였고,

생산직 여성이면 더는 오를 수 없는 조장 자리까지 성취하였다. 그러나 열악한 복지 환경에 ‘이건 아니야’라고 수백 번 외쳐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는 현실에 김은경님은 우물 밖으로 뛰쳐나왔다. 본래 지닌 강인함과 방직회사에서 익힌 부지런함과 인내심은 어떠한 험한 일이 닥칠지라도 못해 낼 일이 없다는 자신감이 되어 있었다.

배움과 채움의 달인이 되어 닦쳐오는 일에 현명하게 대처하게 되었다는, 앞으로 삶이 더 기대되는 긍정 여왕 82년생 김은경. “세상에 태어나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두 딸을 낳은 일이다.”라는 은경씨. 당신은 정말 한국의 자랑스런 여성입니다.

자신을 위해 끊임없이 배우고 오롯이 채워가는 모습. “나는 내 삶의 주인공이다”고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김은경님에게 큰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김유정

전남방직, 일신방직 여성노동자 구술생애사 아카이빙 사업에 채록자로 참여하게 된 것은 한마디로 계획에 없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래저래 생애 전환점에 선 듯해서 ‘뭐라도 안 해본 걸 해보겠다’는 마음에 시작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익숙하고 잘 아는 일이 아니었기에 ‘어쩌나’ 하는 걱정 반, 많은 분이 관련된 일이라 ‘뭐, 어떻게든 되지 않을까’하는 낙관 반으로 임했습니다.

겨우 한 번 그 과정을 경험했을 뿐이지만 ‘구술생애사’ 작업이란 글쓰기나 인터뷰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 대한 관여이자 애정 행위이며 나에 대한 응원 메시지 보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타인의 삶의 궤적은 결국 듣는 사람, 보는 사람에게는 어루만짐이고 위로이기 때문입니다.

‘뭐라도 해보자’는 충동으로 시작한 일이 깊은 감정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잠시 당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구술자의 삶의 궤적이 내 삶을 살아가는 동력으로 오는 과정을 거치며 ‘구술생애사’ 작업의 힘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술자 정미숙님, 윤혜경 선생님, 서연우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윤혜경

일신방직 부지를 앞으로 어떻게 이용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런 작업을 하게 된 것만으로도 뜻깊고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광주에서 여성 노동자 이야기를 당사자의 말로써 기록한다는 것은 더욱 뜻깊은 일일 것입니다.

다양한 시기에 일신방직에서 일했던 다양한 나이의 사람들이 각자의 삶 속에

서 일신방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일했던 시기에 따라 일신방직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 여성 노동자 스스로 자신의 노동을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바뀌어왔는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신방직 노동자라는 점 외에 다른 것들을 살피지 못한 채 구술자를 선택한 까닭에 구술 생애사 작업에 몇 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명확한 구술생애사의 목표와 지향을 정한 후 이에 부합하는 구술자를 선정한다면 어려움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술해주신 정미숙 선생님, 이경아 교수님, 윤택림 교수님, 광주여성노동자회의 서연우 회장님과 광주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정미경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정선

소심한 역사 연구자에게 구술 인터뷰는 오랜 로망이었다. 혼자 책상에 앉아 말 없는 문자들과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사람과 마주 앉아 기록을 만들어내는 구술작업은 낯설고 두렵지만, 그만큼 꼭 해보고 싶은 일이기도 했다. '광주시민이 쓰는 광주여성의 역사'라는 문구와 함께 시작된 광주여성가족재단의 광주여성 구술채록학교는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었다. 8강으로 구성된 알찬 강의와 2회 4시간 구술 인터뷰, 구술채록단 내부의 진지한 논의들은 늘 즐거웠다.

이름난 남성 정치인들만 역사를 만들어온 것이 아니라 묵묵히 살아가는 무수히 많은 사람의 삶 하나하나가 모두 역사임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기쁘다. 4년 차 광주시민으로서 많이 부족하지만, 광주여성의 기록을 남기고 역사를 서술하는 작업에 앞으로도 계속 참여하고 싶다.

낯선 방문자들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삶을 이야기해주신 고인선님께 무한한 감사와 존경을 드리며 구술자로 참여해주신 분들이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빈다. 기획해주신 광주여성가족재단과 광주여성노동자회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임미숙 · 장상은

마치 자서전 쓰기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으며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던 그녀는 현재 63세, 고등학교 1학년 늦깎이 학생이다. 학교에 다니는 것이 너무 행복하다. 반장도 해보고 동창회도 있고 운동회도 있고 설레는 마음으로 소풍도 가겠지. 시험은 싫지만 그래도 학교에 다니는 주말이면 그녀는 여지없이 고등학생이 된다. 처음엔 다소 생소했던 만남이 점점 익숙해지면서 한 인물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했다. 여성만이 만들어 낼 수 있는, 아파서 더 찬란한 역사 앞에 그녀는 간간이 눈시울을 붉히다가도 금방 해맑게 웃어넘긴다. 그녀의 맑은

눈망울이 아련하게 그려진다. 늙은 부모와 일곱 살 터울 여동생을 위해 스스로 소녀 가장이 되어 가족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던 그녀. 똑순이 딸이 가족을 위해 분투하다가 자신의 가족을 만들었고 또다시 아픔을 견뎌야 했던 지난 날들 이었다. 이제는 두 남매의 어머니로, 두 손자의 할머니로 부끄럼 없는 삶을 살고 있다. 바다 내음 풍기는 광양에서 남편과 소박하게 지내며 일하고 공부하는 매일이 한없이 행복하단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오늘날 같아라'하며 훨훨 이루지 못했던 꿈 이루면서 사랑과 봉사로 나눔도 하면서 살고 싶다고 한다. 자신의 지난 삶이 광주여성사의 한 페이지가 되어 기록으로 남겨진다니 감사한 일이라며 눈가에 촉촉한 미소를 머금는다.

정현아

나와 여섯 살 차이가 나는 어린 동생뻘인 김은경님을 만나러 간 첫 날. 이렇게 젊은 분이 어떻게 방직회사에서 6년간 일을 했을까 궁금한 마음이 가장 컸다. 그이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솔직히 놀랐다. 동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인데 삶을 바라보고 겪어내는 태도가 어쩔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나는 그동안 책상머리에 앉아 머리와 가슴으로만 만든 세상을 다가오는 대로 그저 관망하며 살아온 것 같았다. 그에 반해 김은경님은 아주 어릴 적부터 '나 자신'과 나를 둘러싼 환경 그리고 내가 열어가야 할 삶을 몸으로 부딪히며 살아냈다. 온전한 존재로서 삶을 마주하는 것. 제킬 건 제끼고 감내할 것은 안아가면서 이루어온 진짜 삶. 한참이나 어린 그이를 보면서 느낀 감정이 여러 가지였다. 놀라움, 경외감, 안쓰러움, 부러움이 갔다가 오고, 또 다시 갔다가 더 세계 밀려오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짧은 두 번의 만남에 담백 정이 들어버렸다.

사랑받고 싶었고 멋부리고 싶었던 어린 김은경. 바이올린을 켜는 게 행복했던 그이는 환경을 탓하고 자기를 탓하며 쓰러지지 않았다. 언제나 그래왔고 오늘 역시 치열하게 자력 생활을 한다. 내 일을 하여 내 삶을 꾸리고 내 아이들을 챙기고 나의 미래와 아이의 앞날을 헤쳐나가고 있다. 그이가 애뜻하다. 그의 존재가 가진 힘이 주변을 환하게 하고 앞으로의 시간까지 대차게 끌고 갈 것이다. 그의 씩씩한 역동성과 생명력을 응원한다.

조경미

먼저, 광주여성재단 구술채록사업에 참여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뜨겁던 여름날! 구술자를 만나러 일터인 담양으로 가면서 설레던 마음이 엇갈려 같습니다. 그냥 스치는 우리 이웃 중 한 사람이었을 김복자님과 마주한 순간, 한 사람의 생이 다가왔습니다.

사라진 일터, 사라진 마을, 함께 걸었던 사람들, 그렇게 잊혀지고 사라진 것들을 복기해내는 생생한 목소리는 우리의 소중한 역사였습니다. 비로소 역사 퍼즐이 온전히 맞춰지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소소함에 묻혀 아무도 귀담지 않았던, 그분이 풀어 놓는 장강(長江) 같은 이야기는 개인사 이전에 여성 이야기요 여성노동자 이야기 이전에 광주 이야기였습니다.

계절이 더 많이 바뀌기 전에 광주 곳곳에 서린 역사와 노동현장에서 치열하게 삶을 일궈온 여성들을 더 빨리 만나야 할 것 같은 다급함이 앞섭니다. 주인공들은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열린 마음으로 삶의 흔적을 가감 없이 굵이굵이 펼쳐주신 김복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분의 앞날이 평화롭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문에 주변 사람이나 당시 사회상황에 대한 기억이 많지 않았다. 특히 방직공장 노동자들의 취미나 복지 환경 같은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그렇지 못했다. 아쉬움이 남는다.

노미레님의 인생 이야기를 쭉 들으며, 얼마나 치열하게 살아왔는지 생생하게 느껴져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깊이 감동하기도 했다. '학교공부가 인생의 다는 아니다'라는 말처럼, 교과서가 알려주지 못하는 인생 공부를, 세상 공부를 한 보람된 시간이었다. 단순히 방직공장이라는 노동현장 이야기를 공유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과 사람으로서 교류하며 공감했던 이 시간이 따뜻하고 뜻깊었던 활동으로 오래 기억될 듯하다.

채현숙

그분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 뵈 김복자님의 환하고 밝은 모습은 고생이라고는 해보지 않았을 것 같은 밝음이었습니다.

인터뷰 두 번과 전화 인터뷰 등을 통해 그분이 살아온, 살아냈던 인생 이야기가 가슴에 콕, 하니 박혔습니다. 어려웠던 가정환경 속에서도 곳곳하게 자신의 삶을 지켜왔고 당당하게 살아왔던 모습이 저절로 그려졌을 정도였습니다. 아마 김복자님의 이야기는 저희 어머니, 이모, 고모들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까마득한 선배나 동창들의 이야기, 나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겠지요. 꺼내기 싫었을 기억도 과감하게 끄집어내어 우리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여겨졌던 여성들의 희생과 끝없는 노동, 지친 삶 속에서도 끝까지 지키려 했던 가정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외면하고 애써 잊고자 했던 것들을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선생님 말씀대로 작고 하찮은 것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 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태희·한영숙

채록 활동이 처음인데다 연세가 많은 구술자의 이야기에 얼마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섰다. 관계 형성이 잘 될지도 염려스러웠다. 그러나 첫 만남 때부터 질문에 거리낌 없이 답변해주셨다. 마치 할머니의 옛날이야기를 듣는 손녀가 된 기분으로 즐겁게 채록할 수 있었다.

그러나 취미 생활 등 자신을 위한 생활보다는 가족을 위해 일만 하고 지냈기 때

뼈를 녹여 소금꽃을 피웠다

광주여성 생애구술사I : 방직공장 노동자편

발행일	2022년 7월 22일
발행처	광주여성가족재단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무등빌딩 3층, 9층 Tel. 062-670-0560 Fax. 062-670-0505 홈페이지 gjwf.or.kr 인스타그램 @gjwomenfamily
발행인	김미경 · 광주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기획 및 편집	정미경 · 광주여성가족재단 성평등문화팀장
구술채록 진행	서연우 · 광주여성노동자회 회장
사진 촬영	김소영
감수	이경아 · 목포대학교 도서관화연구원 학술연구교수
윤문	양숙희 · 번역가
자료조사	김한빛 · 광주여성가족재단 성평등문화팀
디자인	늘디스튜디오
ISBN	979-11-92220-116 비매품/무료

본 출판물의 저작권 및 판권은 광주여성가족재단에 있습니다.

